

男女의 差異에 根據한 男女形象의 醫學的 運用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仁洙·尹暢烈*

根據男女差異在男女形象的醫學運用方面的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仁洙·尹暢烈

西洋醫學上認爲男女僅僅是在生殖器不同的人. 最近, Legato, Marianne J. 博士創立了“性認知醫學”學, 開始認識到男女的差異, 主張男女在治療方法上亦不同法, 從而這一研究進入了新的段階. 但是韓醫學從『黃帝內經』開始, 就認爲男女在構造上有根本的差異, 而且在生理, 病理, 診斷, 治療上也不同. 記錄韓醫學基本原理的周易的相關書籍和『黃帝內經』, 以及歷代的主要韓醫書籍及從事臨床的韓醫師的書籍上, 亦都認爲男女有差異. 關於男女的生成, 在『普濟方·方脈總論』的辨男女形生神統論中提出了男女的形成有異.

『東醫寶鑑』與其他韓醫書不同, 不是以疾病爲主, 而是以身爲中心. 即目次按形象進行了排列, 且詳細地言及了男女. 那么男女是固定不變的嗎? 不是的. 『東醫寶鑑·身形臟腑論』認爲“人的形色有差異, 臟腑易有異, 故外症雖同, 治法因人而異”. 按形象選用不同的治法的觀點, 已通過朱丹溪之言而表明. 不變觀點上女子體格小易動, 男子體格大易臥. 男子屬陽氣易散. 如男子情緒稍差, 即飲酒解愁, 不易得憂鬱症, 應補其精氣. 女子屬陰氣易鬱滯, 多有忍氣之性質, 易得憂鬱症, 故多用散氣藥. 簡單而言‘男子爲病虛證, 女子爲病實證’.

從變化的觀點來用藥, 例如男子瘦小可用女子藥的四物湯. 女子肥可用男子藥的四君子湯. 女子骨壯可用男子藥的六味地黃丸.

爲了更容易理解‘男女不變和變化的觀點在醫學的運用’, 以臨床病例進行說明. 在臨床上通過形色脈證的合一和辨證論治決定處方. 即不能單純的認爲, 因爲是男子就用六味地黃丸, 女子就用四物湯. 男子若小可用四君子湯 四物湯 六味地黃湯, 而女子若大可用四君子湯 二陳湯 平胃散 六君子湯. 因此, 男女在構造·生理·病理有根本性差異, 不以形象來區分, 用藥上是持不變的立場, 而以形象用藥, 是從變化的立場來考慮的. 認爲以男女爲基準從事臨床, 是符合韓醫學基本原理之陰陽觀.

Key Words : 形象, 男女差, 『東醫寶鑑』.

I. 緒論

이제까지 西洋醫學에서는 男女를 사실상 區分하지 않고 男子와 女子는 生殖器를 제외하면 生物學的으로 큰 差異가 없으며, 女性은 단지 약간 變形된 ‘작은 男性’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西洋醫學에서 男女가 다르며 男女의 治療法을 다르게 해야

* 교신저자: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42) 280-2601, yooncy@dju.ac.kr

한다는 움직임이 最近에서야 나왔다. 2005년 9월에 韓國性認知醫學 創立總會가 梨花女大에서 열렸는데, 性認知醫學에서는 診斷과 治療에 있어 男女의 差異를 적극적으로 反映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韓醫學은 陰陽五行學說을 根本 理論으로 하여 發展되어 왔으며, 黃帝內經이래 수많은 醫書에서 男女의 差異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 『黃帝內經』의 ‘年老하면 無子하는 경우’¹⁾에 보면 男女가 7세와 8세의 곱으로 男體와 女體의 變化過程이 다르다고 되어있다. 『醫學入門』에서는 “先天圖는 圓이고 後天圖에 人之百病이 皆由水火不交라 故로 以後天坎離로 繼之라 血은 屬水하고 氣는 屬火하니 血陰而氣陽也라 離中之虛에 眞陰이 存焉하고 坎中之滿에 眞陽이 寓焉하니”²⁾라고 하여 坎은 水로 腎을 의미하고 離는 火로 心을 意味하여, 사실상 男女를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은 男女로 나뉘고, 醫學은 男女가 있음으로 시작된다. 全體的인 男女의 構造에 대해 『東醫寶鑑·乳門·男腎女乳가 性命의 根本이다』에 “男子는 腎으로 重을 삼고 女子는 乳로써 重을 삼으니 上下는 같지 않으나 性命의 根本이 되는 것은 한가지이다. 女人은 陰에 屬하니 陰이 極하면 반드시 아래로부터 上沖하는 故로 乳房이 크고 陰戶가 움츠러지는 法이요 男子는 陽에 屬하니 陽이 極하면 반드시 위로부터 下降하는 故로 陰莖은 下垂하고 乳頭는 움츠러지는 법이다.”³⁾라고 하여 男女의 構造가 根本的으로 差를 말하였다. 『東醫寶鑑·氣의 用藥法』에 보면 “男子는 陽에 屬하여 氣가 흠어지기가 쉽고 女子는 陰에 屬하여 氣가 많이 鬱滯한다. 그러므로 男子는 氣病이 항상 적고 女子는 氣病이 많다.”⁴⁾고 하였고, 『東醫寶鑑·辨證門』에 男女의 病因으로 “모든 病에 男子는 반드시 房勞를 살펴야하고, 女子의 病은 먼저 月經과 孕胎의 與否를 물어야 한다.”⁵⁾고 하

었다. 이와 같이 男女는 根本的으로 構造가 다르고 그 生理·病理가 다르다.

그러면 男女를 그저 固定不變하는 것으로만 보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사람을 形象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東醫寶鑑·身形臟腑論』에서 “一般的으로 사람의 形體는 긴 편이 짧은 편만 못하며 큰 편이 작은 편만 못하고 살찐 편이 여윈 편만 못하며 흰 편이 검은 편만 못하고 嫩한 편이 蒼한 편만 못하며 얇은 편이 두터운 편만 못한 것이다. 더욱이 살이 찌면 濕이 많고 여위면 火가 많으며, 희면 肺氣가 虛하고 검은 편이 腎氣가 足하므로 사람에게 따라서 形色이 다르고 臟腑도 같지 않으니 外症은 비록 같을지라도 治法은 사람에게 따라 判異하다.”⁶⁾라고 丹溪의 말을 引用하고 있다. 『素問·陰陽離合論』에 보면 “陰陽은 수없이 나누어진다.”⁷⁾고 하였다. 한 例로 動物을 보면 수컷이 대개 크고 암컷이 작듯이 사람에게 있어서도 男子는 대개 크고 女子는 작다. 그러나 男子가 작은 경우도 있고 女子가 큰 경우도 있다. 그러면 작은 男子를 血虛한 女子로 보고 큰 女子를 氣虛한 男子로 보고 치료해야 할 것이다. 작은 男子는 四物湯을 주고 큰 女子는 四君子湯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男女의 差異에 대해 두 가지 方面으로 생각해보면, ‘男女가 위와 같이 生殖器의 差異에 따라 그 構造가 다르며 生理·病理가 다르다는 事實’이 不變이며, ‘男女를 形象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事實’을 變化라고 보아 本 論文에서는 男女의 差異를 不變과 變化의 面에서 研究하고자 한다.

本 論文은 『東醫寶鑑』을 中心으로 『黃帝內經』, 『難經』, 『醫學入門』, 『鍼灸大成』 등의 主要 韓醫書와 『芝山先生臨床學特講』, 『周易』 등의 關聯書籍과 著者の 臨床例를 통하여 ‘男女의 差異에 根據

1) 裴秉哲 譯, 今釋 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94, p. 54-55.
2) 李槌,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4.
3) 許浚, 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679.
4) 許浚, 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p. 79.

5) 許浚, (國譯增補)東醫寶鑑, 南山堂, 1995, p. 480.
6) 許浚, (國譯增補)東醫寶鑑, 南山堂, 1995, p. 1.
7) 裴秉哲 譯, 今釋 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94, p. 100-101.
“陰陽者, 數之可十, 推之加百, 數之可千, 推之可萬, 萬之大, 不可勝數, 然其要一也.”

한 男女形象의 醫學的 運用'에 대하여 研究하여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論

男女의 差異에 대해 우선은 '不變의 立場에서의 男女'와 '變化의 立場에서의 男女'로 나누어 언급하기로 하고, 男女의 不變과 變化의 立場에 대한 의미를 '男女가 生殖器의 差異에 따라 男女가 다르다는 事實'을 不變이라고, '男女를 形象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事實'을 變化라고 하겠다. 不變의 立場에서는 形象의 區別이 없이 그저 男子는 男子이고 女子는 女子라는 立場이며, 變化의 立場에서는 形象에 따라 變化한다는 立場이다. 不變과 變化는 男女의 差異에 根據를 두고 서로 聯關되어 있으므로 不變을 명확히 알면 變化를 理解할 수 있고 變化를 알면 不變을 잘 理解할 수 있다.

1. 不變의 立場에서의 男女

男女가 生殖器의 差異에 따라 그 構造·生理·病理가 다르다는 것이 不變의 立場이다. '不變의 立場에서의 男女'에 대하여 全體의인 男女의 差異, 主要書籍에 나타난 男女의 差異(周易, 黃帝內經, 難經, 醫學入門, 東醫寶鑑 鍼灸學書籍(鍼灸大成, 鍼灸經驗方, 鍼道源流重磨), 脈으로 살펴 본 男女의 差異, 處方으로 살펴 본 男女의 差異, 藏象의 氣化特徵으로 살펴 본 男女의 差異, 形象으로 살펴 본 男女의 差異, 西洋醫學에서의 男女의 差異의 일곱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1) 全體의인 男女의 差異

(1) 男女는 順逆이다

順逆이란 次序를 順序대로 나가는 것을 順이라 하고 거꾸로 거슬러 나가는 것을 逆이라 한다.⁸⁾ 陰陽順逆이란 陽은 順行하고 陰은 逆行한다는 말

인데, 그 順과 逆의 區別을 次序로 말하면 順이란 小로부터 大에 이르는 順序를 말하며 逆이란 大에서 小로 이르는 順序를 말한다. 天體의 回轉에 비유하여 말하면 左에서 右로 回轉하는 것은 順이 되고 右에서 左로 回轉하는 것은 逆이 된다. 그것은 自然의 理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⁹⁾ 사람이 南面하고 보면, 海는 東에서 西로 運行하고 달은 西에서 東으로 運行한다.¹⁰⁾ 男子는 海의 氣운을 받고 女子는 달의 氣운을 받으므로 男子는 左에서 右로 運行하므로 順이라 하고 女子는 右에서 左로 運行하므로 逆이라 한다.

男子는 陽으로 順하고 女子는 陰으로 逆하는데 이러한 男順女逆의 關係에 대하여 『石塘理氣韓醫學』에서는 “順逆이라 함은 陽順陰逆이다. 水火에 비유하여 말하면, 水(陰)는 그 성질이 寒冷하고 重量이 무거워서 常時 아래로 흐르는 性質이 있는데 대하여, 火(陽)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性質이 있으니, 이것은 水火升降의 方向이 서로 順逆되는 점이다. 이것은 上下의 順逆을 말한 것이다.(南北 順逆) 東洋의 낮이 西洋의 밤이 되고, 西洋의 낮이 東洋의 밤이 되며, 日出方向으로 말하여도, 東洋의 西方이 西洋의 東方이 되니 그것은 東西順逆이다. 男順女逆이란 男女의 臟腑間 生理를 보면, 陰水의 腎臟은 位置가 아래에 있지만, 그 陰水의 血液은 위로 올라가 心臟에 있고, 陽火의 心臟은 位置는 위에 있지만, 그 陽火의 溫氣는 下降하여 腎臟에 있게 된다. 水는 血液이요 陰寒이 本性이며, 火는 濕氣요 陽熱이 本性이니, 水火가 結合하면 水血液의 陰寒성이 火溫氣의 陽熱성을 받아서 血液이 溫和하게 되고 流動性を 이룬다. 이런 까닭으로 血病治療時에는 順氣爲先으로 陽火氣를 調治한다(血從氣行). 氣病治療時에는 血을 同調하여 陽火氣의 結合體를 實하게 한다. 陰陽의 原理가 水在下하고 火在上하는 것이 本性이지만, 一個의 生體가 되면, 火下降水上升하여 交互가 되어가는 原則이 있다. 이와 같이 陰陽이 交互가 되면 活動性이 생긴다.

9)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東方文化, 1993, p. 208.

10) 張介賓 選, 김은하 編譯, (國譯) 類經圖翼 運氣編, 서울, 一中社, 1992, p. 9.

8) 曹誠佑 外 1人 編, 易學大辭典, 서울, 明文堂, 1994, p. 534.

이것이 生理이다. 生體가 죽으면 火는 本位로 가서 魂飛하고 水는 本位로 가서 魄散하니 臨終時에 下肢厥冷이 먼저 온다. 이런 까닭으로 水火陰陽이 交合하여 生하고, 分離하여 죽는 것은 男女間陰陽 生死와 大義가 같다.”¹¹⁾라고 하였다.

男女가 順逆이라는 것은 男子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順하고 女子는 땅의 기운을 받아서 逆이라는 것이다. 男順女逆이란 결국 男女가 反對라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男女가 陰陽이라고 한 것은 구멍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男子는 9數이고 女子는 10數이다. (耳目口鼻의 七竅와 前陰 後陰의 2竅에다 女子는 生殖器이 있어 男子는 9竅이고 女子는 10竅이다. 9數는 陽이며 洛書의 數이고 10數는 陰이며 河圖의 數이다.)¹²⁾ 河圖는 相生을 나타내며 洛書는 相剋을 나타낸다.¹³⁾

② 男子는 外陰內陽하고 女子는 外陽內陰한다. 上下陰陽이 合하여 一體가 된다. 內外之間은 無寸이다. 男子는 背屬陽而腹屬陰이 되니 中天에서 엎어져서 내려다 본 것이며(背向天腹向地伏臥), 女子는 腹屬陽而背屬陰하니 누워서 中天을 바라 본 것이다(背向地腹向天仰臥). 男子는 外陰水內陽火라 色慾時에 陽道奮起하니 內陽이요, 女子는 外陽火內陰水라. 上火下水로 乳房에가 火精이 集合되어 있다. 그러므로 下陰部는 陰水出이라. 男子는 子에서 一陽始生故로 內陽外陰이다(體). 子에 升發한故로 內陰外陽으로 初縮後發이라(用). 女子는 午에서 一陰始生故로 內陰外陽이다(體). 午에서 下降收斂時인故로 內陽外陰으로 初發後縮이 된다(用).

③ 手足을 가지고 말하면 男子는 手從足化(수를 따라 手를 움직이고) 女子는 足從手化(수를 따라 手가 움직인다.)한다.¹⁴⁾ 여기서 手는 팔전체를 말

하며 足은 발전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手·足이란 上肢와 下肢라는 意味이다.¹⁵⁾ 사람을 上下로 나누면 上은 天으로 手이며, 下는 地로 足이다. 男子는 順으로 天의 기운을 받으므로 手를 위주로 살아가며, 女子는 逆으로 地의 기운을 받으므로 足을 위주로 살아간다. 男子는 팔을 흔들어서 달리고 女子는 걸어서 팔을 움직인다.

④ 男子와 女子는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다르다. 男子는 하늘에 順하여 엎어져서 죽으며, 女子는 하늘에 逆하므로 자빠져서 죽는다.

宋代에 法醫學家인 宋慈의 『洗冤錄』¹⁶⁾에 보면 “溺死에 若生前溺死에 屍首男仆臥 女仰臥”¹⁷⁾라고 되어 있으며, 元代의 王與가 지은 法醫學書인 『無冤錄』을 朝鮮時代 英祖때 具允明은 『增修 無冤錄 大全』 및 『無冤錄 診解』로 編纂하였다. 『無冤錄』에다 西洋의 法醫學의 內容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法醫學者인 文國鎮은 『古今無冤錄』을 著述하였는데 「辨生前死後溺」의 조문에 보면 “살았을 때 물에 빠진 시체의 상태는 男子는 엎어지고 女子는 뒤집어져 있다.(男子는 죽으면 陽氣가 얼굴로 모인다. 얼굴이 무겁기 때문에 엎어져 누우며, 女子는 陰氣가 등으로 모이기 때문에 등이 무거워 뒤집어 누운다.)”¹⁸⁾라고 되어 있다.

⑤ 男女의 性情도 다르다. 女子의 性質은 內剛外柔和하고 男子의 性質은 內柔外強하다. 女子의 貞操觀念과 忍耐性은 心中이 강함을 表示하는 것이요, 外貌가 柔軟하고 愛情이 많아 親切性이 있음은 外柔의 證據이다. 그리고 男子의 外貌가 健하고 活動的인 性質이 있음은 外強을 表示하는 것이요, 또 男子가 萬事에 斷念이 빠르고 志操觀念이 적은 것은 內柔한 關係이다. 이것도 男女의 성질

출판사. 1998. p. 178

1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南山堂. 1995. p. 399-404.

16) 洪元植, 尹暢烈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p. 249-250.

17) 宋慈 著. 洗冤集錄. 臺北. 中華民國六十八年. p. 47.

18) 文國鎮 著. 古今無冤錄. 서울. 도서출판 고려의학. 1996. p. 236.

11) 韓南洙 原著, 金成銓 編. 石塘理氣韓醫學. 서울. 醫聖堂. 1992. p. 135-136.

12) 尹暢烈. 醫哲學. 大田. 周珉出版社. 2005. p. 92.

13) 尹暢烈. 醫哲學. 大田. 周珉出版社. 2005. p. 114.

14)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서울. 지산

에 각각 陰柔陽剛의 對가 있다는 一例가 된다.¹⁹⁾ 五倫中에 夫婦有別의 男女로 보면, 夫婦에 別이 있다 함은 男性 女性의 그 性品上에 區別이 있다고 하는 말이고 男女의 人格上의 差等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男性과 女性은 先天的으로 肉身上에 있어서나 性質上에 있어 天賦의 區別이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그러므로 男女는 性別에 따라 각기 長點과 短點이 自然히 다르게 되는 것이니 그러함에 因하여 그 主할 바와 行할 바가 다르게 된다. 이와 같이 自然히 區別이 있게 되는 것이 夫婦의 有別이다. 男女를 對比해 그 相異點을 말하면 男子는 陽性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性質에 있어 動的이고 女子는 陰性으로 되었기 때문에 靜的이다. 또 男子는 體力가 강하고 推進의 性質이 많은데 대하여 女子는 體力가 약하고 引退의 性質이 있다. 男子는 內柔外強으로 되었기 때문에 外面的으로는 강하나 참는 性質이 不足하고 女子는 外柔內強으로 되었기 때문에 外的인 活動性은 不足하나 忍耐와 貞操의 念이 강하다. 男子의 德은 健하고 女子의 德은 順하며 男子는 強健의 德을 長點으로 하는데 대하여 女子는 柔順의 德을 長點으로 한다. 男子가 強으로 勝하고자 함에 대하여 女子는 柔로 勝한다. 그리고 또 男子는 義理의 念이 강하나 愛情이 薄하고 女子는 愛情이 厚하나 義理의 念은 적다. 男子의 德은 女子의 德을 얻어야 調和되고 女子의 德은 男子의 德을 얻어야 이루어진다. 夫婦有別이라 함은 夫婦의 道德의 外적인 綱이 되고 그의 內面的인 道德은 夫和婦順인데, 夫和婦順이란 말은 男子는 사랑으로 女子와 和親하게 하고 女子는 男子의 뜻을 柔順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順이란 말은 服從이라는 뜻이 아니고 調和의 心德으로 和順하게 함을 意味하는 것이며 女性의 美德인 慈愛貞淑의 德性으로 男性의 過強함을 조절하여 中和의 道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즉 夫和婦順이다.²⁰⁾ “乾卦는 天道를 表示하고 坤卦는 地道를 表示한 말인데, 乾卦의 健은 男性이 되고, 坤卦의 順은 女性이 된다. 健은 動하

는 性質이 되고, 順은 靜하는 性질이 된다. 이와 같이 사람도 自然히 男女의 區別이 생기게 되며, 또 男女는 自然의 性品을 받아 男健女順으로 性質이 다르게 된다.”²¹⁾라고 男女의 性情이 差를 말하였다.

⑥ 東洋에서만 男女를 달리 보는 것이 아니고 西洋에서도 다르게 보았다. 男女의 힘의 差異에 대해서 一般的으로 男子는 女子보다 손힘이 두 배 정도 강하다.²²⁾ 構造的인 面에서 男子는 아주 조금이지만 팔이 안으로 휘는 반면 女子는 아주 조금이지만 팔이 밖으로 휘다. 이런 差異로 인해 男子는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던질 수 있고, 女子는 팔꿈치를 벌려 팔을 좀더 넓게 벌려서 安定的인 자세로 아기를 안을 수 있다.²³⁾ 性情의 면에서도 女子는 男子보다 直觀力이 뛰어나다. 이로 인해 女子의 육감이란 말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²⁴⁾ 女子가 상대의 感情狀態를 把握하는데 男子보다 더 能하고 그 때문에 적당한 거짓말로 相對를 마음대로 調節하는 能力도 더 뛰어나다.²⁵⁾

⑦ 人類文化의 지역적 變態와 그의 形式에 따른 男女 : 東洋人은 上下式으로 男先女後인데 대하여 西洋人은 下上式이며 女先男後이다.²⁶⁾

(2) 體用과 主客의 問題

① 體用主客의 關係를 잘 알아야 하는 理由

男子는 陽이요, 女子는 陰인데 서로 같거나 다른 理由는 무엇일까? 대체로 天地間 萬象이 다 變의 根本과 또 變遷의 理致와의 兩面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도 또한 陰陽의 相對의 原理에 의

19)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東方文化, 1993, p. 53.

20)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東方文化, 1993, p. 291-292.

21)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東方文化, 1993, p. 169.

22) BODY LANGUAGE. 앨런피즈 바바라피즈 저 서현정 역, 서울, 베텔스만 코리아, 2005, p. 53.

23) BODY LANGUAGE. 앨런피즈 바바라피즈 저 서현정 역, 서울, 베텔스만 코리아, 2005, p. 96.

24) BODY LANGUAGE. 앨런피즈 바바라피즈 저 서현정 역, 서울, 베텔스만 코리아, 2005, p. 20-21.

25) BODY LANGUAGE. 앨런피즈 바바라피즈 저 서현정 역, 서울, 베텔스만 코리아, 2005, p. 148.

26)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東方文化, 1993, p. 209.

한 것이다. 이와 같은 理致로 男女에 있어서도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게 되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頭와 足은 그 上下가 서로 바뀌지 않는데 左右는 서로 바뀌게 된다. 그와 같이 男女에 있어서도 人間의 그 生命이란 점은 같으므로 生을 維持하기 위한 機關은 다 같다. 그러나 生을 위해 活動하는 方式이나 그 性質에 있어서는 다르게 된다.²⁷⁾ 사람에게 있어서 男女는 陰陽을 代表的으로 나타낸다고 본다. 全體의인 面에서 男女 모두 五臟六腑가 있는 것은 같지만 살아가는 方式은 “男子는 氣를 爲主로 살아가고 女子는 血을 爲主로 살아간다.”²⁸⁾ 男子에게도 血이 있고 女子에게도 氣가 있다. 體用은 一物의 兩面性으로 組織과 運行을 말하는 것이며, 主客은 무엇을 主로 해서 살아가는가? 라는 문제이므로 男女의 問題는 體用的 문제가 아니고 主客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體用主客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石塘理氣韓醫學』에서도 男女의 差異에 대해 “天有日月하고 地有靑龍白虎하고 人有男女라. 계절에 봄 여름이 陽이지만, 다시 봄은 陽中에 陰이며 여름은 陽中の 陽이 되고, 가을 겨울이 陰이지만 가을은 陰中の 陽이며 겨울은 陰中の 陰이 되듯이 그와 같은 相對的 理致로 보면, 男女는 人間의 그 生命이란 점은 같으므로 그 生을 維持하는 機關은 같다. 그러나 生을 위해 活動하는 方式이나 그 性質에 있어서는 다르게 된다. 宇宙의 모든 現狀은 相對的인 그 對가 없이는 成立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相對的인 對立이 있으려면, 自然兩面的인 分別象이 생기게 되며, 그 分別된 性質이나 形態는 陰的·陽的으로 區別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 까닭으로 男陽對女陰으로 行事に 있어서나 物體에 있어 그 體用主客의 關係를 잘 알아야 한다.”²⁹⁾라고 말하고 있다.

② 男女의 特性인 陰陽이 固定하는 것이 아닌

27)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東方文化. 1993. p. 209.
 28) 許浚. (國譯增補)東醫寶鑑. 南山堂. 1995. p. 995.
 29) 韓南洙 原著. 金成銓 編. 石塘理氣韓醫學. 서울. 醫聖堂. 1992. p. 132.

待對하는 體用關係가 있음을 陰陽의 互易으로 설명함

男女의 特性인 陰陽이 固定하는 것이 아닌 待對하는 體用關係가 있음을 陰陽의 互易으로 말하면, 陰陽이라 함은 萬物의 對待하는 體用關係에 따라서 生하는 것이요 固定不變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萬物의 組織과 運行이 모두 陰陽의 兩面을 가지고 있음으로 物과 物이 相對하는 때에 能動하는 者는 陽이 되고 受動하는 者는 陰이 되는 까닭이다. 事物의 現狀은 受動作用을 行하므로 陰이 되고 事物의 變通은 能動作用을 行하므로 陽이 되는지라 一年中の 陰陽體用關係로써 보면 冬至에 一陽이 生한 以後에는 陰은 受動하는 現狀이 되고 陽은 能動하는 變通이 되므로 陰이 體가 되고 陽이 用이 되며 夏至에 一陰이 生한 以後에는 陽은 受動하는 現象이 되고 陰은 能動하는 變通이 되므로 陽이 體가 되고 陰이 用이 되는 것이니 이것은 陰陽이 서로 體가 되고 서로 用이 되어 陰陽이 互易하는 것이다. 萬物은 모두 陰陽兩面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物이 있는 때는 반드시 그 속에 陰과 陽이 있고 또 陰의 속에도 陰과 陽이 있고 陽의 속에도 陰과 陽이 있어 樹枝狀의 陰陽이 限없이 分布하고 있는 것이니 精氣의 關係로써 보더라도 氣는 陽이요 精은 陰인데 同一한 氣의 속에도 雷는 陽이요 風은 陰이며 同一한 精의 속에도 水는 陰이요 火는 陽인 것이 그 一例이다. 天地間에는 至大至廣한 者로부터 至細至微한 者에 이르기까지 모두 陰陽이 分布되어 있으므로 或은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여 限없는 運動을 繼續하고 或은 陰이 陽으로 변하기도 하고 陽이 陰으로 변하기도 하여 陰陽의 互易作用에 依하여 萬物의 不測한 變化가 生하는 것이다.³⁰⁾ 이와 같이 陰陽은 서로 互易하고 있다.

③ 男女의 手의 體用主客

事物에는 運動的面인 作用性を 主로 하여 생각할 일도 있고, 또 그 形體의 淸濁이나 輕重을 主로 하여 생각할 일도 있다. 用이란 말은 事物의 動的인 運動的 面을 말하는 것이고, 體라 함은 靜的인

30) 韓長庚. 周易·正易. 서울. 삶과 꿈. 2001. p. 11.

形態의 淸濁이나 輕重과 같은 體象의인 面을 말하는 것이다. 가령 사람의 左右 兩手に 比해 말하면 左右手가 모두 手로서의 形體가 있고 또 作用이 있는데, 그 形體的 面으로 말하면 左手가 右手보다 좀 작고 輕한 面이 있으며, 또 左手는 背面의 속으로 動作은 활발하지 못하나 位品은 좀 高位의 所以 貴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左手는 右手에 대하여 形體的인 面에 있어서는 陽에 屬한다. 그리고 左手가 陽이 된다면 右手는 自然히 陰이 된다. 그러므로 形體를 主로 하여 말하면 左陽右陰이 된다. 그러나 兩手의 動的인 面으로 말하면 右手가 左手보다 活動이 敏活하므로 右手가 陽이 되고 左手가 陰이 된다. 이와 같이 事理나 物體에 있어 그 自體內에 있어서도 體用主客의 區別이 있고, 또 個別體의 相對間에도 主觀에 따라 陰陽이 다르게 된다.³¹⁾ 『素問·陰陽應象大論』에 “右手足이 左手足보다 强하다.”³²⁾고 하였다. 手에 있어서 右氣左血이란 男子는 右手이며 女子는 左手를 主로 한다는 말인데³³⁾, 男子가 右手를 主로 쓰니 右手는 主요 左手는 客이며 女子는 反對이다. 이에 대해서 『靈樞 邪客』에 “肺心有邪면 其氣留於兩肘라 하였는데, 手太陰肺經은 胸中の 中府穴에서 시작하여 양겨드랑이 부위의 俠白穴 등으로 들어가며, 手少陰心經은 겨드랑이 中央의 極泉穴에서 시작하여 팔꿈치부위의 少海穴 등으로 순행한다. 따라서 心肺가 虛하면 外邪가 양 팔꿈치 부위에 모인다.”³⁴⁾라고 하여 手는 心肺에 속하며, 『東醫寶鑑·風門·調治預防』에 “左半身이 不遂하고 左手脈이 不足한 것은 四物湯으로 主治하고 右半身이 不遂하며 右手脈이 不足한 것은 四君子湯으로 主治하

며 ……³⁵⁾라 하였고, 風門. 手足의 癱瘓의 경우에 左癱에는 마땅히 血을 補하고 겸하여 痰을 흠어야 되니 四物湯에 薑汁 竹瀝 桃仁 紅花 白芥子를 加해 쓰고 右瘓에는 氣를 補하고 겸하여 痰火를 흠어야 하니 四君子湯에 二陳湯을 合하고 薑汁 竹瀝 白芥子를 加해 쓴다.”³⁶⁾라고 하여 左手에는 四物湯을 쓰므로 血로 心에 속하며 右手에는 四君子湯을 쓰므로 氣로 肺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男子는 氣를 위주로 살아가니 右手가 主며, 女子는 血을 위주로 살아가니 左手가 主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⁷⁾ 四物湯은 血病의 通治藥이라 하였는데 『素問·五臟生成』에 “諸血者 皆屬於心”³⁸⁾이라 하였으니 四物湯은 心의 藥이라 할 수 있다. 『素問·六節藏象論』에 “肺者, 氣之本”³⁹⁾이라 하여 肺主氣한다. 肺虛하면 少氣不足以息하는데 四君子湯은 少氣에 쓰는 處方이다.⁴⁰⁾

(3) 男女의 起源과 分化

男女는 生育의 根本이다. 그러한 男女가 어떻게 起源했으며, 그 나뉘음을 說明하기로 한다.

① 男女의 起源

男女의 起源이 太陽과 月에서 비롯됨을 말하고 있다.

生命이 氣化 精化하여 처음으로 有形物을 生한 것은 太陽이다. 이것을 易理로써 보건대 乾坤生命元이 運行하여 雷風의 氣를 生하고 雷風의 氣가 運行하여 水火의 精을 生하고 그것이 乾坤의 統天作用과 水火의 聚散作用에 依하여 乾坤 雷風 水火가 合하여 生命 氣精의 有形體가 結成되니 이가 곧 太陽이다. 生命의 運動에는 陰陽이 互根하여 先後의 別이 없는 것이나 그 처음에 發生할 때에

31)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東方文化, 1993, p. 48.

32) 張介賓 原著, 李南九 編著, 張氏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1998, p. 49.

“天不足西北, 故西北方陰也, 而人右耳目不如左明也. 地不滿東南, 故東南方陽也, 而人左手足不如右強也.”

33)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VI,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350. 右氣左血이란 말이 있다. 男子의 오른팔은 氣가 되어 힘이 강하고 왼팔은 약하다. 즉 오른쪽을 男子로 보고 왼쪽을 女子로 보고 말한 것이다.

34) 裴秉哲 譯, 今釋 黃帝內經靈樞, 서울, 成輔社, 1995, p. 522-523.

35) 許浚, 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986.

36) 許浚, 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1005.

37) 許浚, (國譯增補)東醫寶鑑, 南山堂, 1995, p. 995.

38) 裴秉哲 譯, 今釋 黃帝內經靈樞, 서울, 成輔社, 1995, p. 137-138.

39) 裴秉哲 譯, 今釋 黃帝內經靈樞, 서울, 成輔社, 1995, p. 131.

40) 許浚, (國譯增補)東醫寶鑑, 南山堂, 1995, p. 32.

는 스스로 能動과 受動이 있어 能動이 先하여 陽이 되고 受動이 後하여 陰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天地間에서 有形한 組織體의 始生한 것은 能動作用을 行하는 陽物인 太陽이다. 그러므로 太陽系 宇宙에서는 太陽이 가장 먼저 出生한 것이다.

太陽이 이미 生하여 能動作用을 行하면 반드시 受動作用을 行하는 陰物의 組織體가 生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요 또 萬物은 獨陰獨陽으로서는 運動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므로 太陽은 陰體를 얻은 然後에 運動이 行하고 生命이 繼繼生生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太陽의 始生하는 때에 陰體가 太陽에서 分離하여 한 陰性의 組織體를 이루는 것이요 이가 곧 地球이다. 太陽은 陽體이오 지구는 陰體인데 지구가 어떻게 하여 太陽에서 生하는가 하면 이는 原始生物이 自體의 分裂에 依하여 繁殖하고 또한 男體의 속의 精子에서 女體가 出生하는 理와 같은 것이다. 사람의 男女는 모두 陽體의 精子에서 生하는 것인즉 이는 女體가 男體에서 生하는 것이오 사람은 日月에서 生한 것이므로 사람의 女體가 男體에서 生하는 것은 地球가 太陽에서 出生하는 原理에서 發源한 것이다. 그러므로 地球는 太陽속에서 生한 것이다.

太陽에서 地球가 生하면 地球는 陰體이오 陰體는 그 組織이 偶하므로 地球의 內部에서 偶하려는 作用이 일어나서 스스로 水土의 一部가 分離하여 半空中에 逆上하는 것이오 八卦中에서 土의 上升한 것이 山이오 水의 上升한 것이 澤이니 그러므로 半空中에 逆上하여 組織體를 이룬 것은 山澤의 象인 달이다. 地球와 달의 關係를 易理로써 보면 지구는 女體의 象이오 달은 女體의 胎宮의 象이며 달이 生한 以後에 비로소 太陽과 달의 陰陽의 義가 맺어져 萬物의 生生作用을 行하는 것이다.⁴¹⁾

太陽이 水火의 精을 얻어서 비로소 有形物이 된 것이므로 太陽과 地球 달의 사이에서 出生한 萬物은 모두 水火로써 體를 삼는 것이오 地球와 달도 또한 水火로써 體를 삼아서 有形化한 것이다. 그러나 同一히 水火로써 體를 삼고 있으나 陽物과 陰物의 組織形態는 서로 同一하지 아니하니

陽物은 陰을 體로 하고 陽을 用으로 하는 까닭에 太陽은 內部에 水가 있고 外部에 火가 發揚하는 것이며 地球와 달은 內部에 火를 갈무리하고 外部에 水가 流行하는 것이다. 太陽은 內水外火하고 地球와 달은 內火外水하므로 日月이 相交하는 때에 水火의 聚散作用이 行하여 萬物의 生滅作用을 行하는 것이다.

太陽은 雷風의 氣化體가 精化體로 된 것이므로 太陽에서는 雷風의 氣가 原動力이 되어 電氣 磁氣 및 火精이 生生作用을 行하는 것이오 달은 精化體가 山澤의 形化體로 된 것이므로 달에서는 山澤의 形이 萬物胎育의 胎宮이 되어 山澤 및 水精이 生生作用을 行하는 것이다.

달은 地에서 水土가 逆上한 것으로써 달의 山澤과 地上의 山澤은 그 源이 同一하므로 달과 地上潮汐과의 사이에 密接한 引力作用이 있는 것이며 달의 山澤은 六子中에 最少하여 長의 時運에는 아직 未成하고 地上에 出生하지 아니하여 胎中에서 자라고 있는 胎兒의 象이며 또 달은 地의 胎宮으로써 山澤으로써 形質을 삼고 있으니 胎育中の 山澤과 달의 形質인 山澤은 별개의 두 山澤이 아니라 全然 同一한 山澤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長의 時運에는 山澤이 最少하여 머물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도 또한 머물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地上의 萬物은 日月의 作用에 依하여 生生하고 있는데 달이 아직 머물지 못하고 있으므로 萬物도 또한 머물지 못하고 사람도 人類全體가 아직 자라는 過程에 있는 것이다.

乾坤生命元은 乾元과 坤元으로 되어있고 乾元과 坤元은 實際로 萬物을 生生하고 있는 日月속에 있으니 太陽은 男體의 象이오 雷風의 氣가 太陽의 運行을 主하는데 雷가 乾坤六子中에 가장 먼저 生하여 陽性作用을 行하므로 震子인 雷가 乾元이 되어 萬物을 資始하는 作用을 行하는 것이며 달은 女體胎宮의 象이오 山澤의 形이 달의 組織을 主하는데 澤이 乾坤六子中에 가장 나중에 生하여 陰性作用을 行하므로 陰精인 兌澤이 坤元이 되어 萬物을 資生하는 作用을 行하는 것이다.

氣精形의 順序에는 氣가 먼저 生하여 始하고

41) 韓長庚, 周易·正易, 서울, 삶과 꿈, 2001, p. 21.

形이 나중에 생하여 성하는 것이므로 物을 始하는 乾元은 六子中 가장 먼저 생한 陽氣인 雷를 用하고 物을 作成하는 坤元은 나중에 생한 陰精인 澤을 用하는 것이니 乾元坤원이 모두 氣精形의 生生하는 陰陽의 自然秩序이다. 乾元과 坤元을 人身으로써 보면 乾元은 男體의 精子の 象이오 坤元은 女體의 卵子の 象이다.⁴²⁾

『普濟方·方脈總論·辨男女形生神毓論』에 “男女가 形成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男子는 陰血이 먼저 이르고 陽精이 뒤에 動하여 血이 열리고 精을 얻으며 精이 들어가 뼈가 되서 男子가 형성되고, 陽精이 먼저 들어가고 陰血이 뒤에 참여하여 精이 열리고 血을 얻으며 血이 들어가 根本으로 자리를 잡아서 女子가 形成된다고 하였다. 男子는 生이 시작됨에 右腎에 命門이 居하니 陽에 속해서 海에 應한 것이며, 女子는 左腎에 命門이 居하니 陰에 속하여 달에 應한 것이다.”⁴³⁾ 라고 하였다. 男子는 海에서 氣운을 받고 女子는 달에서 氣운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② 男女의 分化

사람의 男女分化의 理를 보건데 사람의 身은 乾元인 震子와 坤元인 兌澤으로써 構成된 것이므로 男體와 女體가 모두 震子와 兌澤으로써 組織된 것이오 男體의 精子和 女體의 卵子도 獨陰獨陽이 아니라 元素가 모두 震子와 兌澤의 乾元坤元の 合體한 것이니 男女의 組織原體는 조금도 相異함이 없는 것이다. 다만 男女의 相異한 바는 男體는 坤이 乾陽을 얻은 陽卦의 象으로서 陰이 體가 되고 陽이 用이 되니 陽이 用이 된 까닭에 震子가 用이 되어 男體는 陽性인 精子를 保有한 것이오 女體는 乾이 坤陰을 얻은 陰卦의 象으로 陽이 體가 되고 陰이 用이 되니 陰이 用이 된 까닭에 兌澤이 用이 되어 女體는 陰性인 卵子를 保有하는 것이다. 男女는 同一한 天行健의 身이면서 男女의 分化가 生하는 것은 乾坤生命元의 交互作用과 八卦의 互相

對待와 및 雷霆 風雨 日月 寒暑의 作用에 依하여 乾道는 男體가 되고 坤道는 陰體가 된 것이니 繫辭에 ‘剛柔가 相摩하고 八卦가 相盪하여 鼓하기를 雷霆으로 하고 潤하기를 風雨로써 하고 日月이 運行하고 한번 寒하고 한번 暑하여 乾의 道는 男을 成하고 坤의 道는 女를 成한다.’함은 이 男女分化의 理를 말한 것이며 乾道坤道の 道는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고 함을 말함이오 陰陽이 均等하여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고 하는 對待作用의 道가 서로 조절되어 있으므로 地上의 男女數도 대체로 自然調節이 되어 있는 것이다.

男體의 精子は 震子가 用이 되고 震子는 太陽에서 와서 달의 光明中에서 生成한 것이므로 精子는 太陽의 光明과 같이 恒常한 것이오, 女體의 卵子は 兌澤이 用이 되고 兌澤은 달의 陰精中에서 太陽光明을 받아서 生成한 것이므로 卵子は 달의 陰精과 같이 盈虛가 있는 것이니 卵子が 달로 더 불어 盈虛하는 것은 이 까닭이며 사람은 그 身이 日月에서 내려온 까닭에 男女體中의 精子卵子は 부단히 日月變化의 作用을 받고 있는 것이다. 人體는 精子和 卵子が 合體하여 構成되는 것이므로 乾元과 坤元の 二元運行으로 되어 氣와 精 精神과 肉體 등의 分別이 있으며 光明의 象인 震子는 氣로서 永遠히 存續하고 陰精의 象인 兌澤은 形質로써 生滅이 있으니 그러므로 光明과 陰精의 合體에 의하여 組織된 人體는 一體二元의 象이 되어 光明한 氣로써 構成된 天性은 永遠히 存續하는 것이오, 陰精인 形質로써 構成된 肉體는 死生이 있는 것이다.

萬物의 身이 처음에 發生할 때에는 各其 種類대로 모두 創生된 것이오, 한번 創生된 後에는 地上에서 世世繼承과 種族蕃殖의 作用을 行할 뿐이오, 다시는 創生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는 身이 生의 時運에만 創生되고 長의 時運에는 다만 자라기만 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易學에는 生의 時運에만 사람의 身을 始生하는 象이 있고 그 後에는 地上에서 男女가 分化하여 子孫을 生하는 象만 있는 것이다.

42) 韓長庚, 周易·正易, 서울, 삶과 꿈, 2001, p. 22-23.

43) 明 朱棣, 膝碩, 劉醇 編著, 校正 普濟方 卷一, 서울, 醫聖堂, 1993, p. 1.

(考察)

男體는 坤이 乾陽을 얻은 陽卦의 象으로서 陰이 體가 되고 陽이 用이 되니 陽이 用이 된 까닭에 震子가 用이 되어 男體는 陽性인 精子를 保有한 것이요 女體는 乾이 坤陰을 얻은 陰卦의 象으로 陽이 體가 되고 陰이 用이 되니 陰이 用이 된 까닭에 兌澤이 用이 되어 女體는 陰性인 卵子를 保有하는 것이다. 男子는 體가 陰이며 用이 陽이며, 女子는 體가 陽이며 用은 陰이다. 그러므로 男體가 陰이라는 것은 體格이 크다는 것이며, 女體가 陽이라는 것은 體格이 작다는 것이다. 여기에 男子는 用이 陽이라는 것은 男子는 해의 기운을 받아서 精子가 恒常하지만 女子의 卵子는 달과 같이 차고 이지러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4) 男女의 構造

① 男女의 全體的인 構造

男子와 女子의 몸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사냥에 적합한 男子의 몸은 上半身은 넓고 下體로 내려가면서 가늘어져 엉덩이가 작는데 반해, 女子의 몸은 어깨는 좁고 下體로 내려갈수록 커져 엉덩이가 풍만하다. 男子의 몸이 이렇게 進化한 것은 무거운 무기를 오래 짊어지고 다니고 사냥한 짐승을 어깨에 메고 짐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男子는 사냥감을 뒤쫓아 달릴 때 숨이 차지 않도록 산소를 풍부하게 공급하기위해 허파가 발달하면서 가슴이 크고 넓어졌다. 옛날에는 男子가 가슴이 넓고 클수록 존경받고 많은 權力을 차지했는데, 지금도 原始 部族들 사이에서는 그런 傾向이 남아있다.”⁴⁴⁾라고 하였다. 男女의 全體的인 構造에 대하여 『東醫寶鑑·乳門』의 “男腎女乳가 性命의 根本이다.”에서도 男子는 腎으로 重을 삼고 女子는 乳로써 重을 삼으니 上下는 같지 않으나 性命의 根本이 되는 것은 한가지이다. 女人은 陰에 屬하니 陰이 極하면 반드시 아래로부터 上冲하는 고로 乳房이 크고 陰戶가 움츠러지는 法이요 男子는 陽에 屬하니 陽이 極하면 반드시 위로부터 下降하는

故로 陰莖은 下垂하고 乳頭는 움츠러지는 법이다.⁴⁵⁾라 하여 男女의 根本的인 構造가 다음을 말하였다.

② 全體的인 構造가 다음에 따른 男女生理의 差異

『石塘理氣韓醫學』에서는 女子乳房과 男子腎囊으로 男女의 生理가 다르게 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女陰水로 生而 木陽肝으로 爲用爲血爲主(陰은 以陽爲用之理로 乳在胸部)

男陽火로 生而 金陰肺로 爲用爲氣爲主(陽은 以陰爲用之理로 陰囊在下部)

男陰囊은 製造精液用이라 하니 一木에 比하면 天一生壬水(無形陽水) 根莖으로 吸收함과 같다. 女乳房은 女天癸之始에 與陰戶內之構造同時變化라 하니 女天癸未至前은 一木에 比하면 春分前에는 芽로 있다가 春分後이면 女天癸已至의 乳房과 같이 붓긋붓긋 하여진다. 此가 地二生癸水(有形陰水)를 받아 上升故也 女人은 屬陰하니 陰極則 必自下而上衝故로 乳房大而 陰戶縮也 男子는 屬陽하니 陽極則 必自上而下垂下故로 陰物垂而乳頭縮也라 男陽인데 腎陰莖이라 하고 動하면 陽動이라 한다. 女在胞宮이 膺下에 있으나 乳房在胸間이요 腎藏精與志라 하니 精宜降이면 腎陰莖이 動하고 精在(火)集中陰卵이라 女子는 血下降爲月經 上行爲乳라 乳房者 貯乳之器故로 屬土甘이라 한다. 乳汁味는 屬土甘이라 乳房은 木肝也 乳頭는 屬火라 男陰莖은 屬膽木也 腎頭는 屬火라 乳房炎이 行房則愈한 것은 乳房部로 집중된 火精(邪火)을 行房이면 泄火氣所致니라 故로 行房後乳味는 變故로 行房則後哺乳則 小兒吐瀉病에 걸린다. 行經時나 妊娠時도 變味된다. 人之乳房이 屬春木이란 冬至日陽始生度에 君火中陰水를 받는다. 立春즉 나무가 물을 받아서 두꺼워진다. 故로 胞胎時는 月經이 上升爲乳汁이 乳房으로 모으기로 乳頭色亦變하고 處女亦時 二七天癸至則 乳房이 肥大하여진다. 그러므로 乳房은 屬春木하고 乳頭는 屬火라 春心은

44) BODY LANGUAGE, 엘런피프스 바바라피프스 저 서현정 역, 서울, 베텔스만 코리아, 2005. p. 310.

45) 許浚, 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679.

木末靑이란 火出이란 말이다. 則發芽한다는 것이 火요 乳汁은 火精인고로 火動物이 먹고 산다. 젖이 나온다는 것은 火變生水라 地中水가 地上으로 나온은 生水가 나오나 火가 나온다는 말이다. 諸種子皆降이라 物下極則反上하고 物上極則反下라. 草木上生果實은 爲己極이라. 故로 反而逆行하고 實核之性은 在於內斂故로 降而兼收라 女乳房亦哺乳外에는 胞宮으로 下降하여 爲月經이라. 婦人月經時 乳房脹痛者는 不妊症의 一種이다. 胞宮에서 子精 받아들일 氣運이 乳房으로 集合한 所以라. 그러므로 枝上結實은 如女乳房이오 地果 地中結實은 男陰囊과 같으니라.”⁴⁶⁾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男女의 構造가 根本的으로 다르며 그에 따라 그 生理가 다르게 된다.

③ 男女의 構造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說明

女子는 動하게 되어 있고, 男子는 靜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햇빛을 받아들이니까. 햇빛을 받으려면 動하면 햇빛을 못 받는다.⁴⁷⁾ 階位가 형성되는 것은 寒熱때문이다. 하늘은 차야하고 땅은 더워야 하기 때문에 머리는 차야하고 발은 더워야 한다. 그리고 등은 서늘해야 하고 가슴은 따스해야 하며 배는 더워야 하고 엉덩이는 차가워야 한다. 등과 가슴과 배와 엉덩이가 편차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體用이 있기 때문이다. 女子는 등과 배를 體로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用으로 삼으며, 男子는 가슴과 엉덩이를 體로 하고 등과 배를 用으로 삼는다. 男女가 다르니 成形이 다르다.⁴⁸⁾ 人體에 왜 階位가 형성되는 것은 그것은 寒熱 때문이다. 하늘은 차야하고 땅은 더워야 하기 때문에 머리는 차야하고 발은 더워야 한다. 그리고 등은 서늘해야 하고 가슴은 따스해야 하며 배는 더워야 하고 엉덩이는 차가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人體의 階位가 형성되는 것이다. 등과 가슴과 배와

엉덩이가 편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體用이 있기 때문이다. 女子는 등과 배를 體로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用으로 삼으며, 男子는 가슴과 엉덩이를 體로 하고 등과 배를 用으로 삼는다. 男女의 區分이 있기 때문에 成形이 달라지는 것이다

④ 八象으로 본 男女

『易學原理講話』에 “上下 內外 前後 表裏 등의 八面的인 形體로 四物을 觀察해야 한다고 하였다. 左右와 內外가 다른데 左右는 氣血로 血은 外로 氣는 內로 볼 수 있다.”⁴⁹⁾라고 하였으니 男女를 構造的인 面에서 보면 上下 左右 前後 表裡로 볼 수 있다. 사람을 八象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物體의 構成이 上下·左右·前後·表裡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⁵⁰⁾

㉠ 上下 左右 前後 表裏

醫學에서 對象이란 人體이다. 人體는 陰陽, 氣血이 渾淪된 狀態로 存在한다. 이를 파악하는데 軸을 中心으로 區分하는 것이 天地·男女·水火·內外인데, 天地·男女·水火·內外는 바로 上下·左右·前後·表裡이며, 上下·左右·前後·表裡는 八象으로 모든 事物과 人體를 構成面으로 나누는 方法 중에 하나이다.⁵¹⁾ 姜鎭春은 『偉大한 自然變化』에서 “動物이 動하게 되는 것은 氣와 血의 循環이다. 身體의 構造가 一次로 上下로 區分되고 二次로 前後로 區分되고 三次로 左右로 區分해서, 上下·左右·前後를 通稱 陰陽으로 區分하니 陰陽은 氣血이요, 氣血을 上下로 配屬시키면 上은 氣가 主管하고 下는 血이 主管하고, 前後에 配屬시키면 後는 氣요 前은 血이며, 左右에 配屬시키면 右는 氣요 左는 血이다. 上下를 氣血로 區分한 것은 水火의 原理에 따른 것이니 火는 上升해서 上이 熱하고 水는 下流하여 下에 聚하므로 寒함을 表明한 것이오, 前後를 氣血로 區分한 것은 臟腑의 位置에 따른 것

46) 韓南洙 原著, 金成鎔編, 石塘理氣韓醫學, 서울, 醫聖堂, 1992, p. 144-145.

47)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183

48)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VII, 서울, 지산출판사, 1999, p. 301

49)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東方文化, 1993, p. 48.

50)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33.

51)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1.

이니 五臟의 俞는 背에 있어서 太陽과 督脈이 附着되어 있으므로 背가 氣에 속하고 六腑는 腹에 있어서 陽明脈이 身前을 通過하고 婦人에게만 獨特하게 作用하는 太衝脈과 任脈이 모두 腹에서 作用되므로 前이 血에 속하고, 左右를 氣血로 區分한 것은 日月의 出沒에 따른 것이니 左肝右肺로 肝藏血하고 肺主氣이므로 左肝이 血에 屬하고 右肺가 氣에 속하는 것 같으나 肝木은 東方日出之地로 日出時에서 散血해서 溫氣가 上升하므로 氣에 속하고 肺金은 西方日沒之地로 血을 回收해서 肝으로 回送시켜서 寒하므로 血에 속한다. 이것을 原理로 해서 心肺는 氣를 主하고 脾肝腎은 血을 主하고 五臟은 氣를 主하고 六腑는 血을 主하는 것으로 區分되나 한 말로 判斷하면 天이 主하는 것은 모두 氣에 속하고 地가 主하는 것은 모두 血에 속하니 天이 主하는 것은 모두 輕淸하고 熱하고 地가 主하는 것은 모두 厚濁하고 寒하다.”⁵²⁾고 하여 天이 主하는 것은 모두 氣에 속하며 上·左·後이며, 地가 主하는 것은 모두 血에 속하며 下·右·前으로, 男子는 上·左·後를 위주로 女子는 下·右·前을 위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했다.

위에서는 上下 左右 前後 表裏를 각각 說明하였지만, 聯關되어 있으니 다음과 같이 說明해 보기로 한다.

㉞ 上下前後

男女의 形상을 四象으로 나누어 前面을 보면 男子는 上體가 넓고 女子는 下體가 넓다. 側面에서 보면 男子는 下體가 넓고 女子는 上體가 넓다. 女子는 前面에서 보면 上體가 좁고 下體가 넓으며 側面에서 보면 上體가 넓고 下體가 좁다.

男子는 양손이 인체의 축이 되고 女子는 양다리가 인체의 축이 된다. 老人이 되어서 女子는 軸이 허리이기 때문에 구부러지기가 쉽고 男子는 어깨가 軸이 되므로 기울어지기가 쉽다. 그러므로 男子가 五十肩이 많이 생기고 女子는 허리가 많이 굽는다. 女子는 陽盛陰虛이므로 陰虛해서 病이 생

기기 쉽고 男子는 陰盛陽虛이므로 氣가 虛해서 病이 오기 쉽다.⁵³⁾

㉟ 上下左右

人身의 下體는 男左 女右로 血氣爲主로 되어 있으며, 上體는 左血 右氣로 氣血爲主로 되어 있다.⁵⁴⁾ 낮에는 해가 주관하고 氣가 爲主이며, 밤에는 달이 주관하고 血이 爲主가 된다. 上下·左右에 대해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天地者, 萬物之上下也 陰陽者, 血氣之男女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陰陽者, 萬物之能始也.”⁵⁵⁾라 하여 上下 左右를 말하였다.

㊱ 左右

男左女右는 땅의 定位(인체에서는 다리)를 가지고 나눈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地의 方位를 나눌 때 東·西·南·北·中央으로 나누기도 하고, 四方·八方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河圖나 洛書에서 方位를 정할 때 관측자가 北을 등으로 하고 남쪽을 向하여 서면 左側이 東方이 되고 右側이 西方이 된다. 東方에서 해가 떠서 西方으로 지는 것을 보고 陰陽理論을 적용하여 정한 것이며 혹은 東方에서 해가 뜨고 西方에서 달이 뜬다고 보고 정한 것이다. (본래는 달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나 우리가 달의 存在를 느낄 수 있는 발현상은 서쪽에서 뜨는 것으로 古人들은 파악했다.) 東方에서 뜨는 해는 萬物에게 陽氣를 照射하므로 陰陽 中陽에 屬하며 男子를 象徵하고 달은 陰氣를 照射하므로 陰에 屬하여 女子를 象徵한다. 즉 男左女右는 天地自然 중에 있는 日月이 方位에 따라 運行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小宇宙인 사람에게 적용하여 생긴 用語이다.

脈에서 男左女右라는 말이 성립된다. 男子는 팔이 氣의 軸이 되니 氣가 오르면 血이 따라 循行한

53)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205.

54)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 서울. 지산출판사. 1996. p. 78.

55) 裴秉哲 譯. 今釋 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95. pp. 91-92.

52) 姜鎭春 撰. 偉大한 自然變化. 서울. 도림출판사. 1997. pp. 156-157.

다. 女子는 다리가 軸이 되어 血이 上流하기에 피가 내려오고 後에 氣가 따른다. 그래서 男子를 氣라고 부르고 女子를 血이라고 부른다. 脈에도 차이가 생긴다. 左手와 右手의 脈을 따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左手와 右手는 五行成立이 다르기 때문이다. 左手는 水火로 이루어졌고 右手는 金火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다. 脈에는 男左女右와 右氣左血이라는 말이 성립된다. 그리고 脈에는 대를 이어가는 生生의 뜻이 들어있다. 男左女右라는 말은 軸을 말한 것인데 左手는 陽에 屬하고 右手는 陰에 屬하며 左寸은 君火니 존귀한 것으로써 위에 있고 右尺은 相火니 卑賤하므로 아래에 있어서 貴賤의 理가 있다. 즉 男子는 팔이 氣의 軸이 되니 氣가 오르면 血이 따라 순행한다. 女子는 다리가 軸이 되어 血이 上流하기에 피가 내려오고 後에 氣가 따른다. 그래서 男子를 氣라고 부르고 女子를 血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脈이 차이가 생긴다. 右氣左血이란 말이 있다. 男子의 오른팔은 氣가 되어 힘이 강하고 왼팔은 약하다. 즉 오른쪽은 氣로 男子로 보고 왼쪽은 血로 女子로 보고 말한 것이다.

右氣左血은 肝主血하고 肺主氣하므로 생긴 用語이다. 左肝右肺란 말도 있고 右氣左血이란 말도 있는데 이것은 自然에서 左側은 東方木이고 人體에서 木은 肝에 屬하며 自然에서 右側은 西方金이고 人體에서 金은 肺에 屬하므로 左肝右肺라 했고, 右氣左血은 肝主血하고 肺主氣하므로 생긴 用語이다. 或者는 肝이 右側에 있는데 左側에 있다고 하니 韓醫學은 臟腑의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엉터리 學文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誤解는 左肝右肺란 말이 어떠한 觀點에서 形成된 用語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⁵⁶⁾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天을 머리에 있어 耳目口鼻로, 地를 몸에 있어 手足으로 나눠 說明하였는데, 天은 陽으로 耳目口鼻의 作用으로 말하였고 地는 陰으로 手足의 強弱으로 說明하였다. 그러므로 手足은 右手足이 左手足보다 힘이 強함

을 말하고 있다. 人體에 있어 東南은 心肝이고 西北은 肺腎이다. 心肝은 血이고 肺腎은 氣이다. 그러므로 左手足은 血이며 心肝에 該當되고 右手足은 氣이며 肺腎에 該當된다고 할 수 있다.⁵⁷⁾ 女子는 血을 위주로 살아가며 男子는 氣를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다.⁵⁸⁾ 女子는 左手足이 主가 되며 男子는 右手足이 主가 된다.

『東醫寶鑑』에 다음과 같이 左右에 대해 나와 있는데, 左右로 男女를 나타내고 있다.

「風門·調治預防」에 “左半身이 不遂하고 左手脈이 不足한 것은 四物湯으로 主治하고 右半身이 不遂하며 右手脈이 不足한 것은 四君子湯으로 主治하라.”⁵⁹⁾ 하였으며, 「風門·手足癱瘓」에 “左癱에는 마땅히 血을 補하고 絞하여 痰을 蠲어야 되니 四物湯에 薑汁 竹瀝 桃仁 紅花 白芥子를 加해 쓰고 右癱에는 氣를 補하고 絞하여 痰火를 蠲어야 하니 四君子湯에 二陳湯을 合하고 薑汁 竹瀝 白芥子를 加해 쓴다. 특히, 手足癱瘓의 경우에 半身不隨라는 것은 男女가 다 이 症에 걸리는데 男左女右를 忌한다.”⁶⁰⁾ 고 하여 男子가 왼쪽에 오거나 女子가 오른쪽에 온다면 고치기가 힘들다고 하였는데, 男子가 자주 쓰는 右手足에 온다면 左手足에 오는 것보다는 병이 낫기가 수월하고 女子는 그 反對임을 말하고 있다.

㊤ 前後表裡

男子가 女子와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縱과 橫을 合理化시키는 極致의 藝術的 行爲라 생각한다. 사람의 構造를 前後로 보면 사람의 등 뒤편은 하늘과 같아 붙어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사람의

56) 張介賓 原著, 李南九 編著, 張氏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1998, p. 49.

“陰陽應象大論 天不 不如右強也. 東方陽也, 陽者其精并於上, 并於上, 則上明而下虛, 故使耳目聰明, 而手足 不便也. 西方陰也, 陰者其精并於下, 并於下, 則下盛而上虛, 故其耳目不聰明, 而手足便也”

5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995.

59) 許浚, 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986.

60) 許浚, 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1005.

56)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57.

앞부분은 얼굴에는耳目口鼻가 있고 몸통에는乳房과 배꼽 그리고 性器 등이 땅처럼 심어져 붙어 있다. 사람 몸의 앞은 모여 있기에 땅이고 사람 몸의 등은 아무 것도 없기에 하늘이다. 男子는 하늘 女子는 땅이라 말하는 것은 사람의 前後가 表裏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이다. 男子가 물에 빠져 죽으면 엎어진 상태로 물위에 뜨기에 등을 表라 하고 앞을 裏라 한다. 女子가 물에 빠져 죽으면 누운 상태로 물위에 뜨기에 앞을 表라 하고 등을 裏라 한다.⁶¹⁾ 宋代에 法醫學家인 宋慈의 『洗冤錄』⁶²⁾에 “溺死에 若生前溺死에 屍首男仆臥 女仰臥라”⁶³⁾라고 되어 있다.

㉠ 表裡

『普濟方』에 “男子는 처음 根本이 生成됨에 뼈를 위주로 만들어졌고 女子는 血을 위주로 만들어졌다.”⁶⁴⁾라고 하였으므로 『東醫寶鑑』에서 “病因으로도 男子의 病은 반드시 房勞를 살펴야 하고 女子의 病은 月經과 孕胎의 與否를 물어야 한다.”⁶⁵⁾고 하였다. ‘骨屬腎’하므로 男子는 裏를 中心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皮는 12經絡의 部’이며 ‘胞는 血室로 經絡의 바다’이며 ‘胞는 子宮으로 血을 간직하고, 皮門에 몸에 虛하여 가려울 때는 四物湯加 浮萍草 黃芩을 사용한다.”⁶⁶⁾ 그러므로 皮는 血에 속한다. 그러므로 女子는 表를 中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男女는 表裏의 區分이 있다.

61) 朴仁圭. 너와 나의 세계. 서울. 지산출판사. 2000. pp. 154-155.
 62) 洪元植. 尹暢烈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pp. 249-250.
 63) 宋慈 著. 洗冤集錄. 臺北. 中華民國六十八年. p. 47.
 64) 明 朱橚 外 2人 編著. 校正 普濟方 卷一. 서울. 醫聖堂. 1993. p. 1. “普濟方·方脈總論의 辨男女形生神疏論(男女가 形이 생기고 神을 기르는 것을 分別함)에 男女가 形成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男子는 陰血이 먼저 이르고 陽精이 뒤에 動하여 血이 열리고 精을 얹으며 精이 들어가 빠가 되서 男子가 형성되고, 陽精이 먼저 들어가고 陰血이 뒤에 참여하여 精이 열리고 血을 얹으며 血이 들어가 根本으로 자리를 잡아서 女子가 形成된다
 6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480.
 66) 許浚. 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 出版社. 2005. p. 727.

2) 主要書籍에 나타난 男女의 差異

(1) 『周易』에 나타난 男女의 差異

『繫辭·上傳』에 “天尊地卑하니 乾坤이 定矣오 卑高以陳하니 貴賤이 位矣오 …… 乾道 成男하고 坤道 成女하니 乾知大始오 坤作成物이라 乾의 道는 男子를 이루고 坤의 道는 女子를 이루니 乾이 크게 시작함을 主管하고, 坤이 物件을 完成하는 作用을 한다. …… 精氣爲物이오 …… 易이 天地와 더불어 같이 하기 때문에 天地의 道를 겹으로 엮고 속으로 채우니, …… 夫乾은 其靜也 | 專하고 其動也 | 直이라 是以大 | 生焉하며 夫坤은 其靜也 | 翕하고 其動也 | 闢이라 是以廣이 生焉이라”⁶⁷⁾라고 하여 乾은 高요할 때는 靜하고 움직일 때는 專기 때문에 큰 것이 생기며, 坤은 高요할 때는 闢하고 움직일 때는 翕하기 때문에 넓음이 생긴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男女가 交合할 때를 生動的으로 描寫한 것이다.⁶⁸⁾

『繫辭·下傳』에 “子曰 乾坤은 其易之門邪인더 乾은 陽物也 | 오 坤은 陰物也 | 니 陰陽이 合德하여 而剛柔 | 有體라 …… 夫乾은 天下之至健也니 德行이 恒易以知險하고 夫坤은 天下之至順也니 德行이 恒簡以知阻라”⁶⁹⁾하여 乾이란 것은 天下의 지극히 剛健한 것이니, 德行이 恒常 쉬움으로써 險한 것을 알고, 坤이란 것은 天下의 지극히 順한 것이니, 德行이 恒常 간략함으로써 險함을 알게 된다고 하여 男女의 差이를 剛柔로 順함으로 描寫하였다.

『說卦傳』에 “參天兩地而倚數하고 …… 是以立天之道曰陰與陽이오 立地之道曰柔與剛이오 …… 乾爲首 | 오 坤爲腹이오 震爲足이오 巽爲股 | 오 坎爲耳 | 오 離爲目이오 艮爲手 | 오 兌爲口 | 라 …… 乾은 天야 | 라 故로 稱乎父 | 오 坤은 地也 | 라 故로 稱乎母 | 오 …… 乾은 爲天 爲圓 爲君 爲父 …… 坤은 爲地 爲母 …… 坎은 爲水 …… 其於人也에 …… 爲耳痛 …… 離는 爲火 爲日”⁷⁰⁾이라

67) 金秀吉 外 1人 共譯. 周易印解. 서울. 大有學堂. 1997. p. 201, 209.
 68) 郭東烈 編著. 醫易啓悟. 서울. 成輔社. 1997. p. 61.
 69) 金秀吉 外 1人 共譯. 周易印解. 서울. 大有學堂. 1997. p. 243, 250, 251.
 70) 金秀吉 外 1人 共譯. 周易印解. 서울. 大有學堂. 1997. p.

하여 乾坤은 天地의 理致로 父母가 되고 坎離는 水火가 된다고 하였다.

『序卦傳』에 “有天地然後에 有萬物하고 有萬物然後에 有男女하고 有男女然後에 有夫婦하고 有夫婦然後에 有父子하고 有父子然後에 有君臣하고 有君臣然後에 有上下하고 有上下然後에 禮義有所錯이니라.”⁷¹⁾라고 하였는데 이를 『問答式 周易과 한의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周易과 儒敎(儒敎에 나타난 男女)에 대해서 『周易』은 儒家文化를 根源으로 한다. ‘周易’이란 책명은 바로 日月이 서로 쫓으며 주위를 맴돈다는 뜻이다. 日月이 서로 쫓으며 주위를 돌아 乾天의 剛健함과 自強不息의 精神을 나타내었다. 하늘은 剛이고 陽이며 動으로써 先秦의 儒家는 일반적으로 하늘을 主宰者로 삼고, 天道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른바 “하늘의 運行이 굳건하니 君子는 이를 본받아 스스로 힘써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思想을 反映한 것이다. 이는 道家의 柔弱無爲思想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儒家는 宗法制에 의한 祖上崇拜·男尊女卑思想 등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父系社會의 習慣과 風俗에서 起源한 것으로 生殖器를 崇拜하던 思想이 전래된 것이다. 『易』에도 이러한 思想이 반영되었는데, 상고시대의 聖人들은 “멀게는 事物에서 取하고 가깝게는 몸에서 取하여, 萬物의 실질을 분류한다(遠取諸物, 近取諸身, 以類萬物之情)고 하였다. 人類도 男女의 交合을 통해 “萬物의 化生”을 추측하였기 때문에 男女 生殖器를 崇拜한 것인데, 易의 陽爻‘—’와 陰爻‘--’에 이러한 崇拜의 흔적이 남아있다. 『周易』은 乾을 으뜸으로 하여 “乾道成男”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男性生殖器와 비슷한 것을 숭배한 흔적이다. 『周易』은 伏羲氏가 처음으로 만들고 文王이 發展시킨 것으로 中國歷代의 君主와 賢인들이 숭상하였다. 儒家에서는 堯·舜·禹·湯·文王·武王·周公·孔子·孟子의 “道通”을 중시하여 “祖述堯舜, 憲章文武(창시자는 堯舜이고, 본받은 자는 文王·武王이다)”라고 하였

다. 이는 『周易』의 “貴剛尊陽”하는 전통문화사상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繫辭上에서는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므로 先天八卦方位圖에서 乾을 위에 그리고 坤을 아래에 그려서 높고 낮음을 형상화하였다. 『乾·象傳』에서는 “크도다! 하늘의 元이여! 萬物이 乾의 元을 바탕으로 하여 비롯되나니 이에 하늘을 거느리도다.(大哉乾元, 萬物資始乃統天).”·“지극하도다! 坤의 元이여! 萬物이 이를 바탕으로 생하나니 이에 順從하여 하늘을 잇는다.(至哉坤元, 萬物資生乃順承天)”고 하였다. (乾의 지극히 큼에 힘입어서 萬物이 비롯되는 것과 같이, 坤은 柔順함으로써 乾의 德을 이어받아 萬物을 낳는다. 이것은 坤의 元을 설명한 것으로, 하늘기운의 變化에 따라 땅의 生長·收藏이 있게 되는 이치이다.) 儒家는 바로 이러한 尊天貴陽·陰陽交感의 事상으로 宇宙萬物을 개괄하고 그 自然社會를 도식화하였다. 예를 들면 『序卦』에서 “天地가 있는 다음에 萬物이 있고, 萬物이 있는 다음에 男女가 있으며, 男女가 있는 다음에 夫婦가 있고, 夫婦가 있는 다음에 父子가 있고, 父子가 있는 다음에 君臣이 있고 君臣이 있는 다음에 上下가 있고, 上下가 있는 다음에 禮儀를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天地-萬物-男女-夫婦-父子-君臣-上下-禮儀의 順序로 自然에서 社會까지를 一體화한 도식이다. 여기에서 儒家의 天人合一思想이 시작되었으며, 中國文化와 思惟方法에 影響을 미쳤다. 韓醫學의 ‘扶陽抑陰’과 ‘陰陽和合’의 思想도 이와 直接的인 關係가 있다.⁷²⁾

周易과 道敎(道敎에 나타난 男女)에 대해서는 땅과 女子는 하늘과 男子에 相對되는 概念으로 陰性에 속한다. 하늘과 男子의 剛健에 상대되는 柔順에 屬하며, 하늘과 男子의 自強不息에 상대되는 自然無爲이다. 『易經』의 矛盾되는 概念이 轉化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은 “낮과 밤이 바뀌고”, 더위가 가고 추위가 오는 “등의 自然現象을 把握하였다. 老子는 “禍는 福에 붙어있고, 福은 禍에 숨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老子의 풍부한 辨證法的

254-255, 260-264.

71) 金秀吉 外 1人 共譯. 周易印解. 서울. 大有學堂. 1997. p. 270.

72) 郭東烈 編譯. 問答式 周易과 한의학. 서울. 成輔社附設 傳統醫學研究所. 1997. p. 37.

思想이 『易』에 反映되었다.⁷³⁾ 禍와 福이 서로 붙어 있다는 말은 예를 들어 결혼을 하여 吉하다고 하고, 예를 낳아 吉하다고 하지만, 또한 애가 속을 썩인다면 흉하다고 할 것이며,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까닭이다.⁷⁴⁾ 韓醫學은 道教와 많은 관련이 있다. 道教에서 周易을 女子와 땅의 立場에서 보는 것은 모든 것을 受容하고 創造해내는 主體이기 때문이다.

韓長庚의 『周易·正易』에서 男女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對待組織과 三才運行은 萬物의 組織은 모두 對待兩物로 되어 있음으로 對待가 運動하여 交互로 作用하는 때는 반드시 새로운 一物을 生하여 生生不窮하는 것이니 그럼으로 萬物의 運動은 兩作用이 相加하는 때에 반드시 새로운 一作用을 行하고 兩事가 相與하는 때에 반드시 새로운 一事를 生한다. 그리하여 組織體의 對待로부터 運行력이 發動하여 新事物을 生하는 때는 그 數가 三이 되어 三才의 象을 나타내나니 易 繫辭下傳 第5章에 天地 網緼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天地가 網緼하매 萬物이 化하여 醇하고 男女가 精을 構하매 萬物이 化하여 生한다한바, 網緼은 交密함이고 化醇은 氣가 化凝함이고 化生은 形이 化成함이니 이는 天地의 氣가 交密하여 萬物의 氣가 化凝하고 萬物의 陰陽性이 精을 相交하여 形을 化成함을 말함인데 天地의 中間에 사람이 生하여 萬物中の 最靈最長으로서 位를 이루고 있음으로 天地와 사람을 併稱하여 三才라 하나니 이 理에 依하여 陰性과 陽性이 相交하여 後繼者를 生하는 것이 모두 三才의 道이다. 物의 組織은 對待로써 構成되어 그 象이 二하니 二는 偶하고 偶한 者는 受容作用이 있음으로 그 形이 廣하여 至雜至動한 物을 包藏하는 것이요, 物의 運行은 三才의 道로써 發展하여 그 象이 三하니 三은 奇하고 奇한 者는 推進作用이 있음으로 그 形이 大하여 無限히 擴大하고 無窮히 推移하는 것이니 天은 運行의 象徵이요 地는 組織

의 象徵임으로 易에는 「廣大配天地=廣하고 大함은 天地에 配한다」하여, 天을 大하다하고 地를 廣하다하며 또 「參天兩地=天을 三으로 하고 地를 兩으로 한다」하여, 天數를 三이라 하고 地數를 二라 한 것이다. 參天兩地의 理에 依하여 陽性과 陰性의 數의 比較는 恒常 그 象이 陽性은 三이 되고 陰性은 二가 되나니 動植物의 生殖器로써 보면 陰性은 受容하기 爲하여 對待의 形態와 같이 偶함으로 그 象이 二하고 陽性은 發施하기 爲하여 三才의 形態와 같이 奇함으로 그 象이 三하며 사람의 生殖有效年齡의 期間도 大體로 男三女二의 比이다. 植物體의 構造로써 보면 이미 體를 完成한 根幹 등은 陰性을 띄고 있음으로 中空하여 그 象이 偶하고 成의 用이 되는 枝梢 등 成長點은 陽性을 띄고 있음으로 그 象이 奇하며 馬類는 陽物이므로 그 蹄가 奇하여 中實하고 牛類는 陰物이므로 그 蹄가 偶하여 中空하니 中實과 中空이 또한 三과 二의 象이다. 그러나 對待와 三才는 各其別物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요 對待가 三才를 生하고 三才의 속에 對待를 包含하고 그 對待가 다시 三才를 生하여 서로 錯綜하고 서로 因果하며 對待와 三才의 限없는 交互作用에 依하여 萬物은 生生하면서 存存하고 存存하면서 生生하며 또 그 萬物은 비록 森羅萬象하고 있으나 太一體의 統一에 歸하는 것이니 老子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一이 二를 生하고 二가 三을 生하고 三이 萬物을 生한다」 함은 統一 對待 三才의 理를 簡明하게 表現한 것이다.⁷⁵⁾ 이 條文에서는 三이 陽이며 男子의 特性을 나타내며 二가 陰이며 女子의 特性을 나타내는 理由를 밝혔으며, 사람의 生殖有效年齡의 期間이 大體로 男三女二의 比로 黃帝內經의 年老하면 無子하는 경우에 男子는 64세 女子는 49세까지 生殖可能하다는 것의 由來를 나타내었다.

三索과 三極⁷⁶⁾으로 男女가 精氣를 交合해서 生成하는 理致를 밝혔는데, 元來 天地人을 三才라 함은, 上의 天과 下의 地와 그 中間에 生한 萬物을 合하여 말하는 것임으로, 그것을 動的으로 볼 때

73) 郭東烈 編譯. 問答式 周易과 한의학. 서울. 成輔社附設 傳統醫學研究所. 1997. p. 40-42.

74) 南懷瑾 著. 신원봉 譯. 周易講義. 서울. 문예출판사. 2000. p. 53.

75) 韓長庚. 易學原論. 서울. 學友社. 檀紀 4288. p. 45.

76) 韓長庚. 易學原論. 서울. 學友社. 檀紀 4288. p. 45-46.

에는 天은 氣의 流行함이고 地는 精의 凝做함이고 萬物은 形의 結成함이니 氣·精·形의 三者가 또한 三才의 形態이다. 故로 物과 物이 相與하여 三才로 發展하는 過程에는 精과 氣의 渾淪錯綜한 作用을 이르게 三索과 三極의 象을 生하는 것이다.

三索의 象이란 時間的 立體的 또는 縱的으로 發展함이니 天地가 相交하여 物을 生하는 順序는 一索하여 雷風의 氣를 得하니 이를 人事에 擬하여 長男長女라 하고 再索하여 水火의 精을 得하니 이를 人事에 擬하여 中男中女라 하고 三索하여 山澤의 形을 得하니 이를 人事에 擬하여 少男少女라 하니 이것을 三索이라 한다. 故로 萬物의 陰陽性의 對待가 新物을 生하는 順序는 먼저 兩性의 氣가 相感하고 다음에 兩性의 精이 相聚하고 그 다음에 精과 氣가 相凝하여 新物의 形이 生成하니 이가 곧 三索의 象이다. 또 生物의 生殖作用에 있어서는 처음에 兩性의 氣가 相感하여 戀慕가 生하고 다음에 兩性의 精이 相聚하여 孕胎가 되고 그 다음에 精과 氣가 凝結하여 次世代의 形이 生成하는 것이며 …… 萬事萬物의 發生에는 어느 하나도 이 三索의 順序를 밟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三極의 象이라 함은 空間的 平面的 또는 橫的으로 關涉함이니 여기에는 氣와 氣의 相感 精과 精의 相聚 精과 氣의 相合 등 세가지 形態가 있다. 天地人의 三才에는 모두 兩極이 있으니 幽와 明은 地의 晝夜의 兩極이고, 死와 生은 人의 一生의 兩極이고, 鬼와 神은 天의 造化의 兩極이며, 또 陰과 陽은 天의 道의 兩極이고 柔와 剛은 地의 道의 兩極이고 仁과 義는 人의 道의 兩極이니 物의 運動이 天地人의 各 兩極의 사이를 往來하는 것을 三極의 道라 한다.

男女의 構造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끌리는 이유를 ‘感應은 乖違中의 相交’⁷⁷⁾로 설명하고 있다. 感應은 陰性和 陽性이 그 形體는 相乖相違하면서 그 氣는 相感相應하여 새로운 一物을 生함이니, 天地의 二氣가 感應하여 萬物을 化醇하고 牝牡雌雄이 相交하여 次世대를 創造하고 萬事萬物의 能動과 受動이 相應하여 新事物을 生하는 것 등이 모두

感應의 情에 依함이고, 萬物은 이 情의 發露에 依하여 恒常 感應의 對象을 求하여 發動하는 것이다. 萬物의 運行은 生生不窮하기 爲하여 父母를 繼代할 新物을 生치 아니할 수 없고, 新物을 生하기 위하여는 陰性和 陽性의 對待作用이 行치 아니할 수 없으니, 陰性和 陽性의 對待라 함은 그 體는 乖違하면서 그 情은 서로 交合하는 것이다. 故로 萬物은 그 體가 乖違한 때에 그 用이 相交하고 體의 乖位가 없으면 用의 相交도 없나니 이 乖違中에 相交가 곧 感應이다. 男性과 女性은 그 身體의 構造가 서로 乖違함으로 그 志가 相通한다.

萬物이 시작되는 것을 易學의 八卦原理⁷⁸⁾를 통하여 乾坤이 父母이며 坎離는 男女인데 八卦를 통하여 乾坤坎離의 核心을 說明하였다. 八卦의 劃象은 生命元인 陰陽에서 始하니 이는 萬物의 生生은 반드시 男女 雌雄 등의 陰陽兩性이 있고 萬物의 組織에도 반드시 剛柔 長短 曲直 등의 陰陽兩性이 있고 萬物의 運行에도 반드시 消長 聚散 往來 등의 陰陽兩性이 있는 까닭이다. 物의 陰陽性을 表示함에 陽을 一로 劃하고 陰을 二로 劃하니 이는 陽의 象은 奇하고 陰의 象은 耦여 氣의 象은 全一하고 耦의 象은 兩分하고 한 까닭이며 모든 生物이 陽體의 生殖器는 奇하고 陰體의 生殖器는 耦하며 陽性인 馬의 蹄는 奇하고 陰性인 牛의 蹄는 耦하고 한 것이 그 一例이다.

八卦의 象은 다음과 같다.⁷⁹⁾

☰ 乾은 純陽이므로 天의 運行하는 象이 되고 純陽은 光明의 象이므로 太陽의 象이 되어 乾字를 쓰니 乾은 해돋을 간(건에 乙대신에 人)과 乙로 되어 간은 太陽이 비로소 나와서 光明하다는 뜻이요 乙은 物의 發展하는 形容이다. 故로 乾은 太陽의 光明이 비친다는 뜻이요 사람에 있어서는 男體의 象이 되며 天地間의 모든 萬物은 乾陽의 能動作用에 依하여 行하는 것이므로 乾은 또 生命元이 되는 것이다.

77) 韓長庚, 易學原論, 서울, 學友社, 檀紀 4288, p. 59.

78) 韓長庚, 周易·正易, 서울, 삼과 꿈, 2001, p. 18.

79) 韓長庚, 周易·正易, 서울, 삼과 꿈, 2001, p. 20.

㉞ 坤은 純陰이므로 地와 달의 陰質의 聚凝한 象이 되고 純陰은 物의 形質을 生하는 象이 되므로 坤字를 쓰니 坤은 土와 申으로 되어 土氣가 伸하여 萬物의 形質을 生한다는 뜻이다. 坤陰은 반드시 乾陽을 承受하여 物을 生하는 것이므로 受動作用으로써 乾陽을 받아서 內部에 陽氣를 含하고 外面에 光明을 生하여 그 作用은 乾과 함께 生命元이 되고 그 形質은 地와 달이 된 것이며 사람에게 있어서는 女體의 象이 되는 것이다. 乾은 男體의 象이오 坤은 女體의 象이므로 乾坤을 父母로 하여 六卦가 生하고 이 六卦를 六子라 한다.

㉟ 坎은 氣의 다음에 生한 精이니 精이라 함은 氣와 形의 中間에 있어 그 性이 流動하여 散하면 氣로 되고 聚하면 形으로 되는 것이라 坎은 坤陰中에 乾陽을 含하여 外暗內명한 精이오 水가 또한 流動하는 精으로서 內가 透明함으로 坎은 水의 象이 되는 것이며 坎은 또한 달의 組織의 象이 되니 이는 달은 坤陰의 속에 乾陽을 含하고 乾陽의 氣에 依하여 運行함이 水와 같은 까닭이다. 坎字는 土와 欠으로 되어 陷穴이라는 뜻인데 水는 地와 서로 떠나지 못하고 반드시 地의 卑陷한 곳에 고이는 것이므로 坎이라 한 것이오 사람에게 있어서는 男體의 陽精水의 象이 되는 것이다.

㊱ 離는 氣의 다음에 生한 精이오 乾陽이 坤陰에 依附하여 內暗外명한 精인데 乾의 純陽은 光明의 象이 되고 純陽의 속에 一陰을 得하면 陽氣가 激化하여 火를 生하는 것이므로 離는 火의 象이 되는 것이며 離는 또한 太陽의 組織의 象이 되니 이는 太陽은 乾陽이 坤陰에 依附하여 光을 發함인 火와 같은 까닭이다. 離字에는 兩麗라는 뜻과 鳥라는 뜻의 두가지 뜻이 있으니 離는 火를 發하는 陰宮으로서 陰體의 子宮의 象이 되므로 陽精의 附麗하는 兩麗의 象이 되고 또 陽體의 陽精水가 陰體의 子宮으로 넘어갈 때에는 반드시 兩體의 사이에 있는 空間의 絶處를 飛越하여야 하고 空間의 絶處를 飛越함에는 반드시 火의 發揚作用과 水의 流通作用이 行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는

水火가 通明하여 絶處에 逢生하는 理이다. 陽體의 陰精이 陰體의 子宮으로 넘어감에는 水火의 作用으로써 空間의 絶處를 飛越하는 것이므로 坎의 陽精水에는 習飛의 象이 있어 坎을 習坎이라 하는 것이요 離의 子宮에는 飛越하는 精을 承受하는 鳥의 象이 있어 鳥名의 離字를 쓴 것이며 사람에게 있어서는 女體의 子宮의 象이 되는 것이다.

(考察)

周易과 韓醫學의 關係에 대해 하나의 예를 들면 王冰은 『黃帝內經·素問』을 再編輯하여 一目了然한 體系를 確立하여 後代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周易의 理致를 根幹으로 주석을 가하여 後代 醫家들의 理解의 문을 열어주었다. 周易은 韓醫學의 이론틀 形成에 至大한 影響을 주었다.⁸⁰⁾ 이와 같이 韓醫學은 周易과 밀접한 關係가 있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於本也.”⁸¹⁾라 하여 陰陽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였는데 周易에서는 이러한 陰陽의 理致가 자세히 나와 있으며 사람에게 男女는 가장 代表的인 陰陽임을 밝히고 있다. 人類도 男女의 交合을 통해 “萬物의 化生”을 추측하였기 때문에 易의 陽爻‘—’와 陰爻‘--’도 男女 生殖器를 나타낸 것이다. 男子는 海에서 氣운을 받아 氣를 위주로 살아가며 女子는 달의 氣운을 받아 血을 위주로 살아가는다. “周易의 64괘의 의미를 축소하여 보면 乾坤坎離의 調和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乾元은 萬物이 바탕으로 하여 비롯되고 坤元은 萬物이 바탕으로 하여 나옴에, 하늘의 德行은 강건하여 萬物로 하여금 비로소 存在하게 하며, 땅의 德行은 지극히 유순하여 萬物로 하여금 生長하게 하는 것이다. 既濟는 坎離의 사귀이 되고 未濟는 坎離의 합이 되니, 周易의 始作은 乾坤으로 비롯되고 周易의 마침은 己未濟로 마감된다.”⁸²⁾ 乾坤은 天地의 根本이오

80) 金南一. 王冰·素問註釋의 易學理論活用に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p. 4-5.

81) 裴秉哲 譯. 今釋 黃帝內經靈樞. 서울. 成輔社. 1995. p. 81, 82.

82) 張俸赫. 學易綜述. 서울. 도서출판 學古房. 1999. p. 115.

坎離는 天地의 쓰임이다.⁸³⁾ 周易에서 乾坤으로 萬物을 생하는 父母를 말하였고, 坎離로 男女를 말하였다. 男女의 構造가 다름(相違 相乖함)으로 感應이 일어나게 되는 理致를 말하였다.

(2) 『黃帝內經』에 나타난 男女의 差異

① 男女

『素問·陰陽應象大論』에 “天地者, 萬物之上下也; 陰陽者, 血氣之男女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陰陽者, 萬物之能始也. 故曰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使也.”⁸⁴⁾라고 하여 모든 萬物은 陰陽五行으로 되어 있는데, 血氣의 男女에 대해 陰陽은 人體의 男女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陰主血하고 陽主氣하며 陰生女하고 陽生男이라”⁸⁵⁾하였다.

② 男女異位

『靈樞·五色』에 “能別左右, 是謂大道, 男女異位, 故曰陰陽, 審察澤天, 謂之良工. …… 男子色在于面王, 爲小腹痛, 下爲卵痛. 其圓直爲莖痛, 高爲本, 下爲首, 狐疝瘻陰之屬也. 女子色在于面王, 爲膀胱·子處之病, 散爲痛, 搏爲聚. 方員左右, 各如其色形. 其隨而下至臍爲淫, 有潤如膏狀, 爲暴食不潔. 左爲左, 右爲右, 其色有邪, 聚散而不端, 面色所指者也.”⁸⁶⁾라고 하여 陽左陰右의 속성을 변별하는 것을 大道라 하는데, 男女의 病色은 그 順逆과 位置가 다르므로 陰陽의 規律을 파악하고 안색의 유효함과 어두움을 관찰하여 치료해야 훌륭한 醫師라고 할 수 있다고 하여 望診에 있어 男女의 差異를 말하였다.

③ 男子內結七疝 女子帶下瘕聚

『素問·骨空論』에 “任脈爲病, 男子內結七疝, 女子帶下瘕聚. …… 少陰上股內後廉, 貫脊屬腎. 與太陽

起於目內眥, 上額交巔, 上入絡腦, 還出別下項, 循肩膊內, 俠脊抵腰中, 入循膂絡腎. 其男子循莖下至篡, 與女子等. 其少腹直上者, 貫齊中央, 上貫心, 入喉上頤, 環唇, 上繫兩目之下中央. 此生病, 從少腹上衝心而痛, 不得前後, 爲衝疝; 其女子不孕, 癥痔遺溺噎乾.”⁸⁷⁾이라 하여 任脈에 病이 發生하면 男子는 腹內에서 멧혀 七疝이 되고, 女子는 帶下와 瘕瘕積聚가 되며, 督脈에 病이 發生하면 男子는 衝疝이 되며 女子는 不妊 小便不利 痔疾 遺尿 咽喉乾燥로 같은 任脈 督脈의 病이라도 男女가 病이 다르게 온다는 것을 말하였다.

④ 男子左爲逆 女子右爲逆

『素問·玉版論要』에 “容色見上下左右, 各在其要. …… 女子右爲逆, 左爲從; 男子左爲逆, 右爲從. 易, 重陽死, 重陰死.”⁸⁸⁾라 하여 얼굴에 있어서 男子는 右側이 主이며 女子는 左側이 主인데, 病色이 反對로 나타나면 逆이라 하여 男女의 差異를 말하였다.

⑤ 男子立已 女子有頃已

『素問·繆刺論』에 “邪客於足厥陰之絡, 令人卒疝暴痛. 刺足大指爪甲上, 與肉交者, 各一疝. 男子立已, 女子有頃已, 左取右, 右取左.”⁸⁹⁾라 하여 疝痛의 治療時 남자와 여자의 치료시간의 차이점을 말하였다.

⑥ 男子如蠱 女子如怛

『靈樞·熱病』에 “男子如蠱, 女子如怛, 身體腰脊如解, 不欲飲食, 先取湧泉見血, 視跗上盛者, 蠱見血也.”⁹⁰⁾라고 하여 男子 疝症이나 女子의 妊娠 惡阻 등의 病에 身體의 腰脊部가 끊어지는 것 같고 飲食을 먹으려 들지 않는 症狀이 같이 온다는 것을 말하였다. 男女는 症狀이 같더라도 病이 다르게

83) 邵康節 著, 노영근 譯, 皇極經世書, 서울, 대원출판, 2002, p. 242.

84)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20-21.

85) 尹暢烈 外 2人 譯,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王冰注(上), 大田, 周珉出版社, 2003, p. 134.

86)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401-402.

87)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161.

88)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45.

89)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173.

90)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340-341.

온다.

⑦ 男子發左 女子發右

『素問·大奇論』에서 “男子發左, 女子發右, 不瘡舌轉, 可治, 三十日起. 其從者瘡, 三歲起. 年不滿二十者, 三歲死.”⁹¹⁾라 하여 偏枯의 발병부위의 남녀의 좌우에 따라 治療與否를 말하였다.

⑧ 男子數其陽

『靈樞·脈度』에 “男子數其陽, 女子數其陰, 當數者爲經, 其不當數者爲絡也.”⁹²⁾라 하여 數란 寸寸經脈의 길이를 합한 수인 16丈2尺을 말한다. 그 중 蹻脈의 길이는 7尺5寸으로서 左右 합쳐 모두 4줄기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經脈의 총 길이와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陰蹻脈과 陽蹻脈의 길이는 비록 같으나, 男子의 경우는 陽蹻脈을 계산에 넣고 女子의 경우는 陰蹻脈을 계산에 넣는다.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經이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絡이다. 계산에 넣는 것은 經脈으로 간주하고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은 絡脈으로 간주합니다. 男子는 陽蹻脈을 經으로 간주하고 陰蹻脈을 絡으로 간주하며, 女子는 그 反對이다. 奇經八脈의 하나인 陽蹻脈과 陰蹻脈에 있어서도 男女의 다름이 있다.

⑨ 男子不過盡八八, 女子不過盡七七

『素問·上古天真論』에 “帝曰 人年老而無子者, 材力盡耶, 將天數然也? 岐伯曰 女子七歲 …… 七八, 肝氣衰, 筋不能動, 天癸竭, 精少, 腎藏衰, 形體皆極; 八八, 則齒髮去. 腎者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 故五藏盛, 乃能寫. 今五藏皆衰, 筋骨解墮, 天癸盡矣. 故髮鬢白, 身體重, 行步不正, 而無子耳. 帝曰 有其年已老而有子者, 何也? 岐伯曰 此其天壽過度, 氣脈常通, 而腎氣有餘也, 此雖有子, 男不過盡八八, 女不過盡七七, 而天地之精氣皆竭矣. 帝曰 夫道者年皆百數, 能有子乎? 岐伯曰 夫道者能却老而全形, 身年雖壽, 能生子也.”⁹³⁾라 하여 天癸數의 數理에 근

거한 男女의 生理變化를 살펴볼 수 있는데 “河圖洛書의 數理가 韓醫學에 運用된 것을 보면, 『上古天真論』에서 “陰陽變化의 規律에 따르고, 이러한 理致를 根據로 하여 養生의 各種方法과 調和하도록 하며 …… 女子는 7세가 되면 腎氣가 盛해지기 시작하여 …… 14세가 되면 天癸가 이르고 …… 男子는 8세가 되면 腎氣가 實해져 …… 16세가 되면 腎氣가 旺盛해져 天癸가 이른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天癸數는 어떻게 易數에서 얻어낸 것인가? 이 問題의 解決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天癸라고 하는 가에 대해서 理解해야 한다. 馬蒔는 『內經』의 注釋에서 “무릇 腎은 水에 屬하고 腎 역시 水에 屬한다.”고 하였고, 『周易·說卦』에서 “坎은 水로서, …… 그 水는 땅속에 貯藏된 것을 取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方書에서는 “男子의 精과 女子의 血은 先天의 形成되고 後天의 形成되므로 天癸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腎은 坎卦이고, 天은 先天과 後天의 뜻으로, 天癸는 先天八卦를 後天洛書의 數와 配合하여 나타낸 數임을 알 수 있다. 『周易·說卦』에서 “艮은 세 번 구하여 得男한 것이므로 少男이라 하고 兌는 세 번 구하여 得女한 것이므로 少女라 한다.”고 하였다. 위의 그림에서 艮은 少男으로서 8에 속하므로 少男은 8에서 始作하고 兌는 少女로서 7에 屬하므로 少女는 7에서 시작한다. 男左女右의 原則에 비추어 볼 때, 兌卦인 少女卦는 오른쪽으로 돌아 二七(14)에 到達하면 坎卦의 天癸에 이르고, 艮卦인 少男卦는 왼쪽으로 돌아 二八(16)에 到達하면 坎卦의 天癸에 이르는데, 이것이 바로 內經에서 말하는 天癸數의 數理的 根據이다.⁹⁴⁾ 이 條文에서는 人體의 正常的인 發展過程과 男女의 生育機能, 특히 腎氣의 盛衰에 관하여 논하였다.

⑩ 男內女外

『靈樞·終始』에 “凡刺之法, 必察其形氣. …… 男內女外, 堅拒勿出, 謹守勿內, 是謂得氣.”⁹⁵⁾라하였는

91)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135.

92)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324.

93)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8-9.

94) 郭東烈 編譯. 問答式 周易과 韓의학. 서울. 成輔社附設 傳統醫學研究所. 1997. p. 178-179.

데 男內女外에 대하여 張志聰은 注에서 “男子는 陽이고 女子는 陰이다. 陽은 外部에 있으므로 이를 內部로 끌어들이고 陰은 內部에 있으므로 이를 外部로 끌어들이야 한다. 즉 內外的 陰氣와 陽氣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⁹⁶⁾고 하였다.

⑪ 男陰女陽

『靈樞·官能』에 “不知所苦, 兩蹻之下, 男陰女陽, 良工所禁, 鍼論畢矣.”⁹⁷⁾라고 하여 확실한 疼痛部位를 알 수 없을 경우는 陽蹻脈의 申脈穴과 陰蹻脈의 照海穴을 取해야 하는데, 男子에게 陽蹻脈을 취하고 女子에게 陰蹻脈을 취하는 誤謬는 고명한 醫師가 삼가야 할 바라고 하여, 醫師가 男女의 差異에 너무 신경을 쓰다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⑫ 女子不月

『素問·陰陽別論』에 “二陽之病, 發心脾, 有不得隱曲, 女子不月, 其傳爲風消, 其傳爲息賁者, 死不治.”⁹⁸⁾라 하였으니 二陽은 陽明으로서 胃 大腸의 二經을 말한다. 不月이란 月經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⑬ 女子不足二節

『靈樞·邪客』에 “辰有十二, 人有足十指, 垂垂以應之, 女子不足二節, 以抱人形. 天有陰陽, 人有夫妻. 歲有三百六十五日, 人有三百六十節.”⁹⁹⁾이라 하여 人體의 四肢百節이 天地와 相應하는데, 女子는 男子의 陰莖과 辜丸이 없으나 妊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張介賓은 注에서 辰有十二란 12지인데 人體의 발가락이 12개인데 陰莖과 辜丸을 합쳐서 12이라 하였다.

⑭ 女子手少陰脈動甚者妊子

『素問·平人氣象論』에 “女子手少陰脈動甚者, 妊子.”¹⁰⁰⁾라 하였으니 楊上善은 注에서 “手少陰脈은 心脈인데, 心脈은 血을 主管하여 女子가 妊娠하면 月經을 통해 血이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手少陰脈이 內部에서 盛해지고 이로 인해 脈이 심하게 된다.”고 하였다.

⑮ 女子之病也

『靈樞·癰疽』에 “帝曰 願盡聞癰疽之形, 與忌日名. 岐伯曰 癰發於喉中 …… 發於脅, 名曰敗疵. 敗疵者, 女子之病也, 灸之.”¹⁰¹⁾라고 하여 癰疽의 형태와 금기 완쾌시기 혹은 사망 시기 명칭에 대해 說明하고 있는데, 옆구리부위에서 발생하는 것을 敗疵라 하는데, 이것은 婦女子의 病이라 하였다.¹⁰²⁾ 肝에 邪가 있으면 그 氣가 兩脇에 이르게 되고 女子는 經帶胎產의 生理的인 特性이 있으므로 肝이 先天이 된다. 女子는 月經을 하는 이후로 肝을 위주로 살아간다.¹⁰³⁾ 그러므로 肝에 異常이 생기면 敗疵가 생길 수 있다.

⑯ 女子胞

『素問·五藏別論』에 “腦髓骨脈膽女子胞, 此六者, 地氣之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地, 故藏而不寫, 名曰奇恒之府.”¹⁰⁴⁾라 하여 腦·髓·骨·脈·膽·女子胞는 奇恒之府로 地氣를 받아 化生된 것으로 人體의 陰精을 貯藏하는데, 六腑의 機能과 差異는 있으나 그 形態가 유사하다. 女子胞는 子宮으로 女子에게만 있다.

(考察)

95)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297.
 96) 裴秉哲 譯, 今釋 黃帝內經靈樞, 서울, 成輔社, 1995, p. 124
 97)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451-452.
 98)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26-27.
 99)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446.

100)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455.
 101)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480-481.
 102) 裴秉哲 譯, 今釋 黃帝內經靈樞, 서울, 成輔社, 1995, p. 629.
 103) 金完熙 등 編著, 東醫生理學,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p. 261-262.
 104)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37.

『黃帝內經』은 韓醫學의 最高의 原典이다. 『黃帝內經』에 나타난 男女의 差異는 『黃帝內經』의 年老無子하는 경우에 男女가 7세와 8세의 곱으로 男體와 女體의 變化過程을 말하여 男女의 差異를 明確하게 밝혔다. 그밖에 鍼法에서도 男女를 反對로 治療한다고 하였고, 女子는 胞가 있어 男女身體의 根本的인 構造가 다르음을 밝혔다.

(3) 『難經』에 나타난 男女의 差異

『難經』에서 寸口를 寸關尺으로 나누어 진단하는 방법이 확립되었고 男女에 따라 脈이 다르고 鍼 놓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① 男女의 脈의 差異

「十九難」에 尺脈의 強弱으로 男女의 서로 다른 정상 脈象을 구별하였다. 아울러 이에 근거하여 男女가 診斷에서 相反된 脈을 얻을 때 나타나는 病變의 성질과 부위에 대해 論하였다.¹⁰⁵⁾

「十九難」에 “男脈은 在關上하고 女脈은 在關下하니 是以로 男子尺脈恒弱하고 女子尺脈恒盛이 是爲常也라 反者는 男得女脈하고 女得男脈也라 其爲病은 何如오 然이라 男得女脈이면 爲不足이니 病在內하고 左得之면 病在左하고 右得之면 病在右는 隨脈言之也오 女得男脈이면 爲太過니 病在四肢하고 左得之면 病在左하고 右得之면 病在右는 隨脈言之니 此之謂也라”¹⁰⁶⁾하여 男女의 正常脈과 反常脈을 비교하였으니 먼저 平脈의 脈象에 대해 男子는 寸脈을 爲主로 하여 尺脈이 항상 寸脈에 比하여 조금 弱하고 女子는 尺脈을 爲主로 하여 尺脈이 항상 寸脈보다 盛하니 이는 正常脈으로 病이 없는 脈象이다. 따라서 病脈의 脈象은 만약 男子가 女子의 脈이 나오면 즉 寸脈이 도리어 尺脈에 비해 弱하면 주로 不足한 虛證으로 病이 內臟에 있는 것이고, 만약 女子가 男子의 脈이 나오면 즉 寸脈이 尺脈에 比하여 盛하면 主로 太過의 實證이 있고 病이 四肢에 있으며, 또한 左脈에

서 나오면 病이 左側에 있고 右脈에서 얻으면 病이 右側에 있다.

또 “男子在關上, 女子在關下”에 대해서 “男子生於寅 女子生於申”이라고 하여 男子는 寸脈을 爲主로 하여 尺脈이 항상 寸脈에 比하여 조금 弱하고, 女子는 尺脈을 爲主로 하여 尺脈이 항상 寸脈보다 盛함을 설명하였다.

“男子生於寅 女子生於申”에 대해서 滑壽는 『難經本義』에서 “生物之初 其本原皆始於子 子者 萬物之所以始也 自子推之 男左旋三十 而至於巳 女右旋二十 而至於巳 是男女婚嫁之數也 自巳而懷娠 男左旋十月 而生於寅 寅爲木 陽也 女右旋十月 而生於申 申爲金 陰也”라 하였으니 男女가 三十 二十이 되어 婚姻하여 交構하여 十個月이 되면 男子는 寅에서 태어나고 女子는 申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 『難經集註』에서 丁氏는 “三陽始生於立春 建寅 故曰男生於寅 木 陽也 三陰生於立秋 七月建申 故言女生於申”이라 하여 三陰三陽과 男女의 陰陽을 聯關하여 설명하고 따라서 “男子之氣 始於少陽 極於太陽 所以男子尺脈恒弱 而寸脈陽也 女子之氣 始於太陰 極於厥陰 女子尺脈浮 而寸脈沈 故云 男脈在關上 女脈在關下”라 하였다. 『盧經衰脈』에서는 邵康節의 말을 인용하여 “邵子曰 坎離陰陽之限也 故離當寅坎當申 男子生於寅 女子生於申 理或由此也”라 하였다. 한편 『醫學入門·診脈』에서는 이를 天地의 南北陰陽과 결부하여 “天地陽在南 而陰在北 男子面南而生於寅 則兩寸在南而得其陽 寸脈洪而尺脈弱者常也 地之陽在北而陰在南 女子面北而生於申 則兩尺在北而得其陰 寸脈弱而尺脈洪者常也”라 하였다.

그러나 男女의 正常脈과 반대지만 正常인 證이 있으니, 즉 『素問·平人氣象論』에 “婦人手少陰脈動甚者 任子也”라 하였고 『陰陽別論』에 또한 “陰搏陽別 謂之有子”라 하였으니 前者는 婦人의 左寸脈이 홀로 盛하고 有力함을 말한 것이고, 後者는 尺脈이 寸脈에 比하여 盛大하고 有力함을 말한 것으로 모두 懷孕했을 때의 脈象이다.

한편 「二十六難」에서 十五絡脈을 論하였는데

105) 尹暢烈 外 1人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 136.

106) 尹暢烈 外 1人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 438.

……『靈樞·經脈』에 “躄有陰陽 何脈當其數 …… 男子數其陽 女子數其陰 當數者爲經 其不當數者爲絡也”라고 하였고 張景岳의 『類經』에도 또한 명백하게 男子는 陽躄脈으로 經을 삼고 陰躄脈으로 絡을 삼으며 女子는 陰躄脈으로 經을 삼고 陽躄脈으로 絡을 삼는다고 하였다.¹⁰⁷⁾

「七十八難」에 “不得氣어든 乃與男外女內오 不得氣는 是謂十死不治也니라”¹⁰⁸⁾라고하여 鍼入後에 得氣하지 못하면 男子는 衛外에서 살피고 女子는 營內에서 살피며 만약 다시 得氣하지 못하면 不治의 死證이라고 하였다.

男外女內에 대하여 『本義』에서는 “男則少輕其手於衛氣之分하여 以候之하고 女則重其手於營氣之分하여 以候之라”하여 內外는 즉 深淺으로 衛氣와 營氣를 意味한다고 하였다.

② 難經의 鍼刺補瀉法¹⁰⁹⁾

「七十八難」에 계속하여 男外女內의 說은 『靈樞·終始』에서 처음 보이니 원래는 “男內女外 堅拒勿出 謹守勿內 是謂得氣”라 하였다. 本難에서 得氣하지 못하는 것이, 즉 男外女內라 하였는데 『靈樞』와 『難經』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鍼灸大成』의 해석에 의하면 “男即輕手按穴 謹守勿內 女即重手按穴 堅拒勿出 外內淺深不同 左手按穴是要分明 只以得氣爲度”라 하였다. 이로부터 『內經』에서 말한 “男內”는 輕手로 穴을 눌러서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女內”는 重手로 穴을 눌러서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難經』에서 말한 “男內”는 輕手로 穴을 눌러 밖에 있는 것을 말하고 “女內”는 重手로 穴을 눌러 안에 있는 것을 말함을 알 수 있다. 男女는 淺深을 대표한 것으로 重點은 穴을 누르는 輕重에 있으므로 本難의 要旨는 재차삼차 鍼을 놓을 줄 아는 者는 그 左手를 믿는데 힘써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十二經의 經氣는 모두 手足末端의 井穴에서 分出하여 榮 俞 經 合을 따라 臟腑로 향한다. 營氣가 十二經脈에 流注하는 方向은, 手三陰經은 從胸走手하고 手三陽經은 從手走頭하고 足三陽經은 從頭走足하고 足三陰經은 從足走胸한다. 宗氣 營氣 衛氣가 함께 行하는 氣는 男女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뉘어 서로 다른데 男子는 오전에 먼저 左側經脈을 循行하고 뒤에 右側經脈을 逆行하여 모두 二十五度를 行하고 男子는 午後에 먼저 右側經脈을 循行하고 뒤에 左側經脈을 逆行하여 二十五度를 行한다. 女子는 午前午後가 男子와 서로 反對이다.¹¹⁰⁾

迎隨補瀉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子母迎隨補瀉法과 鍼芒迎隨補瀉法 轉鍼迎隨補瀉法이 있는데, 그 중 轉鍼迎隨補瀉의 要旨는 鍼을 左轉 혹은 右轉하는데 있으니 一般的으로 말하면 左轉이 補가 되고 右轉이 瀉가 된다. 만약 詳細히 말하면 背와 腹이 서로 反對이고 左右가 서로 反對이고 手經과 足經이 서로 反對이고 男女가 서로 다르며 午前午後가 서로 다르다.¹¹¹⁾

李梴의 『醫學入門』에 宗氣 營氣 衛氣가 함께 行하는 것이 男子는 오전에 먼저 左側經脈을 循行하고 뒤에 右側經脈을 逆行하며 女子는 이와 相反되므로 轉鍼補瀉를 使用할 때에 左右 手足陰陽經 男女午前午後의 구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循行이라 한 것은 …… 手三陰經과 足三陽經은 모두 左瀉右補이고 手三陽經과 足三陰經은 모두 左補右瀉이고 모든 逆行이라 한 것은 手三陰經과 足三陽經은 모두 左補右瀉이고 手三陽經과 足三陰經은 모두 左瀉右補이다.¹¹²⁾

③ 臟腑와 男女의 關係

「四難」의 주석서에 『難經本義』에서는 “呼出爲

107) 尹暢烈 外 1人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 183-184.
108) 尹暢烈 外 1人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 961.
109) 尹暢烈 外 1人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 220.

110) 尹暢烈 外 1人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 222.
111) 尹暢烈 外 1人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 222-223.
112) 尹暢烈 外 1人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 224-225.

陽 吸入爲陰이니 心肺爲陽 腎肝爲陰은 各以部位之高下而應之也라”고 하였고, 『難經集註』에서는 “呂曰 心肺在膈上하야 臟中之陽이라 故呼其氣出하고 腎肝在膈下하야 臟中之陰이라 故吸其氣入하고 脾者是 中州라 主養四臟故로 曰呼吸以受穀氣라”¹¹³⁾고하여 上下로 보았을 때 心肺는 陽으로 天이므로 男子이며, 肝腎은 陰으로 地이므로 女子이다. 여기에 대하여 本 論文의 ‘全體的인 男女의 差異’중 ‘男女의 構造’에서 詳述하였다.

「九難」에 “數者是 府也오 遲者是 藏也며 數則爲熱이요 遲則爲寒이며 諸陽爲熱이요 諸陰爲寒이라”¹¹⁴⁾고 하여 男子는 五臟을 위주로 사니 脈이 느리고 몸이 寒하다. 女子는 六腑를 위주로 사니 脈이 빠르고 몸이 뜨거운 것이 正常이다. 男子가 五臟을 위주로 女子가 六腑를 위주로 산다는 것에 대해 本 論文의 ‘全體的인 男女의 差異’중 ‘男女의 構造’에서 詳述하였다.

命門의 機能에 대해 「三十六難」과 「三十九難」에 모두 “命門者 精神之所 舍(先天之生) 原氣之所 繫(後天之長)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後代之傳)라”¹¹⁵⁾하여 남자에서는 精을 보관하는 것이고, 여자에 있어서는 子宮을 관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第三十七難」에서는 五臟과 七竅의 關係 및 陰陽氣血의 生理病理를 說明하였는데 『靈樞·脈度』 五臟의 氣는 頭面에서는 七竅와 通하고 있다. 陰經의 氣는 五臟을 運行하고 陽經의 氣는 六腑를 運行하여 氣가 五臟六腑에서 循環하기를 쉬지 않고 한다. 男子는 五臟을 위주로 사니 陰經를 運行하고 女子는 六腑를 위주로 사니 陽經을 運行한다.¹¹⁶⁾라고 하였다.

(考察)

『難經』에서는 주로 脈과 鍼灸 五臟六腑에서의

男女의 差異를 밝혔다.

① 男女의 脈의 差異「十九難」에서 男女의 正常脈과 反常脈을 비교하였으니 먼저 平脈의 脈象에 대해 男子는 寸脈을 爲主로 하여 尺脈이 항상 寸脈에 比하여 조금 弱하고 女子는 尺脈을 爲主로 하여 尺脈이 항상 寸脈보다 盛하니 이는 正常脈으로 病이 없는 脈象이다. 따라서 病脈의 脈象은 만약 男子가 女子의 脈이 나오면 즉 寸脈이 도리어 尺脈에 비해 弱하면 주로 不足한 虛證으로 病이 內臟에 있는 것이고, 만약 女子가 男子의 脈이 나오면 즉 寸脈이 尺脈에 比하여 盛하면 主로 太過의 實證이 있고 病이 四肢에 있으며, 또한 左脈에서 나오면 病이 左側에 있고 右脈에서 얻으면 病이 右側에 있다.

② 難經의 鍼刺補瀉法에 특히 迎隨補瀉¹¹⁷⁾에서 十二經의 經氣는 모두 手足末端의 井穴에서 分出하여 榮 俞 經 畝를 따라 臟腑로 향한다. 營氣가 十二經脈에 流注하는 方向은, 手三陰經은 從胸走手하고 手三陽經은 從手走頭하고 足三陽經은 從頭走足하고 足三陰經은 從足走胸한다. 宗氣 營氣 衛氣가 함께 行하는 氣는 男女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뉘어 서로 다른데 男子는 오전에 먼저 左側經脈을 循行하고 뒤에 右側經脈을 逆行하여 모두 二十五度를 行하고 男子는 午後에 먼저 右側經脈을 循行하고 뒤에 左側經脈을 逆行하여 二十五度를 行한다. 女子는 午前午後가 男子와 서로 反對이다.

③ 臟腑와 男女의 關係에서 「四難」에 “呼出은 心與肺오 吸入은 腎與肝이요 呼吸之間은 脾受穀味也니 其脈在中이라 浮者는 陽也오 沈者는 陰也니 故로 曰 陰陽也니라”¹¹⁸⁾고 하였으니 上下로 보았을 때 心肺는 陽으로 男子이며, 肝腎은 陰으로 女子이다. 「九難」에 “何以別知藏府之病耶아 然이라 數者是 府也오 遲者是 藏也며 數則爲熱이요 遲則爲寒이며 諸陽爲熱이요 諸陰爲寒이라 故로 以

113) 尹暢烈 外 1人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 269.

114) 尹暢烈 外 1人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 306.

115) 尹暢烈 外 1人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 192.

116) 尹暢烈 外 1人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 626.

117) 尹暢烈 外 1人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 222.

118) 尹暢烈 外 1人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 266.

別知藏府之病也니라”¹¹⁹⁾라고 하여 男子는 五臟을 위주로 사니 脈이 느리고 몸이 寒하다. 女子는 六腑를 위주로 사니 脈이 빠르고 몸이 뜨거운 것이 正常이라고 하였다.

(4) 『醫學入門』에 나타난 男女의 差異

先天圖

“學易而後에 可以言醫니 …… 元理 元氣 渾合無間而已矣니 生天 生地 生人 生物이 皆由此造化하여 以爲之主也니라”¹²⁰⁾

後天圖

“人之百病이 皆由水火不交라 故로 以後天坎離로 繼之라 血은 屬水하고 氣는 屬火하니 血陰而氣陽也라 離中之虛에 眞陰이 存焉하고 坎中之滿에 眞陽이 寓焉하니 陰陽虛實之機에 醫道는 思過半矣니라”¹²¹⁾

女子는 血을 爲主로 살고 男子는 精氣를 爲主로 살아가다. 이와 같이 사람은 男女로 나뉘고, 醫學은 男女가 있음으로 시작된다.

原道統說

“陽之精者는 爲日하야 東升而西墜하고 陰之精者는 爲月하야 夜見而晝隱하니 兩儀立矣요 …… 惟人之生이 得天之正氣하야 頭圓은 象天하고 足方은 象地하야 天有陰陽에 人有氣血하고 天有五행에 人有五臟이라”¹²²⁾

天真節解

“腎者는 主水하야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하니 故로 五臟이 盛이라야 乃能瀉라(五臟이 各有精하야 隨用而灌注於腎하니 此는 乃腎이 爲都會關司之所요 非腎의 一臟이 而獨有精이라 故로 曰 五臟이 盛이라야 乃能瀉也라) 今五臟이 皆衰하며 筋骨이 懈惰하고 天癸盡矣라 故로 髮鬢이 白하고 身體

重하며 行步不正而 無子耳니이다. 帝曰有其年已老而有子者는 何也오? 岐伯曰 此는 天壽過度하야 氣脈의 常通而腎氣有餘也라 此雖有子나 男不過盡八八하고 女不過盡七七하야 而天地之精氣皆竭矣니이다.(雖老而生子라도子壽도 亦不能過天癸之數라)”¹²³⁾

奇經八脈

“督脈은 起自下極俞하야 並於脊裏上風府하고 過腦額鼻入斷交하며 爲陽脈海都綱要라 (督之爲言은 都也니 陽脈의 都會요 男子之主라) 任脈은 起於中極底하야 上腹循喉承漿裏하니 陰脈之海라 妊所謂 (生養之源이니 女子之主라) …… 督病則脊強而折厥이라 任病則男疝而女帶瘦하고 帶病則腹脹滿而腰溶溶이라 其衝任二經은 是又婦人의 乳血月候所從出이니 (男女之異는 正在此處라)”¹²⁴⁾

臟腑總論

臟者는 藏平也니 藏諸神而精氣流通也요 腑者는 府庫也니 出納轉輸之謂也라 素問에 曰 五臟者는 藏精氣而不瀉라 故로 滿而不能實하고 六腑者는 傳化物而不藏이라 故로 實而不能滿이니 所以然者는 水穀이 入口則胃實而腸虛하고 食下則腸實而胃虛라 故로 曰 實而不能滿하며 滿而不能實也라 難經에 曰 呼出은 心與肺요 吸入은 腎與肝이요 呼吸之間에 脾受穀味라하니 言心肺는 在上爲陽하고 肝腎은 在下爲陰호대 脾居中州而播敷四臟하야 以爲一身之運幹也라 又曰 五臟六腑皆相近이 心肺獨與大腸小腸으로 相遠者는 何也오? 經에 曰 言心榮肺衛하야 通行陽氣라 故로 居在上하고 大小腸은 傳陰氣而下라 故로 居在下니 所以相去而遠也라 觀素難所論하니 臟腑를 分陰分陽而脾胃는 其中之太極矣乎저 ……

此事難知 以主病要略으로 言之하면 三陰之脈은 榮於臟하고 三陽之脈은 榮於腑하야 陰陽이 和而無關格之患이로대 有五臟이 不和則氣滯而爲九竅不通하고 六腑不和則榮聚而爲癰疽니

119) 尹暢烈 外 1人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p. 306.

120)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4.

121)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4.

122)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39.

123)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43- 45.

124)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94-96.

九竅는耳目口鼻爲陽七竅요 大小便이爲陰二竅라 …… 五臟而不和則榮衛不通하야 邪氣不得外泄이라 故로 九竅壅滯니 九竅既滯則六腑陽氣亦不得通和於內하야 內外不通故로 有結爲癰疽瘡癤이니라¹²⁵⁾

臟亦有六者는 謂腎有兩臟하야 左爲腎하고 右爲命門이니 命門者는 精神之所舍也라 男以藏精하고 女以繫胞하야 其氣與腎으로 相通故로 言臟亦有六也라

華氏 謂自喉嚨以下 六臟은 以應天氣하니 肺之系也요 自咽門已下六腑는 以應地氣하니 胃之系也니 前喉內氣요 後咽內食이라하니¹²⁶⁾

女子不月은 多因勞極 驚悸 暴憂 思慮로 以致心氣不足而後에 血滯不行이니 不治其血而通其心이 可也라

小腸者는 受盛之官이니 化物이 出焉이라 凡胃中腐熟水穀이 …… 自小腸下口로 泌別清濁하야

小腸은 與心相應하니 所以로 臍輪으로 能知冷煖이오 常人은 二便이 由心所主로대 病則不能從令이니라

心虛가 入小腸者는 神魂이 恍惚狂亂하며 夢中遺精하며 男子는 赤白濁 婦人은 赤白帶或 陰中瘡瘍 隱曲不利니 皆宜清上固下요 未可以大寒大熱로 峻攻也니라¹²⁷⁾

肝藏血故로 血海니¹²⁸⁾

榮衛는 雖主於肺나 而其流行則又主於膽也라 膽候咽門故로 食休者는 胃移熱於膽이니

熱則多眠하고 虛則不眠하야¹²⁹⁾ 羸瘦者는 能食호대 不生肌膚니 乃大腸이 移熱於胃니 亦名食易이라¹³⁰⁾

經에 曰 凡十一臟은 皆取決於膽이라 하니 蓋風寒은 在下하고 燥熱은 在上하고 濕氣는 居中호대 火獨流行其間하야 以主榮衛而不息하니 …… 故로 曰 中正之官이니 決斷出焉이라 하니¹³¹⁾

脾氣壯則能磨消水穀하야 以榮養四臟이니라

前陰은 乃太陰陽明之所舍이니 胃既不和則精氣竭而四肢不榮矣라 醉飽入房則氣聚脾中不得散하야 酒氣與穀氣로 相薄하야 熱盛於中故로 遍於身하며 內熱而溺赤也라

胃는 太倉이니 俗呼爲肚라 (無所不容이 若倉庫然이라)氣通於口而脈息은 主라 五味入口하면 臧於胃하야 以養五臟氣하고 氣口도 亦太陰이라 是以로 五臟六府之氣味皆出於胃하야 變見於氣口니라 氣口는 在手魚際之後 所候脈動者 是니 手太陰脈氣의 所行이라

清升降濁은 六腑大源이요 食化飲消에 五臟이 安堵라. 胃中清氣升則濁氣降하고 飲食이 消化則 百病이 不生하며 五臟이 調和하야 安然如堵하리니 是는 胃主陽氣發生而 爲六腑之大源이라¹³²⁾

肺系喉管而爲氣之宗이요 形似人肩而爲臟之蓋라

合皮榮毛니 鼻應於外라 肺主皮毛하야 上榮於眉하고 開竅於鼻라

肺主氣하니 虛則呼吸에 少氣不足以息하며 小便을 頻數或遺하고 …… ¹³³⁾

大腸은 爲傳道之官이니 變化出焉이라 大腸 外應在皮而氣血津液과 燥潤不均이라 肺應皮하니 腹皮厚者는 大腸이 厚하고 皮薄者는 大腸이 薄이오 皮緩하야 腹裏가 大者는 大腸이 大而長하고 皮急者는 大腸이 急而短이오 皮滑者는 大腸이 直하고 皮肉이 不相離者는 大腸이 結이라 氣血 津液이 調和則大便이 亦調나 燥熱則便堅而澁하고 寒濕則便潤而利니라¹³⁴⁾

腎有兩枚하니 左屬水而右屬火하고 …… 右主女而左主男이라 男以左腎으로 爲主하고 女以右腎으로 爲主니라 納氣收血 化精而爲封藏之本이오

腎藏志하니 意之所存者를 謂之志니 精完則志壯하고 志壯則精益完이라 故로 曰精志라 하니니 自相隨면 造無爲有하고 男女交構면 造化形容이라

125)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97-98.
126)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100-101.
127)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103-105.
128)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107.
129)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108.
130)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110.

131)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101.
132)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109-111.
133)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113-115.
134)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116-117.

經에 曰 作強之官이니 伎巧出焉이라 하니 言精志完이라야 而強於作用也라 又男曰作強이라하고 女曰伎巧라 하니라. 候在腰而充骨填髓하고 腎之候는 在腰하고 其充은 在骨하고 諸髓는 皆屬於腦로대 而腎實主之라 竅於耳而榮髮駐顏이라 鬚髮과 顔面은 皆督脈所絡이니 陽精이 盛하야 注於外則鬚髮이 榮盛하며 面體光潤이니라

腎風은 多汗 惡風 面浮 目視眩暈 無所見이오 若腹有水氣則目下亦腫이니 名曰 風水니 不能偃臥하며 偃則咳出清水니라 男子의 身重難行 尿黃과 女人의 月事不行을 俱謂之隱曲不利니 風盛者는 膝脛이 攣急하야 不能久立하리라¹³⁵⁾

膀胱은 以虛受水하니 爲津液之府라 有上竅而無下竅하고 得氣海之氣하야 施化則洩便이 注瀉하고 氣海之氣가 不足則秘隱不通이니라. 透絕頂也하야 司升降之消息하니 官號州都라. 經에 曰 州都之官이니 津液을 藏焉이라하니라. 應在毛髮하고 系通心肺하니 驗於皮骨하며 臟屬腎俞라

命門 配左腎以藏眞精하니 男女陰陽이 條分이오 命門은 爲配成之官이라 左腎은 收血 化精 運入하야 藏諸命門이라 男은 以此而藏精하고 女는 以此而系胞胎라 男子는 以氣爲主하야 坎水用事故로 蒸氣爲精而色白하니 如帶火者면 精亦能紅이오 女子는 以血爲主하야 離火用事故로 血盈爲經而色紅이니 如挾痰氣者면 經亦能白이라 女人은 屬陰하니 陰極則必自下而上衝故로 乳房이 大而陰戶縮이오 男子는 屬陽하니 陽極則必自上而垂下故로 陰物이 垂而乳頭가 縮야라 蓋陽은 無形하고 陰은 有質일세 男子는 內陽而外陰이오 女人은 內陰而外陽이라 男子는 背屬陽而腹屬陰하고 女人은 腹屬陽而背屬陰이라. 又男子는 督脈으로 主事하야 自背尾間로 行至斷交穴하야 止라 故로 血盛者는 感陽氣而鬚髮가 生이오 女子는 任脈으로 主事하야 自小腹으로 上行至咽喉而止라 故로 不上與陽으로 合而無鬚요 宦官은 去勢라¹³⁶⁾

三焦

三焦는 位寄膻中與血海하니 男女相共이라 膻中

은 則上焦요 血海는 則下焦니 男女가 均有此氣海하고 均有此血海하니 又名血室이라 乃榮衛停止之所요 經脈流會之處니 但男子則運而行之하야 無積而不滿호대 女人則停而止之하야 有積而溢下하야 爲月經이니라¹³⁷⁾

男女寅申을 莫浪驚하라

天之陽은 在南하고 而陰은 在北하니 男子는 面南而生於寅則 兩寸은 在南而得其陽하니 寸脈이 洪而尺脈이 弱者는 常也요 地之陽은 在北하고 而陰은 在南하니 女子는 面北而生於申則 兩尺이 在北而得其陰하니 寸脈弱而尺脈洪者는 常也라 陽強則陰弱은 天之道야니 反之者는 病이라 男得女脈은 爲不足이오 女得男脈은 爲太過라 左得之면 病在左하고 右得之면 病在右하니 男左女右者는 地之定位也라 蓋人은 立形於地故로 從地化하니 楚人의 尙左者는 夷道也라 故로 男子는 左脈이 強하고 而右脈은 弱하며 女子는 則右脈은 強하고 而左脈은 弱하며 天은 以陰으로 爲用故로 人之左耳目이 明於右耳目이오 地는 以陽으로 爲用故로 人之右手足은 強於左手足하니 陰陽의 互用也요 非反也라 凡男子의 診脈에 必先伸左手하고 女子의 診脈은 必先伸右手라 男子는 得陽氣多故로 左脈이 盛하고 女子는 得陰氣多故로 右脈이 盛이라 男子는 以左尺으로 爲精府하고 女子는 以右尺으로 爲血海하니 此는 天地之神化也니 所以別男女 決死生이라¹³⁸⁾

四時에 胃氣 爲之本이니

人之氣血은 春升夏浮秋降冬沈하야 應周天之常度하고 配四時之定序라 …… 故로 曰 四時에 以胃氣로 爲本이니 …… 男子는 左手重而氣口脈이 和하고 女子는 右手重而人迎脈이 和라야 亦爲有胃氣니라.¹³⁹⁾

老喜反脈하니(男年八八에 喜尺旺하고 女年七七에 喜寸旺이라)常細濡濇이라(濡는 氣虛요 濇은 血虛니 細濡濇은 多壽하고 弦緊洪은 多病이라)

凡婦人脈이 比男子에 更濡弱者는 常也니

137)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123.

138)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160-161.

139)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162.

135)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117-118.

136)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121.

男子는 尺脈이 虛數而寸이 沈微者는 爲勞요 女人은 寸脈이 虛數而尺이 沈微者는 爲勞라 勞者는 汗出潮咳하니 與男의 陰虛火動과 一般이라¹⁴⁰⁾

(婦人의 傷寒)은 與男으로 無異나 經來經斷을 名曰 (熱入血室)이요 仲景의 傷寒에 不分男女로대 但婦人은 以血爲主하니 血室은 卽衝脈血海라 男子는 有陽明而傷하고 婦人은 隨經而入이니라.¹⁴¹⁾

(考察)

『醫學入門』의 先天圖는 圓이고 後天圖는 離坎으로 말하였는데 先天圖에서는 男女가 나뉘지기 以前을 말하고 있으며, 後天圖에서는 離는 二陽一陰으로 坎은 二陰一陽으로 사실상 男女를 말하고 있다. 離는 血이고 坎은 氣를 말하고 있다. 離는 心을 의미하고 坎은 腎을 의미한다. “無形을 주장하는 乾坤과 有形을 주장하는 坎離, 곧 天地와 日月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陰陽五行의 理致로 인해 萬物이 生成되고 海와 달과 지구도 돌아가는 것이다.” 乾坤은 無形인 天地로 坎離는 男女로 有形이 나타나 男子는 海의 기운을 받은 坎으로 女子는 달의 기운을 받은 離로 生育의 根本이 되는 것이다. 『醫學入門』에서는 여러 部分에서 男女의 差異를 밝혔다.

(5) 『東醫寶鑑』에 나타난 男女의 差異

① 「身形門·先賢格言」

丹溪의 「色慾箴」에 “사람의 삶은 天地와 함께 한다. 坤道는 女가 되고 乾道는 男이 된다. 이들이 짝이 돼서 夫婦가 되니 낳고 기르는 것은 夫婦로부터 시작된다.”¹⁴²⁾

② 「氣門·用藥法」

『正傳』에 “男子는 陽이니 氣를 얻으면 흠어지기가 쉽고 女子는 陰이니 氣를 만나면 많이 울체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男子는 氣病이 적고 女子는 氣病이 많다. 治法은 女子는 血을 고르게 해서

氣를 소모시켜야 하고 男子는 氣를 고르게하여 血을 길러야 한다.”고 한 것이다.

『入門』에 七情이 모두 心에서 생기고 七氣가 모두 氣에 속한다. 氣는 陽이므로 움직이면 火가 된다. 그러므로 降火 化痰 消積 등을 나누워서 치료한다. 대개 氣가 虛하면 四君子湯을 쓰고 實하면 小烏沈湯을 쓰나 火가 많으면 黃連解毒湯을 합해 쓰고 痰이 많으면 二陳湯, 積이 많으면 平胃散을 합한다고 하였다.¹⁴³⁾

小烏沈湯은 香附子 烏藥 沈香 甘草¹⁴⁴⁾로 구성되어 있다. 香附子는 12經絡을 운행시키는 약이다.¹⁴⁵⁾

③ 「腎門」

㉠ 「腎門·腎形象」

왼쪽은 水에 屬하고 오른쪽은 火에 屬한다. 남자는 左腎을 위주로 하고 女子는 右腎을 위주로 한다.

㉡ 「腎門·腎臟有二」

왼쪽은 腎臟이고 오른쪽은 命門이다. 命門이란 것은 精神이 머물러 있는 곳이고 元氣와 관련된 곳이다. 男子는 여기에 精을 간직하고 女子는 이곳이 胞로 이어져 있다.¹⁴⁶⁾

④ 「胞門」

㉠ 「胞門·胞形象」

男子는 胞에 精을 저장하였다가 施化하고 婦人은 胞으로써 孕胎하는데 이것이 모두 낳고 기르는 根源이 된다.¹⁴⁷⁾

㉡ 「胞門·胞爲血室」

140)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174-175.

141) 李梴.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p. 288.

142)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29.

143)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79.

144)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75.

145)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門社. 1982. p. 487.

146)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261.

147)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294.

衝脈과 任脈이 모두 胞에서 일어나서 위로 벅속으로 올라가니 經絡의 바다가 된다. 『內經』에 “女子14세에 天癸가 이르러 任脈이 通하고 太衝脈이 旺盛해져 月經이 때맞추어 시작하므로 자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血室이란 피가 머무는 곳이고 榮衛가 멈추는 곳이며 經脈이 흘러 모이는 곳이니 衝脈을 말한다. 衝脈은 血海로서 모든 經脈이 흘러 모이는 곳이다. 男子는 이것을 運行시키고 女子는 이것을 머물게 한다. 男子는 運行시키므로 쌓이지 않아 가득 차지 않고 女子는 머물게 하므로 쌓여서 가득 차게 된다. 차있는 것이 때맞추어 넘치는 것을 信이라 하니 곧 月水를 말한다. 달이 차면 이지러지는 것을 본뜬 것이다.¹⁴⁸⁾

⑤ 「蟲門·勞瘵病證」

瘵病을 처음 얻어서 …… 男子는 腎으로부터 心에 전하고 心이 肺에 전하고 肺가 肝에 전하고 肝이 脾에 전하며 女子는 心으로부터 肺에 전하고 肺는 肝에 전하고 肝은 脾에 전하고 脾는 腎에 전하고 腎이 다하면 죽는다.¹⁴⁹⁾

⑥ 「耳門·耳聾」

左耳聾은 婦인에게 많이 있으니 忿怒가 많기 때문이요 右耳聾은 男子에게 많이 있으니 色慾이 많기 때문이다.¹⁵⁰⁾

⑦ 「乳門·男腎女乳가 性命의 根本이다」

男子는 腎으로 重을 삼고 여자는 乳로써 重을 삼으니 上下는 같지 않으나 性命의 근본이 되는 것은 한가지이다. 女人은 陰에 屬하니 陰이 極하면 반드시 아래로부터 上冲하는 고로 乳房이 크고 陰戶가 움츠러지는 法이요 男子는 陽에 屬하니 陽이 極하면 반드시 위로부터 下降하는 故로 陰莖은 下垂하고 乳頭는 움츠러지는 법이다.¹⁵¹⁾

148)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295.

149)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330.

150) 許浚, 윤석희 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552.

⑧ 「毛髮門」

㉠ 「머리카락·눈썹·구레나룻의 속한 곳」

남자는 腎氣가 外行하므로 위에는 수염이 나고 아래에 勢(불알)가 있으며 女子와 宦人은 勢가 없으므로 또한 수염은 없으나 眉髮은 男子와 더불어 다름이 없은즉 眉髮이 腎에 속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²⁾

㉡ 「婦인이 수염이 없는 이유」

婦人은 氣는 남음이 있어도 血이 부족하니 자주 脫血하는 일이 많으므로 衝 任脈이 口唇을 번영시키지 못하여서 수염이 나지 않는다.¹⁵³⁾

⑨ 「前陰門·前陰諸疾」

任脈의 病은 男子의 경우 안으로 뭉쳐 七疝이 되고 女子의 경우 帶下癥瘕積聚가 된다.¹⁵⁴⁾

⑩ 「天地運氣門·男政과 北政」

南北政의 경우 男子가 南面하여 氣를 받아 尺脈이 항상 弱하고 女子가 北面하여 氣를 받으므로 尺脈이 항상 盛하는 이치와 같은데 ……¹⁵⁵⁾

⑪ 「辨證門」

㉠ 「男女의 病因」

대체로 男子의 病은 반드시 房勞를 살펴야 하고 女子의 病은 먼저 月經과 孕胎의 與否를 물어야 한다.¹⁵⁶⁾

㉡ 「升降이 정상을 잃으면 병이 되는 경우」

陽病은 上行을 極해서 내리는 것이요, 陰病은

151)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679.

152)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805.

153)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805.

154)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815.

155)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892.

156) 許浚, (國譯增補)東醫寶鑑, 南山堂, 1995, p. 480.

下行을 極해서 오르는 것이니 …… 그러므로 上下가 升降해서 和順한 法이니 『易』에 가로되 “天道가 下濟하므로 光明하고 地道가 卑하므로 上行한다.”하였고 『難經』에 가로되 “氣는 煦해서 升하는 것을 주관하고 血은 濡해서 潤하는 것이라”하였으니 夫가 唱하면 婦가 따르고 氣가 운행하면 血이 따르는 것이니 氣란 것은 辛에 붙어서 寅에서 用事하며¹⁵⁷⁾

⑫ 「診脈門」

㉠ 「重한 病에는 반드시 太谿脈 衝陽脈을 본다」

『傷寒賦』에 이르되 “根이 있고 本이 있으니 반드시 太谿와 衝陽을 診찰하라 하였다. 대개 太谿는 足少陰腎의 經이니 男子는 右腎으로 命門을 삼고 女子는 左腎으로 命門을 삼는데 이것이 生死의 要가 되는 것이니 患者가 命門脈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다. …… ”¹⁵⁸⁾

㉡ 「男女老少의 異脈의 경우」

男左 女右란 것은 땅의 定位이니 대개 사람이 땅에서 形을 定했으므로 땅을 따라 和하는 법이다.

男子는 左脈이 强하고 右脈이 弱한데 陽氣를 많이 얻는 故로 左脈이 强하다. 그러므로 男子는 左脈으로써 精府를 삼는다. 肺는 氣를 主재하여 右에 居하니 男은 氣로써 主를 삼는 故로 男子가 右脈이 病들면 左에서 應당하는 것은 胃氣가 있기 때문이며 病이 비록 重態라도 다스릴 수가 있는 법이요

女子는 右脈이 强하고 左脈이 弱한 법인데 女子는 陰氣를 얻는 것이 많은 故로 右脈이 盛한 것이다. 女子는 右脈으로써 血海를 삼으니 이것이 天地의 神化이다. 女子가 左脈에 病들면 右에서 應당하는 것은 胃氣가 있기 때문이니 病이 비록 重態라도 다스릴 수가 있는 법이다

肺는 氣를 主재하여 右에 居하니 男은 氣로써

主를 삼는 故로 남자가 右脈이 病들면 左에서 應당하는 것은 胃氣가 있음으로써 病이 비록 重態라도 다스릴 수가 있는 법이요 心이 血을 主재하여 左에 居하니 女는 血으로써 主를 삼으므로 女가 左脈이 病들면 右에서 應당하는 것은 胃氣가 있음으로써 病이 비록 重態라도 다스릴 수가 있는 법이다.¹⁵⁹⁾

㉢ 「肥瘦長短異脈」

사람의 形體가 짧으면 脈이 또한 짧고 형체가 길면 脈이 또한 긴편인데 이것을 反하면 凶하다. 성질이 緩하면 脈이 또한 緩하고 성질이 急하면 맥이 또한 急한 편이다.¹⁶⁰⁾

㉣ 「風門·手足癱瘓」

半身不隨라는 것은 男女가 다 이 症에 걸리는데 男左女右를 忌하고¹⁶¹⁾

㉤ 「虛勞門·脈法」

虛와 寒이 부딪치는 것을 革脈이라고 한다. 이 경우 婦人은 流産이나 漏下가 있고 男子는 亡血이나 遺精이 있다.

男子의 久病에 氣口脈이 약하면 죽고 강하면 사는 법이며 女子의 久病에 人迎脈이 강하면 살고 약하면 죽는다.¹⁶²⁾

㉥ 「雜病門」

㉠ 「浮腫門·浮腫의 可治와 難治의 경우」

浮腫과 脹滿症이 男子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고 女子는 아래로부터 위로 오르는 症은 다스리기가 쉬운 症인데 오래되지 않는 症은 小便이 利하면 腫이 물러가고 喘이 定하면 낫는다.

남자가 다리밑으로부터 浮腫하여 올라가고 여

157) 許浚, 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926.

158) 許浚, 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937.

159) 許浚, (國譯增補)東醫寶鑑, 南山堂, 1995, p. 486.

160) 許浚, 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939.

161) 許浚, 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29.

162) 許浚, 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1252.

자가 머리로부터 浮腫하여 내려가는 症은 다 難治에 속한다.¹⁶³⁾

㉔ 「癰疽門·癰疽의 여러 가지 종류의 경우」

男은 腹部에서 많이 發하고 女는 乳部에서 많이 發한다.¹⁶⁴⁾

「癰疽門·癰疽輕重淺深之辨」

癰疽나 나쁜 멍울이 男子의 경우 좌측에 생기면 重하고, 女子의 경우 우측에 생기면 重하다.¹⁶⁵⁾

「癰疽門·肺癰의 경우」

肺癰의 證이 男子는 氣로써 主를 삼으니 걸리면 10에 2-3을 구하고 婦人은 血로써 主를 삼으니 10에 7-8은 구하는데 이것은 屢驗한 것이다.¹⁶⁶⁾

(考察)

『東醫寶鑑』에서는 氣門의 用藥法을 中心으로 여러 部分에서 一貫되게 男女의 差異를 밝혔다.

(6) 鍼灸學書籍에 나타난 男女의 差異 (鍼灸經驗方, 鍼灸大成, 鍼道源流重磨)

㉑ 朝鮮時代 宣祖 및 光海君의 兩朝를 歷任한 鍼灸의 名醫인 許任¹⁶⁷⁾의 『鍼灸經驗方·序文』에 “若論陰陽이면 則背爲陽하고 腹爲陰하며, 左爲陽하고 右爲陰하며, 外爲陽하고 內爲陰이오, 女子는 反是하여 背爲陰하고 腹爲陽하며, 左爲陰하고 右爲陽하며, 外爲陰하고 內爲陽也라”¹⁶⁸⁾라고 하여 男子와 女子는 反對로 보고 治療한다고 하였다.

左右에 있어 手는 右氣左血로 男子는 오른 손을 주로 쓰며 女子는 왼손을 주로 쓴다는 것은 本論의 ‘全體的인 男女의 差異’중 ‘體用과 主客의 問題’에서 밝힌 바가 있다. 『素問·金匱眞言論』에 “夫

言人之陰陽, 則外爲陽, 內爲陰. 言人身之陰陽, 則背爲陽, 腹爲陰”¹⁶⁹⁾이라 하였는데, 許任의 『鍼灸經驗方』에서는 男子는 그대로 보는데 女子는 이와 反對라고 보았다.

㉒ 『鍼灸大成』에 보면, 男女에 따라 다른 점을 살필 수 있다.

手足三陽은 手走頭而頭走足하고 手足三陰은 足走腹而胸走手하니 此는 言經絡의 陰升陽降과 氣血出入之機니 男女無以異니라¹⁷⁰⁾

大抵取穴之法은 必有分寸하니 先審自意하고 次觀肉分하야

此는 言取量穴法은 必以男左女右로 中指與大指를 相屈如環하야 取內側紋兩角이 爲一寸이라¹⁷¹⁾

凡欲行針須審穴이오 要明補瀉迎隨訣이라 胸背左右不相同하고 呼吸陰陽男女別이라

男子之氣는 早在上而晚在下하니 取之에 必明其理오 女子之氣는 早在下而晚在上하니 用之에 必識其時니라 午前爲早屬陽하고 午後爲晚屬陰이라 男女上下를 憑腰分之니 ……

原夫補瀉之法은 妙在呼吸手指하니 男子는 大指進前하야 左轉呼之爲補하고 退後하야 右轉吸之爲瀉하며 提鍼爲熱하고 插鍼爲寒하며 女子는 大指退後하야 右轉吸之爲補하고 進前呼之爲瀉하며 插鍼爲熱하고 提鍼爲寒이니 ……¹⁷²⁾

汗吐下法非有他라 合谷內關陰交枵라. 汗은 鍼合谷入二分하야 行九九數하고 搓數十次호대 男左搓하고 女右搓면 得汗이니 ……¹⁷³⁾

中指同身寸法 …… 男左女右手 中指第二節內庭兩橫紋頭相去 爲一寸이니 ……¹⁷⁴⁾

163) 許浚·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1422.

164) 許浚·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1532.

165) 許浚·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1534.

166) 許浚·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1582.

167) 김두중. 韓國의학사. 서울. 탐구당. 1975. p. 328.

168) 許任. 鍼灸經驗方. 서울. 杏林書院. 1965. p. 2.

169) 裴秉哲 譯. 今釋 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94. p. 77.

170)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42.

171)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46.

172)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54-56.

173)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81.

174)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100.

凡鍼背腹兩邊穴엔 分陰陽經補瀉니 鍼男子背上中行은 左轉이 爲補오 右轉이 爲瀉며 腹上中行은 右轉이 爲補오 左轉이 爲瀉며 女人背中行은 右轉이 爲補오 左轉이 爲瀉며 腹中行은 左轉이 爲補오 右轉이 爲瀉니 蓋男子는 背陽腹陰이오 女子는 背陰腹陽故也니라.¹⁷⁵⁾

男子陽經은 午前엔 以呼爲補吸爲瀉하고 陰經은 以吸爲補呼爲瀉하며 午後는 反之오 女人陽經은 午前엔 以吸爲補呼爲瀉하고 陰經은 以呼爲補吸爲瀉오 午後는 亦反之니라.¹⁷⁶⁾

又云男子는 午前은 提鍼爲熱하고 插鍼爲寒하며 午後提鍼爲寒하고 插鍼爲熱이라하며 女人은 反之라 하니 其故는 何耶아 蓋提插補瀉는 無非順陰陽也니 午前은 順陽性하야 提至天部則熱하고 午後는 順陰性하야 插至地部則熱이니 奇效良方에 有詩最明하니라.¹⁷⁷⁾

補瀉一段은 …… 又曰凡刺者는 必別陰陽하고 再考難經圖註及徐氏云左與右不同하고 胸與背有異然後에 知其源流有自니 蓋左는 爲陽 爲升 爲呼 爲出 爲提 爲午前 爲男子之背오 右는 爲陰 爲降 爲吸 爲入 爲插 爲午後 爲男子之腹이니 所以女人反此者는 女屬陰하고 男屬陽이라 女人은 背陰腹陽이오 男子는 背陽腹陰이니 天地男女陰陽之妙 | 自然如此니라.¹⁷⁸⁾

凡用鍼之時에 須然運入五分之中하야 行九陽之數하고 其一寸者는 卽先淺後深야니 若得氣어든 便行運鍼之道라 運者는 男左女右로 漸漸運入一寸之內하야 三出三入하고 慢提緊按이니 …… 179)

子午前後交經換氣歌

子後要知寒與熱이니 左轉爲補右爲瀉오 提鍼爲

熱插鍼寒이니 女人反此要分別이라 午後要知寒與熱인댄 右轉爲補左爲瀉오 順則爲左逆爲右니 此是神仙眞妙訣이라

左轉爲男補之氣오 右轉却爲瀉之記니라 女人返此不爲眞이니 此是陰陽補瀉義라

男子補虛呵外轉이오 吸來內轉瀉實肥라 女人補虛呵內轉이오 吸來外轉瀉實肥라¹⁸⁰⁾

問經絡하노라

答曰經脈十二와 絡脈十五 | 外布一身하야 爲血氣之道路也오 其源이 內根於腎하니 迺生命之本야라 根在內而布散於外하야 猶樹木之有根本하니 若傷其根本則枝葉이 亦病矣오 苟邪氣自外侵之하야 傷其枝葉則亦累其根本矣니 或病發內生則其勢必然故로 言五臟之道는 皆出經隧하야 以行血氣하니 經爲正經이오 絡爲支絡이라 血氣不和하면 百病乃生하고 但一經精氣不足이면 便不和矣라 故로 經에 曰邪中於陽則溜於經하야 自面與頸則下陽明하고 自項與背則下太陽하고 自頰與脇則下少陽하며 邪中於陰則溜於腑하야 自四末臂胫始而入三陽이면 臟氣實而不能容故로 滯之於腑라하니 腑者는 謂膽胃膀胱大小腸也라 故로 刺各有其道焉하니 鍼下에 察其邪正虛實하야 以補瀉之하고 隨其經脈榮衛하야 以迎隨之니 其道皆不有違也라 凡中外之病은 始自皮膚로 血脈相傳하야 內連臟腑則四肢九竅 | 壅塞不通이니 內因之病은 令氣盛衰하고 外連經絡則榮衛傾移하야 上下左右虛實이 生矣니 經에 云 風寒은 傷形하고 憂恐忿怒는 傷氣하니 氣傷臟이면 乃病臟하고 寒傷形이면 乃應形하고 風傷筋이면 乃應筋이라 하니 此는 形氣內外之相應也니라 外具陰陽하고(筋骨爲陰 皮膚爲陽) 內具陰陽(五臟爲陰 六腑爲陽)이니라

問子午補瀉하노라

答曰此乃宣行榮衛之法也니 故로 左轉從子는 能外行諸陽이오 右轉從午는 能內行諸陰이라 人身則陽氣受於四末하고 陰氣受於五臟일새 亦外陽而內陰也니 左轉從外는 則象天이오 右轉從內는 則象地오 中提從中은 則象人이라 一左一右一提는 則

175)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114.
176)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116.
177)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118.
178)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122.
179)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126.

180)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130, 131.

能使陰陽內外之氣로 出入與上下에 相參往來하야 而榮衛自流通矣니라 男子는 生於寅하니 寅은 陽也라 以陽爲主故로 左轉順陽이 爲之補하고 右轉亦陽이 爲之瀉오 女子는 生於申하니 申은 陰也라 以陰爲主故로 右轉順陰이 爲之補오 左轉逆陰이 爲之瀉니 此는 常法也라.

問候氣之法何如하노라

答曰用鍼之法은 候氣爲先이니 …… 更不至者는 用男內外之法하야 男은 卽輕手按穴하야 謹守勿內하고 女는 卽重手按穴하야 堅拒勿出이니 所以然者는 持鍼居內는 是陰部오 持鍼居外는 是陽部니 …… 181)

言入皮三分이면 心肺之部니 陽氣所行이오 入皮五分이면 腎肝之部니 陰氣所行이라 하니(取象三天兩地之數)

問能知迎隨之氣하야 加令調之하노라

答曰迎隨之法은 因其中外上下病道遙遠而設也니 是故로 當知榮衛內外之出入과 經脈上下之往來라야 乃可行之라 天榮衛者는 陰陽也니 經에 言陽受氣於四末하고 陰受氣於五臟이라하니 故로 瀉者는 先深而後淺하야 從內引持而出之오 補者는 先淺而後深하야 從外推內而入之니 乃是因其陰陽內外而進退鍼耳로대 至於經脈하야는 爲流行之道하야182)

肥人은 內虛하니 要先補後瀉하고 瘦人은 內實하니 要先瀉後補니라183)

經에 曰 鍼刺는 治其外하고 湯液은 治其內라 하니

天部皮膚肌肉人이오 地部筋骨分三截이라 衛氣逆行榮順轉하고 夏淺冬深肥瘦別이라184)

任脈經血歌

此經은 …… 脈起中極之下하야 …… 名曰陰脈

181)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134-136.

182)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139-141.

183)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142.

184)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143-144.

之海焉이라 用藥에 當分男女니 月事는 多主衝任이오 是任之所言은 妊也니 乃婦人生養之本이오 調攝之源이라 督則由會陰而行背하고 任則由會陰而行腹하니 人身之有任督이 猶天地之有子午也라 人身之任督은 以腹背言이오 天地之子午는 以南北言이니 …… 185)

奇經八脈歌

任脈 其爲病也는 苦內結하야 男子는 爲七疝하고 女子는 爲瘦聚니 ……

陽蹻脈 男子는 數其陽하고 女子는 數其陰이라 陰蹻脈 女子는 以之爲經하고 男子는 以之爲絡하니라186)

孫真人鍼十三鬼穴歌

曰邪顛狂所爲病 鍼有十三穴須認 凡鍼之體先鬼宮 次鍼鬼信無不應 一一從頭遂一求 男從左起女從右 …… 十一鍼鬼藏은 男卽會陰 女卽玉門頭니 …… 男子는 先鍼左起하고 女人은 先鍼右起라187)

騎竹馬灸穴法

此二穴은 專治癰疽 惡瘡 發背 癩毒 瘰癧 諸瘋一切病症이니 先從男左女右臂腕中橫紋起하야 用薄蔑一條하야 ……

灸勞穴法

資生經에 云久勞는 其狀이 手脚心熱 盜汗 精神困頓 骨節疼痛 初發咳嗽 漸吐膿血 肌瘦面黃 減食少力이니 令身正直하고 用草하야 於男左女右에 自脚中指尖으로 量過脚心下하야 ……

取灸心氣法

先將長草一條하야 比男左女右手掌內大拇指根橫紋量起하야 至甲內止하야 以墨點記하고 …… 188)

185)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253.

186)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267-268.

187)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341.

灸腸風下血法

取男左女右手中指為準하야 於尾間骨尖頭에 從中倒比하야 …… 189)

小兒에 있어 男子左手正面圖와 背面圖 女子右手正面圖와 背面圖로 男女를 다르게 진찰하였다. 保嬰神術¹⁹⁰⁾

小兒三關六筋脈紋斗肘圖

斗肘圖에 男左手女右手 各穴圖에 男右脚 女左脚로 되어 있다. 保嬰神術

三關脈紋形色及主病主治

風關易治 氣關難治 命關死候 直透者死 左手應心肝 右手應脾肺(男主左 女主右)¹⁹¹⁾

外八段錦

先望孩兒眼色靑하고 次看背上冷如水하라 陽男搖左無妨事오 右搖令人甚可驚이라

女搖右邊猶可治나 若逢搖左疾非輕이라 歪邪口眼終無害니 縱有仙丹也莫平이라

八門歌

五指梢頭冷이면 驚來不可安이오 若逢中指熱이면 定定見傷寒이오 中指獨自冷이면 麻痘症相傳이니 女右男分左하야 分明仔細看하라

三關要訣手訣

三關者는 手指指三節也니 初節이 爲風關 寅位오 二節이 爲氣關 卯位오 三節이 爲命關 辰位니라 夫小兒初生에 五臟血氣未定하고 呼吸至數太過니 必辨虎口色脈이라야 方可察病之的要라 男以左手驗之하고 女以右手驗之니 蓋取左手는 屬陽이라 男以陽爲主하고 右手는 屬陰이라 女以陰爲主나 然이나 男女一身이 均具此陰陽하니 左右兩手를 亦須參看이니라 左手之紋은 應心肝하고 右手之紋

은 應脾肺하니 於此消息하야 又得變通之意니라¹⁹²⁾

手法治病訣 手訣

〔三關〕 凡做此法은 先掐心經點勞宮이니 男은 推上三關이 退寒加暖이니 屬熱이오 女는 反此하야 退下 爲熱니라

〔六府〕 凡做此法은 先掐心經點勞宮이니 男은 推下六府 退熱加涼이니 屬涼이오 女는 反此하야 推上이 爲涼也니라¹⁹³⁾

掐足訣

凡掐은 (男左手右足 女右手左足)

〔湧泉穴〕 은 治吐瀉니 男左轉揉之면 止吐하고 右轉揉之면 止瀉니 女는 反之니라¹⁹⁴⁾

諸穴治法

〔陽谿穴〕 을 往下推拂이면 治小兒瀉니 女子는 反之니라

嬰童雜症

〔潮熱〕 은 方不拘口內生瘡과 五心煩熱하고 將吳茱萸八分燈心一束하야 和水搗爛成一餅하야 貼在男左女右脚心裏住하고 退藥後에 推三關十下니라¹⁹⁵⁾

(考察)

楊繼州가 編纂한 『鍼灸大成』은 家傳된 『衛生鍼灸玄機秘要』를 基礎로 하고 다시 群書를 모았으며, 아울러 『素問』 『難經』을 宗主로 하여 綜合編輯한 것이다. 이 冊은 過去에 鍼灸에 關聯있는 文獻을 널리 搜集하였으므로 鍼灸를 工夫하는 者의 必讀의 書가 되고 있다.¹⁹⁶⁾ 『鍼灸大成』에서는 처음

188)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344-345.

189)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346.

190)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366.

191)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370-371.

192)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376-377.

193)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378-379.

194)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382.

195) 楊繼州原著, 李泰浩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p. 390.

196) 洪元植 外 1人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p. 390.

穴자리를 測定하는 方法에서부터 鍼의 手技方法 등 여러 部分에서 男女에 따라 다르게 治療하는 것을 밝혔다.

㉔ 韓醫師 李炳幸이 『鍼灸大成』을 취사선택하여 평이하게 註解한 『鍼道源流重磨』에 나타난 男女에 대한 部分을 살펴보자.

第2篇 補瀉手技篇 第四章 鍼規習規 第1節 下鍼 16法에 五曰 進者는 大凡得氣치 못할 時 男外女內者와 男子는 鍼을 拇指前進(外撚)하면서 박고, 女子는 拇指를 後退(內撚)하면서 박는 것과 …… 197)

第3篇 鍼灸要訣篇 第18節 終始論(靈樞終始第九) (16)에 神氣와 精氣를 統一함은 行鍼의 重要한 條件이 되는 것이니 人聲을 不聞해서(耳屬腎하니 聞聲한즉, 腎精이 疲勞) 精氣를 收集하고, 神氣를 行鍼에 全一해서 淺刺後에 久留하고, 微而浮之(毫鍼으로 淺刺함)하여 病者의 神氣를 돌려서 氣가 至 하거든 止鍼한다. 그러므로 男內하고 (男陽은 在外하고 使之內하니 從陽引陰함 卽先淺後深刺하고) 女外하여(女陰은 內在하니 從陰引陽함 卽先深後淺刺한다) 精氣를 勿出케 堅拒하고 邪氣가 勿入하도록 謹守하는 것이 得氣가 되는 것이다.¹⁹⁸⁾

第二十四節 汗吐下三法(醫學入門 鍼灸篇)

一. 汗法은 合谷에 鍼을 二分 刺入한 후 九陽數로 補하기를 數十次하되 男子는 左撚하고 女人은 右撚해서 汗出하거든 瀉法을 써서 止汗케하되 身溫해지거든 出鍼한다. 만약에 汗이 不至하면 陰市와 合谷을 補한다.

二. 下法은 男左女右로 三陰交에 鍼入三分하고 …… 199)

第三章 古典의 灸法指南

第7節 灸疝忤(治尸疝 客忤 中惡等症) 乳後三寸을 男左女右로 灸之거나 或灸兩大拇指頭니라.

第8節 灸疝痛(治偏墜) 又法은 取足大指次指下

中節橫紋當中을 男左女右로 灸하면 兼治諸氣心腹痛 外腎吊腫 小腹急痛이니라.

第10節 灸腸風諸痔 灸腸風下血法 男左女右의 手中指長을 爲準하되(中指의 長) ……

第14節 灸勞穴法 資生經에 云하되 灸勞는 其狀이 手脚心熱 盜汗 精神困頓 骨節疼痛 初發欬嗽 漸吐膿血 肌瘦面黃 減食少力이니 令身正直하고 用草하여(노끈) 男左女右로 自脚中指尖으로(足中指 끝에서) …… 200)

第18節 騎竹馬灸穴法(專治癰疽 惡瘡發背 癰毒瘰癧 諸瘋 一切病症) 此二穴은 男左女右로 …… 201)

第四章 古典의 穴道指南 第一節 標幽賦(10) 手足三陽은 手走頭而頭走足하고 手足三陰은 足走腹而胸走手하니 이것은 經絡의 陰은 升하고 陽은 降함과 氣血이 出入하는 機微니 男女가 같다.(經絡의 行方)

第五章 諸子의 穴道 第一節 金針賦

一. 鍼道捷法을 보면 最奇하니 補瀉를 明確히 해서 危急한 病者를 救濟할지니라. 病의 上下를 先分하고 나서 穴의 高低를 定할 것이니 頭部에 病이 있으면 足에서 取하고 左病은 右에서 取하며 男子의 氣는 午前에는 上에 있고 午後에는 下에 있으니 取穴時에는 그의 理致에 明白하여야만 하고, 女子의 氣는 午前에는 下에 있고 午後에는 上에 있으니 行鍼할 時는 그의 時를 잘 識別해야만 한다. 午前은 未가 되니 陽에 屬하고 오후는 晚이 되니 陰에 屬하며 男女上下는 腰部를 중심으로 해서 分別하니 手足三陽經은 手走頭而頭走足하고(手之三陽經은 從手走頭하고 足之三陽經은 從頭走足), 手足三陰經은 足走腹而胸走手라(足之三陰經은 從足走腹하고 手之三陰經은 從胸走手) 陰은 升하고 陽은 降하는 出入之機니 則 陰升陽降하는 出入之機를(樞會發動所由인 竅)이니 逆理하는 者는 爲瀉爲迎이 되고 順理하는 者는 爲補爲隨가 된

197) 李炳幸. 鍼道源流重磨. 考試研究院. 1985. p. 43-44.

198) 李炳幸. 鍼道源流重磨. 考試研究院. 1985. p. 99.

199) 李炳幸. 鍼道源流重磨. 考試研究院. 1985. p. 106-107.

200) 李炳幸. 鍼道源流重磨. 考試研究院. 1985. p. 117-119.

201) 李炳幸. 鍼道源流重磨. 考試研究院. 1985. p. 121.

다.²⁰²⁾

(考察)

實際 臨床을 하는 韓醫師의 경우에서도 男女의 差異에 따라 鍼灸의 方法을 달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處方으로 살펴 본 男女의 差異

『醫學正傳·諸氣』에 “內經曰：百病皆生于氣也，故怒則氣上，喜則氣緩，悲則氣消，恐則氣下，寒則氣收，炅則氣泄，驚則氣亂，勞則氣耗，思則氣結。²⁰³⁾ 夫人身之正氣，與血爲配，血行脈中，氣行脈外，一呼脈行三寸，一吸脈行三寸，氣血并行，周流乎一身之中，灌溉乎百骸之內，循環無端，運氣不悖，而爲生生不息之妙用也。經曰：一息不運則機緘窮，一毫不續則穹壤判。若內無七情之所傷，外無六淫之所感，何氣病之有哉。其不善攝生者，五志之火無時不起，五味之偏無日不傷，是以釀成膠痰固積，留滯于六腑，郁火邪氣，充塞乎三焦，使氣血失其常候，腑臟不能傳導，是故外邪得以乘虛而透襲矣。以致清陽不升，濁陰不降，而諸般氣痛，朝輟暮作，而爲膠固之疾，非良工妙手莫易治焉。若夫爲脇痛，爲心腹痛，爲周身刺痛，甚則爲反胃，爲膈噎等證，卽此之由也。大抵男子屬陽，得氣易散，女人屬陰，遇氣多郁，是以男子之氣病者常少，女人之氣病者常多。故治法曰婦人宜調其血以耗其氣，男子宜調其氣以養其血，此之謂也。學者宜致思焉”²⁰⁴⁾이라 하여 모든 病이 氣에서 생기는데, 이러한 氣病은 怒喜悲恐驚과 寒熱과 精神과 肉體의 過勞로 오며, 사람의 正氣는 血과 더불어 짝이 되어 온 몸을 運行한다고 하였다. 攝生에 있어서 五志의 火를 다스리지 못하고 五味의 偏僻됨에 날마다 傷한데다가 外邪의 侵犯을 받아 清陽이 上升하지 못하고 濁陰이 下降하지 못하여 人體의 循環이 순조롭지 못하여서 모든 氣痛이 痼疾病이

된다고 하였다.

『素問·至真要大論』에 “病機에 모든 氣가 鬱滯하는 것은 肺에 屬한다.”²⁰⁵⁾고 하였고, 東垣은 “氣는 精과 神의 토대로 氣는 神의 祖이고, 精은 氣의 子이다.”²⁰⁶⁾라고 하였다. 氣로써 精이 만들어지고 氣로써 神이 발현되게 된다. 精氣神血은 精은 형성의 단위 개념이고, 神은 生命의 精化로서의 정신이고, 氣는 人신의 生理활동과 외부활동을 하는 生命에너지이고, 血은 혈액을 포괄하는 生체물질로 확대된 개념이다. 『素問·調經論』에서는 ‘人之所有者，血與氣已’라 하여 人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氣血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人體를 크게 陰陽으로 二大別한 것으로 神은 氣의 宗주로서, 精은 血이라는 生체물질의 단위체로서 각각 氣와 血에 포섭시켜 말한 것이며, 精.神이 體라면 氣.血은 그것들의 用이다.”²⁰⁷⁾라고 하였다. 氣에서 여러 가지 病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 內經에서와 같이 ‘丹溪는 온 몸을 두루 흘러 다니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氣이다. 만일 內傷이 없고 外感이 없다면 어떻게 氣病이 생기겠는가?’²⁰⁸⁾라고 하였고, 또한 丹溪는 “氣鬱에서 氣病이 처음 생길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七情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혹은 六氣로 인하며, 飲食의 不調節로 인하여 津液이 運行되지 않고 清濁이 서로 간섭하여 氣로부터 積이 되고 積으로부터 痰이 되면 氣가 鬱하고 兼하여 痞滿하고 疼痛한다”고 하였다.²⁰⁹⁾

『東醫寶鑑』에서는 『醫學正傳』을 인용하여 男女의 差異를 밝혔다. 『東醫寶鑑·氣의 用藥法』에서 “正傳에 男子는 陽에 屬해서 氣가 흠어지기가 쉽고, 女子는 陰에 屬해서 氣가 많이 鬱滯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男子는 氣病이 적고 女子는 氣病이

202) 李炳幸. 鍼道源流重磨. 考試研究院. 1985, p. 141.

203) 裴秉哲 譯. 今釋 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94, p. 354.

“素問 舉痛論 余知百病生于氣也，怒則氣上，喜則氣緩，悲則氣消，恐則氣下，寒則氣收，炅則氣泄，驚則氣亂，勞則氣耗，思則氣結，九氣不同，何病之生”

204)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198.

205) 裴秉哲 譯. 今釋 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94, p. 805.

“素問 至真要大論 諸氣臏鬱，皆屬於肺”

20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25.

207) 東醫生理學. 金完熙 등 編者.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p. 61.

208)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198-199. “丹溪曰 周流乎一身以爲生者，氣也。苟內無所傷，外無所感，何氣病之有”

20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5-36.

많다. 그러므로 治療法으로 女子는 血을 고르게 하여 氣를 소모시켜야 하고, 男子는 氣를 고르게 하여 血을 길러야 한다고 한 것이다.”²¹⁰⁾ 또 “入門에 七情은 모두 마음에서 생기고, 七氣는 모두 氣에 屬한다. 氣는 陽이라서 움직이면 火가 된다. 그러므로 降火 化痰 消積하는 것으로 治療한다. 火가 많으면 黃連解毒湯을 습하고, 痰이 많으면 二陳湯을 습하며, 積이 많으면 平胃散을 습한다.”고 하였다.²¹¹⁾ 七情과 七氣는 모두 七情으로 병이 오는 것이지만 七情은 心에 屬하고 七氣는 肺에 屬한다. 七氣는 七情損傷으로 身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람이 七情이 있는 동시에 七氣가 있다. 氣가 맏히면 痰이 생기고 痰이 盛하면 氣가 더욱 맏혀진다. 七氣로 인해 腹中이 脹滿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고 上氣가 되고 심하면 五積 六聚 疝癖 癥瘕등이 생긴다.”²¹²⁾고 하였다. 女子가 氣가 鬱滯되어서 病이 생기는 경우에 降火 化痰 消積하는 治療를 한다. 여기서는 각각 습한다고 하였는데, 臨床에서는 하나의 處方으로 各各 쓴다. 女子가 氣가 動하여 火가 되면 黃連解毒湯을 쓰고, 밥을 먹지 못하고 胃에 問題가 생기면 平胃散을 쓰며, 痰이 있으면 二陳湯을 쓴다. 降火 化痰 消積하는 것은 풀어주는 治法이다.

男子가 陽에 속한다는 것과 女子가 陰에 속한다는 것을 설명해 보면, 男子가 陽에 속한다는 말은 본래는 陰이란 말이다. 본래 陰이란 말은 全體의 부피가 크다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陽에 屬한다는 말은 잘 흠여뜨린다는 말이다. 이렇게 흠여뜨리기에 陰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의 陰이란 채워야한다는 意味가 있다. 女子가 陰에 속한다는 말은 본래는 陽이란 말이다. 여기서 陽이란 全體의 부피가 작다는 意味이다. 그리고 여기서 陰에 屬한다는 말은 끌어 모은다는 意味이다. 그래서 너무 모으기 때문에 陽이 필요하다. 여기서 陽의 의미는 運行을 시켜야 한다는 意味이다. 이와 같

이, 三變하는 理致가 있다. 動物을 보면, 대개 수컷이 크고, 암컷이 작은 것이 一般의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肥人은 氣虛하다고 하였다. 性情的으로도 男子는 골칫거리가 있으면 술을 마셔서 잊으려 한다. 지난 일들을 잘 잊어버린다. 女子는 사소한 것도 잘 잊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醫書에 “과부사니증은 있지만 홀아비병은 없다.”²¹³⁾라고 하였다.

『醫學正傳』을 보면 “모든 病은 氣에서 생기며 氣는 血과 짝이 된다고 하였다. 男子는 陽에 속하여 氣가 흠여지지 쉽다는 것은 氣虛가 되기 쉽다는 말이고 女子는 陰에 속하여 氣가 많이 鬱滯된다는 것은 氣實하다는 말이다. 『東醫寶鑑·辨證門』에 “男女의 病因에 대해, 모든 病에 男子는 반드시 性生活을 살피고, 女子는 먼저 月經과 妊娠을 물어야 한다.”²¹⁴⁾고 하였는데 男子의 병은 性과 연관이 되므로 항상 精이 不足하고 精이 不足하므로 氣가 不足하다고 할 수 있다.(氣가 모여서 精이 되며, 精이 있어야 氣가 있다.) 그에 반해 女子는 月經과 妊娠으로 항상 氣가 부족하지만 氣가 實하다고 할 수 있다. 氣가 實하다는 의미는 끌어 모으는 힘이 강하다는 표현이다. 氣가 虛하다는 것은 氣가 不足하다는 말이고 氣가 實하다는 것은 氣가 運行이 잘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男子에게 氣病이 적다는 말은 男子의 病은 항상 虛證이라는 의미이다. 女子에게 항상 氣病이 많다는 말은 女子의 病은 항상 實證이라는 의미이다. 대개 氣가 虛한 경우는 四君子湯을 쓰고, 氣가 實할 경우에는 小烏沈湯을 쓴다. 氣虛에 四君子湯을 쓴다는 말은 男子의 경우이고, 氣實에 小烏沈湯을 쓴다는 것은 女子의 경우이다. 四君子湯은 眞氣가 虛弱한 것을 補하여 숨이 짧고 氣運이 적은 것을 치료하는 약이다.²¹⁵⁾ 小烏沈湯은 氣痛에 쓰는데, 氣가 運行이 안 되어서 아픈 경우에 쓴다. 小烏沈湯은 여러 가지

210)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79.

211) 許浚, 윤석희 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79.

21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29-30.

21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995. 과부 여승의 병이 일반부인과 다른 경우.

214)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926.

215)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72.

氣로 心腹이 찌르듯이 아픈데 쓴다.²¹⁶⁾ 處方の 構成을 살펴보면, 四君子湯은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로 되어 있고, 小烏沈湯은 香附子, 烏藥, 沈香, 甘草로 되어 있다. 四君子湯은 補氣하는 藥으로 小烏沈湯은 氣를 運行시키는 藥으로 되어 있다. 四君子湯은 氣가 虛하여 運行이 안 되는 경우에 使用하는 약인데 이를 “는 氣病에는 補하는 法이 없다고 하나 正氣가 虛하여 運行이 안 되는 것을 생각 못한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男子와 女子를 氣虛와 氣實로 구분할 수 있는데, 『東醫寶鑑·內傷門』의 “噎氣의 경우에 보면, 氣가 實하여 트림하는 症은 飲食한 뒤에 腐氣를 트림하고 심하면 物體를 트림해내니 濕熱의 소치인데 二陳湯에 蒼朮神曲麥芽 薑炒黃連을 加해 쓰고, 氣가 虛하여 트림하는 症은 濁氣가 가슴에 매어 있으면서 飲食하지 않아도 항상 트림하는데 이것이 곧 虛로 인하여 일어나는 증세이다. 대개 胃에 濁氣가 있고 胸膈에 濕痰이 있으면 다 噎를 發하는 법인데 六君子湯에 沈香을 加해서 君을 삼고 厚朴 蘇葉으로 臣을 삼고 吳茱萸를 使를 삼아서 煎服한다.”²¹⁷⁾라고 하였다. 氣가 實하다는 것은 氣가 運行이 잘되지 않는다는 말이며, 氣가 虛하다는 것은 氣를 運行하는 힘이 不足하다는 말이다. 二陳湯은 女子에게 쓴다고 하였고, 六君子湯은 二陳湯에 四君子湯을 合한 것이다. 氣가 虛하면 四君子湯을 쓴다고 하였으니 六君子湯은 男子에게 쓰는 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內傷門』에 보면, 食傷은 飲食物에 처음 傷했을 때에 飲食物을 보기 싫어하고 미식미식거리는 惡心 症狀이 있다. 食傷의 治療法에 二陳湯에 蒼朮 白朮 川芎 山楂를 加해서 쓰는 것²¹⁸⁾은 女子의 경우이다. 이에 반해 食傷의 補益法에, 脾胃가 弱하여 飲食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무조건 치는 藥을 쓰면 안 된다. 錢氏異功散으로 補하면 자연히 먹을 수 있다.²¹⁹⁾고 한 것은 男子에 해당된다. 錢氏

異功散은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 橘皮, 木香으로 處方이 구성되어 있다. 四君子湯에 橘皮 木香을 加한 것이다. 食傷의 補益劑에 나오는 六君子湯²²⁰⁾도 또한 男子藥이다. 이와 같이 男女에 따라 處方을 달리하여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血病을 두루 治療하는 藥인 四物湯은 기본적으로 女子의 藥이다. “女子는 經帶胎産의 生理的인 特性이 있으므로 肝이 先天이 된다. 女子는 月經을 하는 이후로 肝을 위주로 살아간다.”²²¹⁾ 四物湯은 當歸 川芎 白芍藥 熟地黃의 네 가지로 이루어졌으니 四象으로 되어 있고, 또 各各 1錢 2分半으로 5錢이니 5의 五行으로 되어 있는 까닭이다. 마찬가지로 四君子湯도 四象과 五行으로 이루어졌다. 血은 氣配가 되니, 氣와 血은 서로 互根하는 이치이다.

女子는 四物湯을 爲主로 쓰고, 男子는 四君子湯을 爲主로 쓰는 것은 女子는 血이 不足하기 쉽고, 男子는 氣가 不足하기 쉬운 까닭이다. 또한 精은 氣의 根源이 되므로 六味地黃湯이 男子의 藥이라 할 수 있다. ‘뺨는 腎에 屬한다.’²²²⁾고 하였다.

4) 脈을 통해 살펴본 男女의 差異

(1) 『東醫寶鑑·診脈門』에 “重한 病에는 반드시 太谿脈과 衝陽脈을 본다.에 보면, 傷寒傳에 脈에 根本이 있으니 반드시 太谿와 衝陽을 보아야 한다. 男子는 右腎을 命門으로 삼고 女子는 左腎을 命門으로 삼는데, 이것이 生死를 主管하는 要諦이다. 환자가 命門의 脈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다. 衝陽은 足陽明胃經의 血이다. 사람은 水穀에서 氣를 받는데, 水穀이 胃에 들어가서 五臟六腑로 전해진다. 이렇게 臟腑는 모두 胃에서 氣를 받는다. 胃는 水穀의 바다이고 사계절을 주관하므로 모두 胃氣를 근본으로 한다. 이것을 四時의 病的 變化와 生死의 要諦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216) 許浚·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 出版社, 2005, p. 73.

21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55.

218) 許浚·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 出版社, 2005, p. 1205.

219) 許浚·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 出版社, 2005, p. 1210.

220) 許浚·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 出版社, 2005, p. 1210.

221) 金完熙 등 編著, 東醫生理學,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p. 261-262.

222) 許浚·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 出版社, 2005, p. 769.

이것을 診察하여 胃氣의 有無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²²³⁾

(2) 『東醫寶鑑·診脈門·男女老少의 異脈』에서는 『醫學入門』에 男子는 左側에 해당하고, 女子는 右側에 해당하는 것은 땅에서 정해진 理致이다. 사람은 땅위에 서있으므로 땅을 따라 變化한다. 男子는 左脈이 强하고 右脈이 弱하며, 女子는 右脈이 强하며 左脈이 弱하다. 男子는 陽氣가 많기 때문에 左脈이 旺盛하고, 女子는 陰氣가 많기 때문에 右脈이 旺盛하다. 男子는 左尺脈을 精의 집으로 보고, 女子는 右尺脈을 血海로 본다. 이것이 天地의 신비로운 調和이다. 肺는 氣를 주관하고 우측에 위치한다. 男子는 氣를 爲主로 하니 男子의 病에 右脈이 左脈보다 充實한 것은 胃氣가 있는 것이다. 病이 비록 重하더라도 치료할 수 있다. 心은 血을 주관하고 좌측에 위치한다. 女子는 血을 爲主로 하니 女子의 病에 左脈이 右脈보다 충실한 것은 胃氣가 있는 것이다. 비록 病이 重하더라도 치료할 수 있다.²²⁴⁾ 그러므로 男女의 脈은 男子는 寸脈이 强하게 뛰어야 하고, 女子는 陰血이 기본이므로 尺脈이 强하게 뛰어야 한다. 男子가 尺脈이 크게 뛴다면 腎三焦가 熱을 받은 것이다.²²⁵⁾ 右氣口 左人迎으로 右는 內傷이며 左는 外感이다. 女性은 右側의 脈이 强하므로 內傷이다.²²⁶⁾ 女子는 잘 먹게 되어 있으므로 內傷이 잘 온다.

(3) 男左女右와 右氣左血이란 말의 차이는 右氣左血이란 말이 있다. 男子의 오른팔은 氣가 되어 힘이 강하고 왼팔은 힘이 약하고 예쁘게 생겼다. 즉 오른쪽을 男子로 보고 왼쪽을 女子로 보고 말한 것이다. 左寸의 火가 右寸의 金을 이기고, 左關의 木이 右關의 土를 이기며, 左尺의 水가 右尺의 火를 이기니 左는 剛하고 右는 柔하여 夫婦의 理

가 있다. 右手는 陰에 屬하여 血이 先行하고 氣가 뒤따르는 것인데 濕痰이 있으면 血이 運行하지 못한다. 실체는 血인데 氣虛에서 오는 것이다. 이 말을 男子가 女子를 얻지 못하면 男子 구실을 못하고 女子는 男子를 얻지 못하면 女子 구실을 못하는 것과 같다.²²⁷⁾ 脈이 代를 이어가는 生生의 뜻이란 女子가 시집을 가서 그 婦人이 代를 이어서 아들을 낳으니 자연은 씨 중에도 우량한 씨가 존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씨가 끊어지지 않고 영생해 가는 것이다. 즉 左尺의 水가 左關의 木을 낳고 左關의 木이 左寸의 火를 낳고 左寸의 火가 右尺의 火에 接하고 右尺의 火가 右關의 土를 낳고 右關의 土가 右寸의 金을 낳고 右寸의 金이 左尺의 水를 낳으니 韓醫學에서는 子母의 理라고 일컫는다. 中風門에 男左女右라 하여 左側은 血虛와 死血이고 右側은 氣虛와 濕痰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 左手는 陽에 屬하여 氣가 動하는 곳에 血이 뒤따르는 것인데 瘀血이나 死血로 인해서 血이 完熟하지 못하기 때문에 血이 순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血이 虛하다고 말한다. 右手는 陰에 屬하여 血이 先行하고 後에 氣가 뒤따르는 것인데 濕痰이 있으면 血이 運行하지 못한다. 氣虛에서 오는 것이다. 男左女右란 것은 땅의 定位이니 대개 사람이 땅에서 形을 定했으므로 땅을 따라 和하는 법이다.²²⁸⁾

5) 臟象의 氣化特徵을 통해 살펴 본 男女의 差異 韓醫學은 西洋醫學과는 달리 죽은 人體를 解剖하는 것을 重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²²⁹⁾ 아주 오래전에도 포로나 죄수들을 통해 解剖를 하였고²³⁰⁾ 그보다도 韓醫學은 陰陽五行에 바탕을 두고 발달한 學文이기 때문이다. “五行이 相生相剋

223) 許浚·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 出版社, 2005, p. 937.

224) 許浚·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 出版社, 2005, p. 939.

225) 大韓傳統韓醫學會, 地산선생임상학특강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324.

226) 大韓傳統韓醫學會, 地산선생임상학특강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225.

227)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地산선생임상학특강VI, 서울, 地산출판사, 1998, p. 351.

228)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地산선생임상학특강VII, 서울, 地산출판사, 1999, p. 86.

229) 洪元植 外 1人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一社, 2001, p. 46.

230) 대한동의생리학회 편, 동의생리학,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3, p. 252.

등의 學說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質으로써 말하는 것이 아닌 氣로써 말하는 까닭에서이다.”²³¹⁾ 臟象은 解剖學的인 意味에서 內臟器官일 뿐만 아니라, 人體의 거대한 生命活動 機能狀態이다. 河圖洛書는 自然과 사람이 융해되어 있는 그릇으로 臟象의 氣化機能 도식이다. 河圖洛書의 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臟象氣化의 3대 요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脾胃는 升降의 中樞이다

『素問·玉機眞藏論』에서 “脾는 孤臟으로서 中央에 위치하고 土에 屬하며 四方을 두루 관장한다. (脾胃孤臟, 中央土而灌四旁)고 하였고, 吳達은 『醫學求是』에서 “脾는 陰土로서 陽으로 上升하며, 胃는 陽土로 陰으로 下降한다. 土는 中央에 위치하는데, 火가 위에 있고 水가 아래에 있으며, 木이 왼쪽에 있고 金이 오른쪽에 있어 왼쪽은 上升을 주관하고 오른쪽은 下降을 주관하므로 五行의 升降은 氣에 의지하지 質에 의지하지 않으며 升降의 均衡은 中氣에 달려있다. 上升은 脾氣의 左旋에 의지하고 下降은 胃氣의 右旋에 의지하므로 中氣가 旺盛하면 脾氣는 上升하고 胃氣는 下降하여 四象이 돌고 돈다. 만약 中氣가 수렴되면 脾氣가 鬱結하고 胃氣가 逆行하므로 四象이 그 運行的 機를 잃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河圖에 나타난 土의 象에 근거하여 立論한 것이다.²³²⁾

脾胃는 中에 위치하여 人體의 기기승강의 주축이 된다. 胃는 水穀을 受納하고 腐熟시킨다. 脾는 運化를 주로 하는데 消化시키고 그 정미물질을 운반한다. 脾는 清氣의 上昇을 주관하고 胃는 濁氣의 下降을 주로 한다.²³³⁾ 胃는 戊土이며 脾는 己土이다. 戊土는 陽으로 下降하며 己土는 陰으로 上昇한다.²³⁴⁾

男子는 脾爲主로 살아가며, 女子는 胃爲主로 살아가는다. 왜냐하면 女子는 氣實하여 平胃散을 쓰며

남자는 氣虛하여 六君子湯을 쓰는 까닭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本 論文의 ‘處方으로 살펴 본 男女의 差異’에서 詳述하였다. 女子는 陰에 속하여 잘 모으는 性質이 있다. 그러므로 잘 먹게 되어 있다. 男子는 그 反對이다.

(2) 肝·肺는 精氣의 散布를 主管한다

葉天士는 “인체의 氣機는 天地自然과 부합하는데, 肝은 왼쪽에서 上升하고 肺는 오른쪽에서 下降하는데, 上升과 下降이 마땅함을 얻으면 氣機가 정상적으로 運行된다. 인체의 精氣가 輸布되고 運行되는 데는 肝·肺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肝이 上升하여 上部의 頭部와 몸체 및 上部 孔竅에 이르고, 肺는 下降하여 臟腑 및 筋骨에 이르러 氣血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고 臟腑를 안정시키고 조화롭게 한다.”고 하였다. 이를 『素問·經脈別論』에서는 “飲食物이 胃로 들어가면 (소화된 후) 흩어져 일부 精微物質은 肝으로 들어가고 (肝은 이) 精微之氣로써 筋을 滋養한다.” “脈氣는 經脈을 따라 흐르고 經脈의 氣는 肺臟에 모이므로 ‘肺朝百脈’이라 하며, (肺의 宣發作用에 의해 陰濁한 水氣는 膀胱으로 보내고) 精氣는 皮毛에 퍼진다. (全身을 運行的 氣血은 다시 胸中에서 모이고 여기서 다시) 肺氣와 心血이 회합하여 만들어진 精氣는 다시 府(胸中)에서 全身으로 반복하여 運行한다. 府의 精氣인 神明은 肺肝脾腎 四臟에 머물므로 氣가 (이러한 生理活動을 통하여 모두) 평형을 이룬다.” “水道를 소통 조절하여 水氣를 膀胱으로 흘러가게 하니 水精이 全身에 골고루 퍼져 五臟의 經脈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간단명료하게 귀납하였다.²³⁵⁾

男子는 氣를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男子는 肺爲主로 살아가며, 女子는 血을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肝爲主로 살아가는다. 肺는 行氣하며 肝은 行血한다.(氣統於肺하니 臟腑經絡之氣 皆肺金之宣布者요 血統於肝하니 臟腑經絡之血이 皆肝血之流注者니라)²³⁶⁾

231) 成周鳳, 韓方醫學講習書, 大田, 以文社, 1936, p. 32.
232) 郭東烈 編譯, 問答式 周易과 한의학, 서울, 成輔社附設 傳統醫學研究所, 1997, p. 185.
233) 대한동의생리학회편 編著, 동의생리학,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p. 294, 300, 301, 302.
234) 成周鳳, 韓方醫學講習書, 大田, 以文社, 1936, p. 33.

235) 郭東烈 編譯, 問答式 周易과 한의학, 서울, 成輔社附設 傳統醫學研究所, 1997, p. 185-186.
236) 成周鳳, 韓方醫學講習書, 大田, 以文社, 1936, p. 34.

(3) 心腎은 水火既濟해야 한다

『吳醫匯講』에서 “心은 본래 火의 臟인데, 火中에 水가 있다. 腎은 본래 水의 臟인데, 水中에 火가 있다. 火는 水의 主가 되므로 心氣는 아래의 腎水와 교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水는 火의 원천이므로 腎氣는 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水氣가 上升하지 못하면 發病하는데 腎陽을 조화롭게 하여 陽氣가 넉넉해지면 水氣가 이를 따라 上升한다. 만약 火氣가 下降하지 못하면 發病하는데, 心陰을 調和롭게 하여 陰氣가 넉넉해지면 火氣가 이를 따라 下降한다.”고 하였다. 張景岳은 “火의 성질은 본래 뜨거운데, 火가 쓰이는 데 水가 없으면 그 熱이 반드시 심해지고 熱이 심해지면 陰이 損傷되므로 萬物이 메말라서 고갈된다. 水는 성질이 본래 차가운데 水가 쓰이는데 火가 없으면 그 寒이 반드시 盛해지고 寒이 盛해지면 陽이 損傷되어 萬物이 사라진다.”고 하였다.²³⁷⁾

男子는 그 病因이 房勞로 오며 房勞는 腎에 속하며 女子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므로 머리를 쓰는 것은 心에 속한다. 男子는 腎爲主로 살아가며, 女子는 心爲主로 살아간다. 孫思邈은 心腎水火相交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여 “心臟은 火에 해당하고, 腎臟은 水에 해당된다. 水와 火는 서로 구제한다.”²³⁸⁾라고 하였다.

6) 形象으로 살펴 본 男女의 差異

(1) 男子는 植物이고 女子는 動物이다

사람은 榮貴한 存在이다. 사람은 動物과 植物을 혼합해 놓은 존재로서 植物은 動物을 위해 존재하고 動物은 植物을 위해 존재한다. 植物은 縱立되어 있어서 하늘을 볼 수 있지만 대신 움직이지는 못한다. 動物은 橫立하여서 서지를 못하므로 하늘을 볼 수 없지만 대신 움직일 수 있다. 하늘보고 크는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고 땅을 보고 움직이는 動物은 하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람은 직립보

행하면서 하늘도 보고 땅도 보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男女의 區別이 있어서 男子는 植物에 비유되고 女子는 動物에 비유된다. 男子는 게으르고 女子는 부지런하다.

構圖面에서 볼 때 肺와 腎은 植物을 表象한 것이다. 그러므로 짝수(陰數)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며 心과 肝은 動物을 表象한 것이다. 즉 뿌리가 위에 있고 몸통은 下に 있다. 그러므로 홀수(陽數)로 構成되어 있다. 人體의 前面은 動物이며 動物은 橫으로 成立된다. 人體의 後面은 植物이며 植物은 縱으로 成立된다.²³⁹⁾ 肝과 心은 하나이고, 肺와 腎은 둘로 되어 있다.²⁴⁰⁾ 人體의 등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 植物이다. 人體의 前面은 가슴이나 배가 나오고 움직이는 곳이다. 그러므로 動物이라고 할 수 있다. 女子는 乳房등 前面이 발달하였고 男子는 등이 발달하였다. 植物이 없는 곳에는 動物이 살 수 없고 動物이 사는 곳에는 植物이 반드시 있다. 植物은 하늘을 보고 자라서 縱立(세로로 서 있다)한다. 動物은 땅을 보고 자라기에 橫臥하여 기어 다닌다. 그래서 縱하면 植物을 상징하고 橫하면 動物을 상징한다. 植物은 靜하기에 우둔하고 動物은 動하기에 지혜롭고 힘이 약하다. 植物은 天理에 順應하기에 말이 없고 動物은 天理에 逆行하기에 소리를 낸다.²⁴¹⁾ 『石塘理氣韓醫學』에서도 動物의 生理는 水이지만 動하는 理致는 火이다. 그러므로 물을 얻으면 살고, 火를 잃으면 죽는다. 植物의 生理는 火이지만 靜하는 理致는 水이다. 그러므로 火를 얻으면 살고 水를 잃으면 죽는다. 女子는 動物이다. 男子는 植物이다.²⁴²⁾ 男女의 體用은 男子는 體陰用陽이고, 女子는 體陽用陰이다. 體的인 面에서 보면 男子가 植物과 같고 女子가 動物과 같다.²⁴³⁾

239) 朴仁圭, 너와 나의 세계, 서울, 지산출판사, 2000, p. 109.

24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16, 119, 126, 129.

241) 朴仁圭, 너와 나의 세계, 서울, 지산출판사, 2000, p. 153-154.

242) 韓南洙 原著, 金成銓 編, 石塘理氣韓醫學, 서울, 醫聖堂, 1992, p. 132.

243)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志山선생임상학특강Ⅲ,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95.

237) 郭東烈 編譯, 問答式 周易과 한의학, 서울, 成輔社附設 傳統醫學研究所, 1997, p. 186-187.

238) 楊力 著, 金忠烈外1人 譯, 周易과 中國醫學(上), 서울, 법인문화사, 1995, p. 412.

얼굴에서 動·植物의 차이를 縱橫으로 보면 코와 귀는 縱으로 되어 植物이고, 입과 눈은 橫으로 되어 動物이다. 動物은 눈과 입이 있고, 植物은 눈과 입이 없고 귀와 코가 있다. 動靜으로 보면 돌아다니는 것은 動物이고 靜한 것은 植物이다²⁴⁴⁾ 귀와 코는 세로로 서있으며 움직이지 않으니 植物이다. 눈과 입은 가로로 되어 있으며 움직이니 動物이다. 男子는 잘 눕고 체구가 커서 움직이지 않으니 植物이다. 女子는 男子에 비해 잘 움직이려고 하니 動物이다.

動物은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오고 植物은 뿌리부터 나온다. 머리부터 나오는 것은 목숨이 머리에 있고 뿌리부터 나오는 것은 목숨이 뿌리에 있다.²⁴⁵⁾ 女子는 動物이므로 머리가 뿌리가 되어 女子는 男子보다 머리가 좋다. 男子보다 女子는 정신력이 강하다. 男子는 植物이므로 몸이 뿌리가 되어 몸을 위주로 살아간다.

(2) 男子는 몸이 발달하였고 女子는 머리가 발달하였다

人體構造가 머리가 動하면 몸은 靜하게 되어 있고 몸이 動하면 머리는 靜하게 되어 있다.

頭 ○ - 動하면 軀 □ - 靜하고
頭 ○ - 靜하면 軀 □ - 動한다

따라서 女子는 氣盛하여 머리가 잘 돌게 되어 있으므로 머리를 靜하게 하려면 몸을 動하게 해주어야 평정을 찾는다. 그러므로 妊娠이 되면 머리가 둔해진다.

女子가 男子보다 靈座가 맑다. 女子는 月의 精氣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男子는 太陽의 精氣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月은 水性이므로 靈明하고, 太陽은 火性이므로 光明하다. 靈明은 無心히 直感으로 아는 것이요, 光明은 理致로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女子는 靈座가 맑고, 男子는 理智가 밝은 것이다.²⁴⁶⁾

244)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88.

245) 邵康節 著. 노영균 譯. 皇極經世書. 서울. 대원출판. 2002. p. 301.

男子의 七氣病은 魂魄이 나빠서 오고 女子의 七情病은 精神이 나빠서 온다.²⁴⁷⁾

魂魄이란 몸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고 精神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男子는 좀 둔한 편이고 女子는 영감이 있다. 精神은 理性이고, 魂魄은 本能이다.²⁴⁸⁾

精神이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서 좋은 쪽을 취하려는 것이 精神作用이며, 魂魄은 本能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男子는 肺·腎이 기틀이므로 男子의 七氣病은 魂魄이 나빠서 오는 病이고 女子는 心·肝이 기틀이므로 女子의 七情病은 精神이 나빠서 病이 오는 것으로 본다.

魂魄은 天에 順應하기 때문에 貴하고 先天이다. 어린이는 精神이 깃들지 않아도 魂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營과 衛의 관계는 順과 逆의 관계지만 잠을 자고 눈을 뜨는 것은 肝과 膽의 관계이다.²⁴⁹⁾ 衛氣와 營氣란 말은 晝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晝夜란 말은 女子는 귀를 밝게 만들었고, 男子는 눈을 밝게 해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밖에서 活動하기가 눈이 밝아야 하고 안에서는 귀가 발달되어야 한다. 낮에는 코로 숨을 쉬고 밤에는 항문으로 숨을 쉰다. 升降이라는 개념에서 생각할 수 있다. 밤에 잠을 자면 肛門으로 숨을 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게 經絡이다.

男子: 形盛氣衰 (形盛 - 四物湯·六味地黃元, 氣衰 四君子湯- 八物湯, 四六湯)
女子: 血을 調養(四物湯)하면서 그 氣를(小烏沈湯) 소모시켜야 한다. 小烏沈湯 合 四物湯

男子는 形이 盛하니까 써먹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女子는 몸이 약하니까 일을 안

246)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東方文化. 1993. p. 120.
 247)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서울. 지산출판사. 1996. p. 118.
 248)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서울. 지산출판사. 1996. p. 336.
 249)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서울. 지산출판사. 1996. p. 197.

해야 할 것 같은데 現實을 보면 正反對다. 理由는 다음과 같다.

女子는 몸이 약한데도 일을 많이 하는데 女子가 일을 하지 않으면 氣가 盛하니까 머리가 잘 動하여 氣病이 잘 생긴다. 男子는 씹먹게 만들었으니까 쉬어야 씹먹는다. 신다는 것은 充填을 의미한다. 男子는 몸위주로 되어 있고 女子는 머리위주로 되어 있다.

(3) 男女의 體用은 女子는 血을 體로 하고 男子는 氣를 體로 한다.²⁵⁰⁾

女子는 귀부터 씻고 男子는 눈부터 씻게 되어 있는데 女子는 귀로 잘 들어야 살고 男子는 눈이 밝아야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血이란 形을 기르고 血이 實해야 形을 길러주는 法인데 男子는 氣를 體로 하고 血을 用事하므로 잘 먹어야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야 남하고 잘 싸우는 고로 앞의 눈부터 씻는 것이고 女子는 血을 體로 하고 氣를 用事하므로 귀부터 먼저 씻는다.

(4) 男女의 診斷에서 女子는 脈을 爲主로 男子는 形象을 爲主로 본다.²⁵¹⁾

形象보다 脈이 變化에 민감하고 女子가 男子보다 變化에 민감하기 때문에 女子는 脈을 爲主로 봐야한다.²⁵²⁾ 男子는 몸이 발달하였고 女子는 四肢가 발달하였다. 男子는 五臟六腑를 위주로 되어 있고 女子는 12經絡을 위주로 되어 있다. 그것은 女子가 胞을 위주로 되어 있어서 胞는 12經絡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朴仁圭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人間은 사람은 通體요, 部分은 男女老少이다

男子 - 形盛氣衰
女子 - 氣盛形衰
老人 - 氣虛形衰
小兒 - 氣盛形衰

男子는 形體가 크고 氣가 약하고 女子는 形體는 작으나 氣가 盛하다. 男子는 몸통이 크고 女子는 팔다리가 길다. 男子는 잘 눕고 女子는 움직여야 한다.

女子는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 女子는 胞를 위주로 살아가므로 女子는 十二經脈 爲主로 되어 있다. 눈과 입은 血을 나타내므로 女子는 눈과 입이 발달해야 한다. 그러면 男子는 어떻게 생긴 것이 원칙인가? 男子는 코와 귀 爲主로 생겨야 한다. 女子는 입이 발달되어 잘 먹게 되어 있다. 반면에 男子는 氣의 出入으로 공기를 많이 마시게 되어 있다. 精이 聚集되어야 血이 養해진다. 精이 없으면 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²⁵³⁾ 男子는 코와 귀를 主한다는 것은 코는 呼吸하여 肺竅가 되고 귀는 精을 貯藏하는 腎竅가 된다. 男子가 精氣를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女子가 입과 눈을 主한다는 것은 입은 精血을 만드는 곳이고 입술에 보고 血의 榮華를 살피는 까닭이며 눈은 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氣味生成流布에 하늘은 五氣로써 사람을 기르고 땅은 五味로써 사람을 기른다. 五氣는 코를 통해 들어가서 心肺에 貯藏되고 이어서 五臟에 도달하게 되니 心氣가 充滿하면 얼굴색이 潤澤해지고 肺氣가 充滿하면 音聲이 맑게 된다. 五味는 입을 통해 들어가서 腸胃에서 저장되고 여기서 消化 分布되어 五臟의 氣를 榮養하게 된다. 水穀之氣와 五臟之氣가 調和로우면 津液이 생기게 되어 生命活動이 왕성해진다.²⁵⁴⁾ 氣味生成流布에 氣는 陽에 속하고 味는 陰에 속하니 五味는 形體를 충실하게 하고 形體가 充實하면 眞氣가 왕성해진다. 男子는 體陰用陽으로 몸을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코는 心

250)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서울. 지산출판사. 1996. p. 352.
 251)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26.
 252)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31.

253)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서울. 지산출판사. 1996. p. 24.
 254) 汪琥古 撰. 大田大 韓醫科大學 第9期 卒業準備委員會 共譯. (國譯) 湯液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96. p. 71.

肺로 氣를 主하기 때문에 男子는 코를 위주로 되어 있다. 女子는 몸이 작으므로 잘 먹어서 形을 길러야 하므로 입을 위주로 되어 있다.

(5) 男女의 集散은 男子는 發顯되고(內→外), 女子는 收斂된다(外→內)²⁵⁵⁾

男子는 內에서 外로 發顯되고(組織), 女子는 外에서 內로 收斂된다.(運行)

耳目口鼻에 金木水火土와 木火土金水를 적용시키는데 코를 金이라 할 때는 運行(氣)를 말하는 것이고, 코를 木이라 할 때는 形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天垂와 地積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된다. 男子는 相剋으로 金木水火土로 보고 女子는 相生으로 木火土金수로 본다. 이 말은 男子는 몸을 위주로 살아가고 女子는 머리를 위주로 살아간다는 말이다. '五臟六腑가 몸에서는 숨어있고 머리에서는 耳目口鼻로 나타난다.'²⁵⁶⁾

(6) 女子는 몸이 더워야하고 男子는 몸이 차야 한다.

男子들은 주로 氣를 흠어트려서 써먹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精을 補해주고 氣를 補해준다.²⁵⁷⁾ 女子는 몸이 더워야하고 男子는 몸이 차야 한다. 몸이 차다는 것은 땀을 흘린다는 것이고 몸이 덥다는 것은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뜻이다.²⁵⁸⁾ 男子가 배가 나온 것은 正常이고 女子는 非正常이다.²⁵⁹⁾

女子는 血이 爲主이니 더위에 약하다.²⁶⁰⁾ 寒은 形을 傷하고 熱은 氣를 傷하는데 女子가 血을 爲主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熱(더위)에 약한 것이다.

255)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서울. 지산출판사. 1996. p. 359.

256) 李仁洙. 形象醫學에 대한 考察. 碩士學位論文. 慶熙大學校. 2002. p. 24.

257)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65.

258)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9.

259)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서울. 지산출판사. 1996. p. 366.

260)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서울. 지산출판사. 1996. p. 360.

男女(氣實氣虛) 女子는 氣가 盛하니까 늘 火病이 많다.²⁶¹⁾ 女子는 氣가 盛하니까 늘 火病이 많다. (氣는 火의 惝이니까) 男子는 組織爲主로 되어 있으니 形은 盛하나 氣가 弱하다. 그러므로 男子는 氣가 虛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病이 아니다. 內外가 合一된다는 얘기는 男子는 組織爲主로 만들었으니까 運行을 잘못하고(形이 盛해서) 運行을 못하니까 가정살림이고 뭐고 다 못하지만 女子는 運行을 爲主로 만들어져 있다.²⁶²⁾

(7) 女子의 特性

女子는 精血의 凝集이 강한 사람이므로 흠어트리지 못해서 오는 病이 많다.²⁶³⁾ 따라서 行氣시켜서 精을 흠어트리는 氣藥을 쓰고 或은 補血시켜주는 것이 좋다.

(8) 男女의 原理

男子는 九竅이므로 陽이고 女子는 十竅이므로 陰이다.²⁶⁴⁾

男子는 陽이기에 기가 흠어지기가 쉽고 女子는 陰이기에 기가 많이 鬱滯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요? 그것은 인체에 지니고 있는 구멍을 말한다. 男子는 九竅이므로 陽이라고 하고 女子는 十竅이므로 陰이라고 한다.

(9) 男女의 生殖器의 差異

(氣의 盛衰)는 10數로 變하는 것이고, (年老하면 無子가 되는 경우)는 離坎의 理인데 77·88數로 變化한다. 男子는 7數를 體로 하고 8數를 用事하고, 女子는 8數를 體로 하고 7數를 用事한다.²⁶⁵⁾ 나이가 10數로 變化하는 것과 77, 88數로 變化하는 것

261)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서울. 지산출판사. 1996. p. 361.

262)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서울. 지산출판사. 1996. p. 361.

263)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65.

264)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4.

265)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381.

은 여기서 (氣의 盛衰)는 10數로 변하는 것이고, (年老하면 無子가 되는 경우)는 離坎의 理인데 77, 88數로 變化한다. 그러면 이 77, 88 이 어떻게 나왔느냐? 男女의 生殖器을 봐도 그렇고, 몸 전체의 體形을 봐도 離坎의 理로 되어 있다. 男子의 生殖器과 女子의 生殖器은 모양이 다르다. 男子는 二陰一陽이고 女子는 二陽一陰으로 되어 있다.

陽은 3數이고, 陰은 2數니까 男子는 (2*2=4, 1*3=3 4+3=7) 7數이고 女子는 (2*3=6, 1*2=2, 6+2=8) 8數이다. 男子는 7數를 體로 하고 8數를 用事하고, 女子는 8數를 體로 하고 7數를 用事한다. 그래서 77, 88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體形으로 보면 男子는 아래에 生殖器이 튀어나와 있으니 有形으로 陰이 되고, 가슴엔 乳房이 나오지 않았으니 無形으로 陽이 되고, 위로는 머리가 크니까 有形으로 陰이 된다. 반면에 女子는 아래에 生殖器이 들어가 있으니 陽이 되고 가슴의 乳房이 나왔으니 有形으로 陰이 되고, 위로 머리가 작으며 잘 돌아가고 발달되었기 때문에 陽이 된다. 따라서 男子는 8數로 用事하고 女子는 7數로 用事한다.

(10) 男女(形氣)

女子가 오래 살려면 形을 길러야 하고 男子가 오래 살려면 氣를 돌귀주어야 한다.²⁶⁶⁾

女子는 形衰하고 氣實한데 形衰하기 때문에 形을 다듬는다. 이것이 女子들이 몸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이다. 男子는 形衰하고 氣虛하니까 氣力을 기르는데 힘을 쓰는 것이다. 女子가 오래 살려면 形을 길러야 하고 男子가 오래 살려면 氣를 돌귀주어야 한다. 男子는 목소리가 쟁쟁해야 된다. 모기소리처럼 목소리가 기어들어간다면 氣가 너무 衰해서 形氣를 가누지 못하는 법이다.

(11) 男女와 五臟六腑와의 體用關係(臟腑에 있어서 男女의 차이)

㉠ 女子는 六腑를 體로 삼고, 五臟을 用으로

한다. 用은 體에 依着하여 能動作用을 行한다. 男子는 五臟을 體로 하고 六腑를 用으로 삼는다. 體는 用의 鼓舞를 承受하여 受動作用을 行한다. 그러므로 男子는 女子를 그리워하고 女子는 男子를 그리워하게 된다. 그리하여 內外가 때로는 相離相合하며 또는 相離하지 못하고 相合하지 못한다. 이것은 胞가 있기 때문인데 男子는 胞에 精을 간직하여 女子에게 施化 즉 精을 주려고 하고, 婦人은 胞로써 孕胎하므로 씨를 받으려고 한다.²⁶⁷⁾

五臟六腑를 나누면 陰·陽으로 나누어진다. 臟은 陰이 되고 腑는 陽이 된다. 곧, 陰은 肝·心·脾·肺·腎의 五臟을 말하는 것이며, 陽은 膽·胃·小腸·大腸·膀胱·三焦의 六腑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陰陽이 內外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變化를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汪琥古가 撰한 『此事難知』에 “天六腑는 氣表요 其體在上하고 其用在下하며, 地五臟血은 其體在下하고 其用在上이라”²⁶⁸⁾하고, 또 『湯液本草·標本陰陽論』에 보면 “무릇 病을 치료할 때는 마땅히 標本을 알아야 한다. 몸으로 말하면 바깥이 標가 되고 안쪽이 本이 된다. 陽은 標가 되고 陰은 本이 되므로 六腑는 陽에 속하여 標가 되고 五臟은 陰에 속하여 本이 되니 이것이 臟腑의 標本이다.”²⁶⁹⁾ 天은 陽으로 外며 六腑이며 地는 陰으로 內며 五臟에 속한다. 天이 陽이란 것은 일하는 곳이란 意味가 있다. 六腑란 食物을 받아들여서 消化하여 津液을 만드는 곳이다. 五臟이 陰이란 것은 六腑에서 消化시킨 것을 받아들인다는 意味이다. 五臟六腑의 長이 心이란 것은 두가지 意味가 있다. 五臟에 神이 있는데 그것을 主하는 것이 心이란 말로 정신적인 怒喜思悲恐의 七情이 바로 五臟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六腑의 長이란 말은 心의 火로 六腑가 움직인다는 말이다.²⁷⁰⁾ 五臟의 華蓋는 肺인데, 五臟의 長은 肺이다. 心을 움

266)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서울. 지산출판사. 1996. p. 366.

267)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137.

268) 汪琥古 撰. 大田大 韓醫科大學第10期 卒業準備委員會 共譯. (國譯) 此事難知. 서울. 大星文化社. 1998. p. 52, 53.

269) 汪琥古 撰. 大田大 韓醫科大學 第9期 卒業準備委員會 共譯. 國譯 湯液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96. p. 23.

270) 裴秉哲 編著. 基礎韓醫學. 서울. 성보사부설 전통의학연구소. 1997. p. 288-291.

직이게 하는 것은 肺인 것이다.²⁷¹⁾ 肺는 行氣한다. 男子는 五臟위주로 살고 女子는 六腑위주로 산다는 것은 앞서 ‘男女의 構造’에서 詳述한 바 있다.

㉠ 男女五臟의 體用關係는 女子는 肝腎을 體로 하고 心肺를 用事하며, 男子는 心肺를 體로 하고 肝腎을 用事한다.²⁷²⁾ 아랫배(복부)에도 五臟이 있다. 脾肝腎을 體로 하고 心肺를 用으로 삼는 것이 腹部이다. 어깨가 넓은 女子는 心肺가 體가 되고 肝腎이 用이 된다. 女子가 가슴(어깨)이 넓으면 心肺가 用事を 잘 하지 못한다. 따라서 女子는 어깨가 허리보다 작아야 하는 것이며 用事を 하려면 어깨가 크면 안 되니까 작게 되어 있는 것이다. 女子는 肝腎을 體로 하고 心肺를 用事하는데 肺가 用事가 안될 적에는 四君子湯(肺氣虛)을 쓴다. 그래서 女子가 왔는데 잘 모르겠으면 八物湯을 쓰면 된다. 왜냐하면 心肺를 用事해야 하니까! 男子는 肝腎을 用事하니까 肝腎을 둔구어 주는 六味地黃湯을 쓴다. 六味地黃湯은 精血을 둔구는 藥이다. 그릇을 크게 만드는 藥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男子가 動하지 못하면 腎氣丸(氣藥)을 쓰는데 腎氣丸은 그릇에 담는 藥이다. 命門火를 動하게 하는 것은 전부 氣藥이다.

五臟의 根葉 理論에 따르면 心·腎은 根이고 肝·肺는 葉에 屬한다.²⁷³⁾ 肺와 腎은 氣病이고 心和 肝은 血病이고 心包와 脾는 中焦病이란 것이 어느 문헌에 나와 있는가? 『經驗要訣』의 [五臟篇]에 보면 “心火臟 主生血하고 肝木臟 主行血하고 脾土臟 主飲食하고 肺金臟 主行氣하고 腎水臟 主生氣한다.”²⁷⁴⁾고 되어 있다. 心腎은 生血生氣하고 肝肺는 行血行氣한다. 또 根葉理論에 따라 心 腎은 根이고 肝과 肺는 葉에 屬하는데 肺와 腎이 氣病이라 할 때 根에 病이 들면 葉에 영향을 주고 葉에

病이 들면 根에 영향을 서로 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心腎은 水火이고 肝肺는 金木인데 水火는 精을 만들고 金木은 氣를 운행한다.

7) 西洋醫學에서의 男女의 差異

最近 性認知醫學會 創立總會가 最近(2005년 9월)梨花女大에서 열렸다. ‘性認知醫學(Gender Specific Medicine)’이란 診斷 治療에 있어 男女의 差異를 積極的으로 反映해야 한다는 醫學이다. 이름조차 낯선 이 새로운 試圖는 그동안 現代醫學이 한 치의 疑心없이 받아들였던 基本 前提, 즉 生殖器를 제외하면 男性과 女性은 生物學的으로 큰 差異가 없으며 女性은 단지 약간 變形된 그저 ‘작은 男性’에 불과하다는 事實에 疑問을 제기한다. 한마디로 男性과 女性은 다르며, 醫學的으로도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梨花性認知醫學研究센터 권복규소장은 “70kg의 男性을 標準으로 한 醫學은 問題가 있다며 “이제 人類의 나머지 반에 대한 積極的인 研究가 있어야만 男女 모두 제대로 理解하고 또 治療할 수 있다.”고 말했다. 性認知醫學의 創始者인 메리언·J·리가토 博士가 創立總會에 參席차 訪韓하였다. 그녀는 1968년이래 줄곧 美國 컬럼비아의대 心臟內科 教授로 在職하고 있고 8년째 性認知醫學研究 事業을 이끌고 있으며, 2002年 最高의 女性科學者賞을 受賞하였다. 그녀는 女性의 몸은 ‘이브의 사과라고 表現했다. 성서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의 사과를 먹은 뒤 自身의 肉體에 대한 認識이 생겼듯이, 女性의 몸에 대한 探求는 醫學的으로 人間에 대한 理解를 한 次元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녀는 “現代醫學은 女性에 대해 너무 모른다고 말한다.” 美國科學아카데미 醫學研究所에서 펴낸 자료에 따르면 男性과 女性이 모두 걸릴 수 있는 疾病 가운데 3분의 2는 오직 男性만을 대상으로 研究됐다. 男性資料는 그대로 女性에게도 適用될 수 있다고 믿어 왔기 때문이다. 여기엔 제2차 世界大戰 중 행해진 끔찍한 人體實驗, 모르고 服用한 藥物로 인한 畸形兒 出產 등을 目擊한 現代醫學이 이 같은

271) 裴秉哲 編著, 基礎韓醫學, 서울, 성보사부설 전통의학연구소, 1997, p. 302, 903.

272)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137.

273)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28.

274) 唐容川著 秦伯末 批, 經驗要訣, 서울, 杏林書院, 1963, p. 1.

不幸으로부터 女性을 보호하려 했던 理由도 있었다. 그러나 80年代 後半부터 美國 國立保健院은 女性과 少數民族도 臨床實驗에 積極 包含시켜야한 다고 指摘하고 나섰다. 1991년부터 무려 20년에 걸쳐 진행되는 '女性健康研究프로젝트'를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박혜영 梨花女大教授는 “美國 主要醫大에서는 女性健康프로그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며 다만 “性認知醫學을 女性醫學으로 誤解해선 안 된다.”며 “男女 모두를 위해 보나 治療法을 찾으려는 醫學”이라고 朴教授는 강조했다. 性認知醫學에서 말하는 男과 女는 다음과 같다.

(1) 性認知醫學에서 말하는 男과 女

① 女性 心臟病患者는 비슷한 條件의 男性 患者보다 平均 10년 늦게 診斷받는다.

② 女性 糖尿病患者는 男性 患者보다 心臟病(冠狀動脈疾患)에 걸릴 確率이 약 2 倍 높다.

③ 동일한 量의 담배를 피웠을 경우 女性의 肺癌 發生率은 男性보다 3倍 높다.

④ 閉經 前까지는 女性의 血壓이 男性보다 낮지만 60歲 以後엔 女性高血壓患者가 더 많다.

⑤ 女性은 男性보다 憂鬱症을 예방하는 물질(세르토닌)을 52% 더 적게 생산한다.

⑥ 女性의 알콜 분해효소양은 男性의 약 20%에 불과하다.

⑦ 女性 過敏性大腸症候群 환자는 男性보다 6 배 많다.

⑧ 女性의 침 성분은 男性과 달리 충치나 잇몸 질환이 더 잘 생긴다.

⑨ 같은 양의 에이즈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

女性이 男性보다 감염확률이 1.6 배 높다.

⑩ 일반적인 藥物 副作用 發生危險은 女性이 男性보다 1.5배 높다.

⑪ 알츠하이머형 癡呆는 女性이 男性보다 약 1.5배 많다.

⑫ 喘息 關節炎 痲疾 偏頭痛 糖尿 憂鬱症은 모두 月經直前에 악화될 수 있다.

(2) 洋藥을 쓰는 데도 男과 女는 다르다.

아스피린의 心臟病 豫防效果는 1980년대 美國 하버드의대에서 실시한 한 研究 結果를 根據로 하고 있다. 2만 2071명의 醫師를 대상으로 이들에 한번 소량의 아스피린을 服用하게 한 결과 心臟麻痺가 현저하게(44%) 줄어들었다는 것. 그러나 이 臨床實驗 대상은 전원 男性이었다. 1990년대 들어 美國 國立保健院이 3만 9876명의 女性을 대상으로 10 년 동안 같은 研究를 한 結果는 매우 달랐다. 女性의 心臟麻痺 危險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으며, 단지 腦卒中에 걸릴 危險이 약간 낮아졌을 뿐이었다.

(3) 診斷에 있어서도 男과 女는 다르다.

1987년 美國 內科學會紙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事實이 發表됐다. 토빈 등의 研究에 따르면 醫師들이 心臟手術(마이패스 관상동맥우회수술)을 고려할 때 患者의 性別에 따라 偏見을 보인다는 것이다. 비슷한 症狀을 호소해도 患者가 女性이라면 히스테리나 엄살로 치부해거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女性 患者들은 病院을 찾아가도 소극적인 治療만 받거나 手術時期를 놓치기 쉽다는 것이었다.

(4) 性認知醫學을 보다 명확히 理解하기위한 메리엔·J·리가토박사와의 一問一答

① 性認知醫學을 시작한 動機는?

1992년 한 醫學 저널리스트와 함께 ‘女性의 心臟’이라는 책을 쓰게 됐다. 어머니를 心臟病으로 잃은 그녀가 醫師들의 偏見 때문에 女性 心臟病

患者들이 훨씬 消極인 治療를 받는다고 指摘했기 때문이다. 이후 책 홍보를 위해 美國 전역을 순회하면서 2000여명의 여성들을 만났다. 수많은 여성들이 격양된 목소리로 들려준 經驗과 呼訴는 女性의 心臟病症勢가 男性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절감케 했다. 비단 心臟病뿐만이 아닐 거란 確信이 들었다. 그래서 最高의 心臟內科 專門醫로서 누리고 있는 豐족한 研究費와 훌륭한 研究室을 모두 포기하고 女性에 관한 研究에 뛰어들었다. 내가, 그리고 現代醫學이 女性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너무도 모른다는 걸 깨달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었다.

② 性認知醫學은 페미니즘의 한 種類인가?

아니다. 性認知醫學은 男性과 女性의 差異點을 고려한 醫學이다. 이제까지 몰랐던 부분(女性)에 대해 알아야한다는 知的必要에서 비롯된 당연하고도 자연스런 純粹科學으로 보면 된다. 政治的 社會的 理念과는 無關하다.

③ 男性과 女性의 生物學的 差異를 認定하고 強調하면 오히려 男女差別을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男女가 같은가? 생긴 모습부터 다르지 않나?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길찾기’에 관한 재미있는 實驗을 했다. 그 결과 女性들은 길을 찾을 때 주로 어떤 표시를 보고 찾아가고, 男性들은 方向과 空間 개념을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지만 이런 生物學的 差異가 결코 男女差別을 正當化할 수는 없다. 男女가 다른 점은 問題解決能力의 差異가 아니라, 解決方式의 差異이기 때문이다.

④ 현재 관심을 갖고 研究 중인 분야, 앞으로 計劃은?

頭腦다. 男女의 腦가 얼마나 다른지, 研究가 進行될수록 놀라울 따름이다. 같은 狀況에서도 使用하는 部分이 다르고, 解剖學的, 生理學的, 神經學的으로 모두 다르다. 이런 差異가 모두 밝혀지면

男女가 意思疏通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올겨울에 性認知醫學을 實際 臨床에 적용하는 病院이 뉴욕에서 문을 연다. 일단은 나를 포함한 3명의 醫師가 診療할 계획인데,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關心을 보이고 있다. 우리 病院에서 修練을 받고 싶다는 醫大生들도 있다.

⑤ 女性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女性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女性들이 積極的으로 臨床實驗에 참가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男性들이 그 위험을 무릅써왔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누려 온 것이다. 물론 女性이 참가하는 臨床實驗은 費用도 훨씬 더 많이 들고 2세에 대한 危險도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무작정 피할 것이 아니라 女性들도 安全하게 參加할 수 있도록 學界, 製藥業界에 요구해야 한다. 性認知醫學이라는 새로운 世界를 볼 수 있게 해 준 것은 보통 女性들이었다.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믿고 솔직하게 表現하고 요구해 준 덕분이었다. 保守的인 醫學界가 스스로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도 보통 女性들이, 그리고 男性들이 醫學界의 變化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²⁷⁵⁾

메리앤J.리가토는 著書인 『이브의 몸』에서 “女性은 약간 축소된 男性의 複製品이 아닌 自身만의 獨特한 生理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男女간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나 아주 重要한 差異點이 存在한다는 事實이 드러났다.”²⁷⁶⁾고 말한다.

2. 變化의 立場에서의 男女

陰陽의 分化와 一體論에 대하여 尹暢烈은 “모든 事物은 陰과 陽의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陰과 陽중에서 다시 陰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를 陰陽의 分化라고 한다. 즉 陰中에서도 다시 陰陽으로 區分할 수가 있고 陽中에서도 다시 陰陽으로 나누워질 수 있으며 다시 무궁

275) 朝鮮日報 2005年 9月 21日 D1, D5面.

276) 메리앤J.리가토 著. 임지원 譯. 이브의 몸. 서울. (주)사이언스북스. 2004. p. 30.

무진하게 陰陽으로 나누워 갈 수가 있다. 이를 『素問·陰陽離合論』에서는 “陰陽者는 數之可十이면 推之可百이요 數之可千이면 推之可萬이니 萬之大는 不可勝數나 然이나 其要는 一也라”²⁷⁷⁾ 하였다.

그런데, 男女가 根本적으로 그 構造와 生理 病理가 다르다는 立場에서 즉, 生殖器上의 男女가 다르다는 것을 위에 不變의 立場에서 충분히 밝혔다. 그러나 陰속에 陰陽이 있고 陽속에 陰陽이 있는 까닭에 形象적인 面에서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形象으로 보는 男女는 變化의 立場에서의 男女라 하겠다. 이를 『東醫寶鑑·身形臟腑論』에서 “一般적으로 사람의 形體는 긴 편이 짧은 편만 못하며 큰 편이 작은 편만 못하고 살찐 편이 여윈 편만 못하며 흰 편이 검은 편만 못하고 嫩한 편이 蒼한 편만 못하며 옅은 편이 두터운 편만 못한 것이다. 더욱이 살이 찌면 濕이 많고 여위면 火가 많으며, 희면 肺氣가 虛하고 검은 편이면 腎氣가 足하므로 사람에게 따라서 形色이 다르고 臟腑도 같지 않으니 外症은 비록 같을지라도 治法은 사람에게 따라 判異하다.”라고 하여 形象에 따라 治法을 다르게 해야 함을 朱丹溪의 말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것을 朴仁圭는 “男女는 順逆이 되므로 剛柔로 變化하여 適應해가고, 晝夜의 寒熱에 적응하기 위하여 肥瘦로 變하고, 四時의 虛實에 적응하기 위하여 黑白 즉 陰盛陽虛 陽盛陰虛로 變化한다. 그리고 六氣에 相應하기 위해서 氣血의 多少 즉 長短으로 變化한다. 이러한 양상은 삶에 있어서 自體의 性情도 다르고 生存하는 방식도 다르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있고 마른 사람이 있고, 얼굴이 검은 사람이 있고 얼굴이 흰 사람도 있고, 인상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인상이 무서운 사람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 이러한 樣相은 삶에 있어서 自體의 性情도 다르고 生存하는 방식도 다르다. 사람이 外的條件에 相應하기 위하여 變化를 피하는 理致를 밝히는 것이 醫學 本然의 使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形象인 肥瘦, 黑白, 剛柔, 長短을 통해 外的條件에 어떻게 適應해 가는 가를 기틀로 해서 病因과 病理를 추구하는 것

이다.”²⁷⁸⁾ “男子는 剛·黑·肥·長하고 女子는 柔·白·瘦·短한 것이 原則이다.”²⁷⁹⁾라고 하여 肥瘦 黑白 長短 剛柔를 男女의 기준으로 삼았다. ‘形象이 있는 곳에 法則이 內在되어 있다. 그러므로 形象을 모르고 病理를 추구할 수 없다.’²⁸⁰⁾라고 하여 形象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形象은 統體(全體)와 個體(部分)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²⁸¹⁾ 그러면 變化의 立場에서의 男女의 形象이 肥瘦 黑白 長短 剛柔를 기준으로 하여 男子는 剛·黑·肥·長하고 女子는 柔·白·瘦·短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形象에 대해 說明하고 다음에 變化의 立場에서의 男女에 대해 說明하도록 하겠다.

1) 形象에 대한 理解

(1) 形象의 定義

形이란 人體의 特性이 겉으로 들어나는 肥瘦 大小 長短 등의 有形한 形體를 뜻하고, 象이란 人體에 內在된 本質이 徵兆나 기미로 나타나는 色脈 症狀등을 말한다.²⁸²⁾

(2) 形象을 보아야 하는 理由

形象이란 天地萬物의 組織 運行하는 形態가 우리가 認識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인데 形象이 같으면 그 組織 運行하는 法則이 같은 까닭에서이다.²⁸³⁾ 女子가 男子 같으면 陰中之陽이고 男子가 女子 같으면 陽中之陰이 된다. 男女의 用藥法만으로 用藥하지 않고 여러 가지 處方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것은 體用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²⁸⁴⁾

277) 尹暢烈, 醫哲學, 大田, 周珉出版社, 2005, p. 36.

278)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Ⅶ, 서울, 지산출판사, 1999, p. 75.

279)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Ⅴ,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57.

280)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Ⅵ,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17.

281) 朴仁圭, 너와 나의 세계, 서울, 芝山出版社, 2000, p. 58.

282) 李仁洙, 形象醫學에 대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2, p. 8,9.

283) 李仁洙, 形象醫學에 대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2, p. 8-11.

284)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Ⅳ,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4.

(3) 形象의 구분(肥瘦, 黑白, 剛柔, 長短)

肥瘦 長短은 形論으로 몸에서 나타나고, 逆順 黑白은 象論으로 얼굴에 나타난다.²⁸⁵⁾ 肥瘦, 黑白, 長短, 剛柔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肥瘦黑白

肥瘦·黑白·剛柔를 氣의 虛實로 나누면 白은 氣虛해서 집안에 잘 있고, 黑은 氣實해서 잘 돌아다닌다. 剛한 것은 氣虛하니까 공기저항에 잘 이기라고 강하다. 또 柔한 것은 氣實하니까 강할 필요가 없어서 柔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공기저항을 잘 이겨나가게 되어 있다. 肥한 것은 氣虛하고 瘦한 것은 氣實하다.²⁸⁶⁾

㉡ 肥瘦長短은 病이 留하는 집이다. 즉 形論이다. 원숭이면 원숭이病, 소면 소病, 사람이면 사람病이 오는 것을 말한다. 그 形에 그 病이 온다. 存在하는 自體가 矛盾이다. 男子는 男子病이 오는 것은 存在 自體가 흠으로 病이 온 것이다. 그 흠 그 自體에 病이 留하는 것이다.

肥瘦와 長短에 대해 韓長庚의 『周易·正易』에서 “男體는 陽이오 女體는 陰이라 男子의 體軀와 體力은 女體보다 大하니 이는 陽大陰小함이오 女體는 胞宮을 有하고 모든 人類는 이 胞宮중에서 길러서 出生하니 이는 陰大陽小함이며 …… 287)”라고 하여 男子는 크고 女子는 작다는 것을 說明하였다. 男體가 陽이란 말은 發揚된 體를 의미한다. 男子는 體軀가 女子보다 크며 體力도 강하다. 女體가 陰이란 말은 收斂된 體로 작다는 意味이다. 그러므로 肥瘦나 大小의 관점에서 男子는 肥하고 長하며 女子는 瘦하고 短함을 알 수 있다.

㉢ 黑白과 剛柔에 대해

『東醫寶鑑·身形臟腑論』에서 皮膚色이 검으면

285)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377.

286)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190.

287) 韓長庚. 周易·正易. 서울. 삶과 꿈. 2001. p. 12.

腎氣가 足한 것이며 虧면 肺氣가 虛한 것이라고 하였다. ‘뼈는 腎에 屬한다.’²⁸⁸⁾고 하여 腎은 骨을 주관한다고 하였으며 『辨證門』에 “男子의 病은 房勞를 물어야 하며 女子의 病은 月經과 孕胎의 與否를 물어야 한다.”²⁸⁹⁾고 하였다. 이 말은 男子는 뼈를 위주로 살아가며 女子는 血을 위주로 살아가는 意味가 있다. 『周易』에 대한 해설서인 『醫易啓悟』에서는 卦중의 두가지 기호인 --를 卦爻辭에서는 大小라 하였고, 『雜卦·彖傳』에서는 剛柔라 하였다.²⁹⁰⁾ 또 尹暢烈의 『醫哲學』에서는 氣와 質을 분리해서 언급할 때에 氣를 위주한 天道의 變化에는 陰陽을 주로 使用하고 質을 위주한 地道의 변화에는 剛柔라는 表現을 주로 使用한다고 하였다.²⁹¹⁾ 人體에 있어서 머리는 天으로 몸은 地로 보면, 몸의 質을 筋骨과 肌肉으로 나눌 수 있고 筋骨은 剛으로 肌肉은 柔로 나타낼 수 있다.²⁹²⁾ 人體에 있어서 男子는 筋骨이 발달하였고 女子는 肌肉이 발달하였다. 男子는 發揚된 體로 몸이 큰 陰이므로 햇빛을 받아야 하므로 피부가 검다고 할 수 있다. 男子는 腎을 위주로 사니 검은 색은 腎을 뜻하며 女子는 血을 위주로 되어 氣를 운행시켜야 하므로 희어야 한다. 이 말에는 男子는 땀을 흘려 몸이 차가워야 하며 여자는 땀을 흘리지 않아서 몸이 더워야 한다는 意味를 담고 있다. 암탉이 몸이 더워야 알을 품을 수 있는 理致와 같다. 男子는 몸이 더워서 病이 오고 女子는 몸이 차가워서 病이 온다.

(4) 『東醫寶鑑』을 中心으로 男女의 形象을 살피는 이유

『東醫寶鑑』은 疾病中心이 아닌 몸을 中心으로 되어 있다. 더 자세히 말하면 『東醫寶鑑』의 目次는

288) 許浚. 윤석희 外 7人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 出版社. 2005. p. 769.

289) 許浚. (國譯增補)東醫寶鑑. 南山堂. 1995. p. 480.

290) 郭東烈 編譯. 醫易啓悟. 서울. 성보사. 1997. p. 27.

291) 尹暢烈. 醫哲學. 大田. 周珉出版社. 2005. p. 43.

292) 張介賓 選. 김은하 編譯. (國譯) 類經圖翼 運氣編. 서울. 一中社. 1992. p. 9.

“天之四象 人有耳目口鼻 以應之 地之四象 人有氣血骨肉 以應之”

形象으로 되어 있다.²⁹³⁾ 그밖에 氣의 用藥法에 男女에 따라 用藥하는 것을 말하였고, 『東醫寶鑑』全體에 男女에 따라 다른 것을 자세히 서술해 놓았다.

2) 變化의 立場에서의 男女

生殖器上의 男女의 差異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男女의 基準로 肥瘦 黑白 長短 剛柔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이 不變의 立場인 동시에 變化의 立場이 되는 까닭이다. 男子가 몸의 形態가 크고 피부색이 검으며 키가 크고 뼈가 발달한 特徵이 있고, 女子가 몸의 形態가 적고 피부색이 희며 키가 작으며 뼈가 가는 特徵이 있다는 基準을 가지고 보지만 모든 男子가 이러한 네 가지 形態의인 特性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女子가 이러한 네 가지 特性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錯綜되어서(섞여서)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各各 나뉘 보면 다음과 같다.

(1) 肥瘦

말 그대로의 肥瘦는 男子는 肥하고 女子는 瘦하다. 男子가 살집도 女子보다 있지만 肥는 전체적인 形態가 크다는 의미이고 瘦는 전체적인 形態가 작다는 의미라고 본다. 肥人은 氣虛濕痰 하니 胃氣를 좋게 해주어야 한다.²⁹⁴⁾ 肥라는 것은 움직이기가 둔하다는 뜻이고 瘦라는 말은 몸이 가볍다는 뜻이다.²⁹⁵⁾ 뚱뚱한 사람은 잠이 많고, 마른 사람은 깊은 잠을 못 자는데, 마른 사람은 먹는 것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²⁹⁶⁾ 낮에는 햇볕이 熱하여 흠어지니까 여위어지고 氣가 虛한 사람은 熱에 견디기 어렵다. 밤은 寒하기에 모이고 오므라진다. 血虛한 사람은 견디기 어렵다. 낮과 밤의 썩먹고 모으는 것을 반복해 가는 가운데 晝夜

의 長短으로 肥瘦가 나타난다.²⁹⁷⁾ 人間은 晝夜에 따라 活動과 休息을 한다. 즉 해가 뜨면 사람은 눈을 뜨고 일어나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 눈을 감고 잠을 자야한다. 이것은 自然의 理致에 順應하는 것인데 이에 逆하면 病이다. 다시 말하자면 해가 길고 밤이 짧은 것을 陽盛陰虛라고 하고 밤이 길고 낮이 짧은 것을 陰盛陽虛라고 한다.

(肥瘦=寒熱)
晝--瘦--熱--氣實血虛-耐熱而不耐寒--寒--象血
夜--肥--寒--血實氣虛-耐寒而不耐熱--熱--象氣

낮에는 햇빛이 있기 때문에 熱하여 모든 萬物이 흠어지고, 흠어지니까 血虛하여 여위어지고 氣가 虛한 사람은 熱에 견디기 어렵다. 밤은 寒하기에 모이고 오므라진다. 그래서 밤에는 陰血을 기른다. 그러므로 밤에는 차니까 血虛한 사람은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밤에는 陰血을 길러 살찌게 한다. 낮에는 썩먹고 밤에는 모은다. 낮과 밤의 썩먹고 모으는 過程을 되풀이해서 반복해 가는 가운데 晝夜에는 長短이 있기 때문에 人體에서는 肥瘦로 나뉜다. 肥人은 氣가 虛하여 寒을 낳고 寒이 濕을 낳고 濕이 痰을 낳기에 肥人은 寒濕이 많다. 瘦人은 血이 虛하여 熱을 낳고 熱이 火를 낳고 火가 燥를 낳는 故로 瘦人은 燥熱이 많다²⁹⁸⁾ 살이 썩는 것은 人體가 內寒과 外寒을 견디기 위해서다²⁹⁹⁾ 살찌는 것은 人體가 內寒과 外寒을 견디기 위해서 形成된 것으로 본다. 寒冷溫熱로 푸는 것은 人體를 粒子로 보았을 때의 얘기다. 즉 人體를 素粒子의 集體로 보라는 말이다. 空氣粒子의 運動이 밤에는 陰氣를 받아서 차가워져서 下降하고, 낮에는 陽氣(햇빛)을 받아서 더워져서 上昇하듯이 人體의 소립자들도 날씨가 추워지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퍼지고(살이 썩고), 날씨가 더워지면 위로 올라가지? 즉 자라고 못 자라고 하는 것은 寒冷溫熱에 따른 粒子의 浮沈升降에 의해서 결정되

293) 李仁洙, 東醫寶鑑의 目次에 대한 研究, 大韓形象醫學會誌, 2004, 5(1).

294)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255.

295)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189.

296)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332.

297)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VII, 서울, 지산출판사, 1999, p. 142.

298)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VII, 서울, 지산출판사, 1999, p. 146.

299)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98.

는 것이다.

코로攝取하는 대기뿐만 아니라 입으로 섭취하는 飮食도 역시 살이 찌게하고 키를 크게 해준다. 물을 마시면 자라고 밥을 먹으면 옆으로 퍼져 살이 쩐다. 소년 사람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추운 곳과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膏梁厚味를 먹는다고 했는데, 모두 옆으로 퍼지게 하는 조건들로만 되어 있어서 살이 쩐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內寒과 外寒의 침범을 받으면 中寒이 되어서 昏憒상태가 되거나 졸도하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코끼리와 곰은 가을에 잘 먹어서 살이 찌야 겨울을 잘 이겨내게 되어 있다. 또한 種子들도 가을에 精을 充滿시켜야 固密해져서 겨울을 잘 견딜 수 있고 生命을 유지할 수 있다. 가을에 수확한 쌀이나 밤이나 감자 등은 알맹이가 충실해야 이듬해 봄에 싹이 터올라 오는데 그렇지 못하면 바람이 든다.

『東醫寶鑑』에 보면 여러 곳에 肥瘦에 대해 나와 있다.

㉑ 肥瘦의 用藥法

肥人은 氣가 虛하고 痰이 많으니 마땅히 痰을 소통하고 氣를 補해야 하며 瘦人은 血이 虛하고 火가 有餘하니 마땅히 火를 瀉하고 陰을 불게 해주어야 한다.

肥人과 얼굴이 흰 사람은 氣를 補해야 한다.³⁰⁰⁾

㉒ 「氣門·黃芪」

身體가 肥白하고 氣가 虛한 사람은 많이 먹으면 좋고 신체가 검고 氣가 實한 사람은 안 먹는 것이 좋다.³⁰¹⁾

㉓ 「頭門·眩暈」

眩暈은 中風의 始初이니 肥白한 사람은 四君子湯을 쓰고 倍蜜灸黃芪에 陳皮半夏를 加하고 川芎 荊芥를 少加하여 頭目을 맑힐 것이며 黑瘦한 사람은 二陳湯四物湯을 合하여 黃芩 薄荷를 加하

고 竹瀝 薑汁 童便을 넣어서 쓴다.³⁰²⁾

위가 虛하면 眩暈하고 아래가 虛하면 逆厥하고 肥人은 濕이 많고 瘦人은 熱이 많다.³⁰³⁾

㉔ 「辨證門·肥瘦로 병세를 분별하는 경우」

肥人은 氣가 虛하여 寒을 낳고 寒이 濕을 낳고 濕이 痰을 낳고 瘦人은 血이 虛하여 熱을 낳고 熱이 火를 낳고 火가 燥를 낳는 故로 肥人은 寒濕이 많고 瘦人은 燥熱이 많다.³⁰⁴⁾ 寒과 濕은 陰에 屬하고 燥와 熱은 陽에 屬하니 사람의 모든 病이 이 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약을 잘 쓰면 이는 苦寒한 것으로 陽을 洩하고 辛溫한 것으로 陰을 肅하면 病이 낫지 않는 것이 없는 법이다. 내가 항상 防風通聖散으로 熱燥를 다스리고 生料五積散으로 寒濕을 다스리니 각기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누침하였다.³⁰⁵⁾

㉕ 「診脈門·肥瘦長短의 異脈의 경우」

대개 脈은 肥人은 浮한 것을 責하고 瘦人은 沈한 것을 責하니 肥人이 마땅히 沈해야 할 것이 도리어 浮하고 瘦人이 마땅히 浮해야 할 것이 도리어 沈한 故로 責하는 것이다. 대개 肥人은 肌膚가 두껍기 때문에 脈이 沈한 것이요 瘦人은 肌膚가 얇기 때문에 脈이 浮한 법이다.(仲景) 肥人은 肉이 두꺼우니 맥이 沈結해야 하고 瘦人은 肉이 얇으니 脈이 浮長해야 한다.(入門)³⁰⁶⁾

㉖ 「風門·肥人의 中風의 경우」

肥滿하면 걸리는 수가 있으니 그것은 역시 形이 盛하고 氣가 衰해서 그러한 것이다. 肥人에게 中風이 많은 것은 氣가 밖에는 盛하고 안에는 모자라는 것이다.³⁰⁷⁾

30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227.

303)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 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908.

304)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 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920.

30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496.

306)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 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939.

307)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 東醫寶鑑. 경남. 東醫寶

30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496.

30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8.

㉔ 「脹滿門·脹滿의 治法의 경우」

肥人의 腹脹은 濕이니 蒼朮 茯苓 滑石 澤瀉를 쓰고 瘦人의 腹脹은 熱이니 芎藭 梔子 厚朴을 쓰며 색이 흰 사람은 氣虛한 것이니 人蔘 白朮 白茯苓 陳皮를 쓴다.³⁰⁸⁾

(2) 黑白

色은 靑赤黃白黑의 五色으로 五臟에 配屬된다.³⁰⁹⁾ 그러나 크게 陰陽으로 나누면 白은 陽이고 黑은 陰이다.³¹⁰⁾

黑白에 대해 男子는 피부색이 검은 것이 원칙이고 女子는 피부색이 흰 것이 원칙이다. 男子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햇빛을 받아야 하며 女子는 안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면이 있다. 男子의 글자도 밭에 나가서 힘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 女子는 햇빛을 보면 안 되기에 양산을 쓰게 되어 있다.

얼굴이 까무잡잡한 女子는 氣가 세다.³¹¹⁾ 예를 들어 女子인데 등살이 바르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이 사람은 氣가 센 女子이다. 小烏沈湯을 써서 氣를 흩어줘야 된다. 얼굴이 까무잡잡한 女子는 氣가 더 세다.

肥人과 얼굴이 흰 사람은 氣를 補해야 한다. 얼굴이 흰 사람은 發散하는 약을 많이 먹으면 元氣가 虛한데 다시 虧乏을 더하는 것이요, 얼굴이 검은 사람은 黃芪를 많이 먹으면 그 氣가 實한데 또 補하는 법이다. 氣가 實한데 黃芪를 과히 먹고 喘息하는 것은 三拗湯으로써 瀉한다.³¹²⁾

「內傷門·酒傷」

얼굴이 흰 사람이 過飲하면 血을 耗損한다.(丹心)³¹³⁾

黑白 - 얼굴이 검다면 햇빛을 받아들이고, 희다면 햇빛을 싫어한다.³¹⁴⁾

검다는 것은 햇빛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그에 반해 얼굴이 희다는 것은 햇빛을 싫어하고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色은 어느 장기의 虛實을 나타내 준다.³¹⁵⁾ 얼굴이 검다는 것은 햇빛을 받아야겠다. 내지는 햇빛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얼굴이 희다는 것은 햇빛을 반사한다는 뜻이다. 바닷물이 검은 것은 햇빛을 받기 위한 것이고 또 腎臟이 깊은 데 있으므로 그 色이 검다. 얼굴이 검으면 外氣에 강하고 內傷에 약하다. 얼굴이 희면 內傷에 강하고, 外氣에 약하다.³¹⁶⁾ 男子는 햇빛을 받기 위해 나가려고 한다. 女子가 햇빛을 忌하는 것은 上이 地이고 밑에가 天이기 때문이다.³¹⁷⁾ 하늘이 地氣를 받으면 風寒暑濕燥火가 일어나고 땅이 天氣를 받아야 生長收藏을 일으킨다. 이 말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햇빛을 보고 자란다. 햇빛을 받아야 굳혀진다. 나무가 싹이 올라오다가 햇빛을 안 보면 쓰러져 버린다. 즉 굳히질 못한다. 견고해지지 못한다. 男子가 밖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햇빛을 받기 위해 나가려고 한다. 女子가 양산 쓰는 것은 햇빛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順逆이 있기 때문이다. 男子는 上이 天이니가 天氣를 받아야 자란다.(여기서 상하는 몸을 얘기) 위에는 天이 되고 밑에는 地가 되니까 天은 天과 類類相從해야 하니까 天氣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다녀야 한다. 女子가 햇빛을 忌하는 것은 上이 地이고 밑에가 天이기 때문이다. 逆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

鑑出版社, 2005, p. 987.

308)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1430.

30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469.

310) 尹暢烈. 醫哲學. 大田, 周珉出版社, 2005, p. 87.

311)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67.

312)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958.

313)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1212.

314)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189.

315)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 서울, 지산출판사, 1996, p. 262.

316)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259.

317)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178.

는 위애가 地氣니까 머리가 뿌리가 되어 있다. 뿌리가 햇빛을 받으면 죽는다. 그래서 風寒暑濕燥火가 들어가는 것이다.

(3) 長短

長短에서 女子는 天地가 交合되어 있기에 키가 작고, 男子는 반대니 키가 크다.³¹⁸⁾ 男子는 키가 큰 것이 원칙이고 女子는 키가 작은 것이 원칙이다. 男子는 하늘의 기운을 많이 받아서 키가 크고, 女子는 땅의 기운을 많이 받기에 키가 작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쉽기에 키가 크고 땅에서 올라가는 것이 힘들므로 키가 작다. 男子는 어깨가 넓고 女子는 엉덩이가 크며 살이 찌더라도 男子는 배가 나오는데 비해 女子는 허벅지가 찌기 쉽다. 男子가 키가 작은 것은 天氣不足이니 氣藥을 써야 한다.³¹⁹⁾ 호리호리한 것은 氣가 盛해서 吐하기 쉽다. 땅딸한 것은 精이 盛해서 泄瀉하기 쉽다.³²⁰⁾ 長이란 것은 天氣를 많이 받아들이고, 短이란 말은 地氣를 많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長이란 것은 햇빛을 보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길다는 것이고 따라서 天氣를 많이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어. 반면에 短이란 말은 地氣를 많이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지. 긴 것은 中氣不足이다.³²¹⁾ 키가 크다는 것은 精이 부족하여 온다는 뜻이다.³²²⁾ 키가 크다는 얘기는 精이 부족하여서 온다는 뜻이다. 그래서 肝腎을 돈구워줄 수도 있는데, 四六湯이 여기에 해당한다. 키가 크면 男子로 金氣를 강하게 해주는 四君子湯을 쓸 수 있고, 키가 작으면 女子로 木氣를 강하게 해주는 四物湯을 쓸 수 있다.³²³⁾

318)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178
 319)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119.
 320)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252.
 321)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230.
 322)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389.
 323)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53.

키의 長短에 따른 男女의 生理病理를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가? 키가 큰 것은 男子로 보는 데 이때는 木氣는 旺하고 金氣는 弱하므로 金氣를 강하게 해주는 四君子湯을 쓸 수 있고, 키가 작다는 것은 金氣는 旺하고 木氣가 弱한 것으로 木氣를 강하게 해주는 四物湯을 쓸 수 있다. 이것은 키 큰 男子와 키 작은 女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키가 작은 학생은 八物湯을 쓰고, 肺病形처럼 키가 너무 크기만 하고 마른 경우엔 六味地黃湯을 쓴다.³²⁴⁾ 키가 작은 사람과 키가 큰 사람에게는 어떻게 用藥하는 것이 좋은가? 키가 작은 학생들을 크게 할 경우는 옆으로 누르고 아래위로 눌러주는 八物湯을 쓰고, 肺病形처럼 키가 너무 크기만 하고 마른 경우엔 아래위로 눌러주는 六味地黃湯을 쓴다. 왜 八物湯이 左右로 눌러주고 六味地黃湯은 上下에서 눌러주는 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金木은 左右에서 水火는 上下에서 中心으로 凝集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八物湯이 어린이의 키를 잘 크게 해주는데 六味地黃湯은 살찌게 하는데 쓰는 것이군요. 사람의 形體가 짧으면 脈이 또한 짧고 形體가 길면 脈이 또한 긴 편인데 이것을 反하면 凶하다. 性質이 緩하면 脈이 또한 緩하고 性質이 急하면 脈이 또한 急한 편이다.³²⁵⁾

(4) 剛柔

女子는 春夏之象으로 天地가 交合된 것이니 부드럽고, 男子는 秋冬之象으로 反對니 剛하다.³²⁶⁾ 男子는 뼈가 발달한 것이 원칙이고 女子는 뼈가 가는 것이 原則이다. 腎은 骨之舍이며 腎主液이므로 男子腰痛에 腎虛의 의미는 뼈의 津液(骨髓)이 不足하다는 의미로 六味地黃湯을 쓴다. 女子는 逆하기 때문에 外柔內剛이고, 男子는 順하기 때문에 外剛內柔다. ³²⁷⁾ 女子가 男子처럼 강하게 생겼다

324)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53.
 325)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939.
 326)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178

면 秋冬之象이다. 반면에 男子가 柔하게 생겼다면 春夏之象이 된다.³²⁸⁾ 男子는 剛하고 健하고 女子는 柔하고 順하다.³²⁹⁾ 男子는 剛하게 만들어졌고 女子는 柔하게 만들어졌다. 즉 男子는 筋骨로 이루어졌고 女子는 皮肉으로 이루어졌다.³³⁰⁾ 剛하다는 말은 化現되었다는 뜻이다.³³¹⁾ 剛하다는 말은 化現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化現되었다는 것은 속이 軟하다는 뜻이다. 쉽게 얘기하면 호도알과 같다. 반면에 柔하다는 것은 속이 단단하지만 겉으로는 柔한 것이다. 男子는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이 柔해서 女子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다. 머리에서 보면 위는 剛하고 아래는 柔해. 가슴에서 보면 앞은 柔하고 뒤는 剛하지. 또 아랫배(밑)에서 보면 앞은 剛하고(뺨니까) 뒤(허리, 臀部)는 柔하게 되어 있다.³³²⁾ 머리에서 보면 위는 剛하고 아래는 柔해. 가슴에서 보면 앞은 柔하고 뒤는 剛하지. 또 아랫배(밑)에서 보면 앞은 剛하고(뺨니까) 뒤(허리, 臀部)는 柔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앓는 것은 부드러운 臀部로 앓는 것이다.

그러면 剛柔가 뭐냐는 의문이 다시 생기는데 엄지손가락은 剛하고 새끼손가락은 柔하다. 엄지손가락같이 剛한 곳에 病이 들면 氣血이 나쁘다 하는 것이고, 새끼손가락같이 柔한 곳에 病이 들면 血氣가 나쁘다고 하는 거야. 같은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해석이 달라져. 그렇지만 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것이 문제야. 女子가 男子처럼 剛하게 생겼다면 秋冬之象이다. 반면에 男子가 柔하게 생겼다면 春夏之象이 된다. 剛柔를 대입시키면 된다.³³³⁾ 광대뼈가 발달된 것은 뼈가

굵은 경우로 補精을 爲主 치료하며, 광대뼈가 안 나온 자는 뼈가 가는 경우로 養血을 爲主로 치료한다.³³⁴⁾³³⁵⁾

사람의 몸을 배꼽을 중심으로 上下로 나누어 보면 上體는 肺가 있기에 나뭇잎처럼 하늘을 보고 뻗어 있고 下體는 뿌리처럼 根이 되어 땅으로 내려 있는 형상을 이루고 있다. 女子는 목을 중심으로 上體와 下體를 나누어 보면 上體인 머리는 植物의 열매처럼 둥글고 (心根) 下體는 꽃잎처럼 퍼져있다. (肝葉) 女子(動物)는 머리가 하늘과 맞서 있기에 逆하고 男子(植物)는 머리를 땅에 박고 있으니 順이라고 한다.³³⁶⁾ 男子는 肺腎이 主가 되어 雙으로 이루어져 左右運動을 한다. 女子는 心肝이 主가 되어 單으로 이루어져 上下運動을 한다.³³⁷⁾ 男子는 雙으로 된 肺腎을 爲主로하므로 靜하여 不變하려고 한다. 女子는 單으로 된 心肝을 爲主로하므로 動하여 變化를 즐긴다. 變化하는 臟器는 心肝이고 女子다. 女子에게 血을 調養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心肝의 變化를 조절해 준다는 뜻이다.³³⁸⁾

男子는 女子를 볼 때 얼굴에서부터 젓가슴 위까지만 보고, 女子는 男子를 볼 때 발에서 배꼽까지를 본다. 즉 男子는 表를 보고 女子는 裏를 본다. 그래서 男子는 예쁜 女子를 좋아하고 女子는 마음이 착한 男子를 좋아한다. 男子는 女子를 볼 때 種子를 심을 밭이 좋은지를 보고(五行이 바른 지 보고) 女子는 男子를 볼 때 뿌리 혹 종자가 좋은가를 보는 것(힘이 있는지를 보고)이다.³³⁹⁾

327)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Ⅲ.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252.
 328)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Ⅲ.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323.
 329)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Ⅴ.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28.
 330)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Ⅴ.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306.
 331)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Ⅱ.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189.
 332)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Ⅱ. 서울. 지산출판사. 1997. p. 199.
 333)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Ⅲ. 서울. 지산

출판사. 1997. p. 323.
 334)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Ⅰ. 서울. 지산출판사. 1996. p. 50.
 33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97. 광대뼈가 크면 뼈이 크고 작으면 뼈이 작다.
 336) 朴仁圭. 너와 나의 세계. 서울. 지산출판사. 2000. p. 154-155.
 337)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Ⅴ.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57.
 338)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Ⅴ.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305.
 339)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Ⅴ. 서울. 지산출판사. 1998. p. 57.

3. 臨床例

앞에서 이미 理論的으로 ‘不變의 立場에서의 男女’와 ‘變化의 立場에서의 男女’의 醫學的 運用에 대해 說明하였으나, 實際로 臨床例를 들어 考察하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臨床例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

1. 최** 女子 54세 2000年 5月 20日 來院

形象：肥白하다.

症狀：몸이 무겁고 명치 밑이 약간 답답하고 消化가 안되고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고 右側 팔다리가 저리고 약간 진다. 某 綜合病院에 가서 MRI를 했더니 腦硬塞이 약간 있다고 한다. 脈은 左右 66번 켜다. 最近에 神經을 많이 쓰고 體重이 增加하였다고 한다.

治療 및 經過：右氣左血인데 右手足이 저리고 體重이 늘며 肥白하므로 氣虛하다. 食傷의 補益劑인 錢氏異功散을 투여하였다. 1劑를 복용하고 팔다리저린 것이 많이 나왔고 連續하여 3劑를 服用하고 다 나왔다. 5年前이었고 現在 59歲인데 健康하다.

考察：肥하므로 氣虛하다. 變化의 立場에서 男子로 보아 食傷에 氣를 補하여 治療하는 錢氏異功散을 投與한 것이다. 脾胃가 弱하고 飲食을 消化하지 못하는 症에는 一括的으로 剋伐하는 藥을 쓰지 못하는 법이니 錢氏異功散으로 補하면 自然히 能食한다. 錢氏異功散은 四君子湯에 陳皮 木香을 加한 處方이다.³⁴⁰⁾

2. 한** 女子 51歲 2005年 8月12日 來院

形象：瘦白하다. 코가 오뎅하다.

症狀：胃炎 腸炎이 있고 背痛이 있다. 中耳炎이 잘 걸린다. 吞酸 洋藥을 안 먹으면 속이 쓰려 견딜 수 없다. 不眠 淺眠 體重이 많이 減少되었다. 입술이 마른다. 脈은 오른쪽은70번 왼쪽은 72번 켜다.

治療 및 經過：食傷이 變해 噎氣 吞酸이 되므로³⁴¹⁾ 吞酸에 쓰는 二陳湯 加 蒼朮 神麩 麥芽 1錢

黃連(薑炒)5分³⁴²⁾ 1劑를 주었다. 1劑를 투여하고 많이 好轉되었으며 3劑를 投與하여 症狀이 거의 다 消失되었다.

考察：女子이므로 氣가 實하다. 二陳湯은 女子에게 쓰는 藥이다. 不變의 立場에서 쓴 것이다.

3. 이** 女子 26歲 2005년 5月 4日 來院

形象：肥白하다. 키가 크고 뼈가 굵다.

症狀：입이 마르고 帶下가 있다. 心下痞 噎氣 氣가 많이 찬다. 疝症이 있다. 頭痛 咽痛이 있고 熱이 오르내린다. 脛치가 아프다. 脈은 오른쪽은 64번 왼쪽은 66번 켜다.

治療 및 經過：二陳湯 加 蒼朮 神麩 麥芽 升麻 柴胡 1錢 黃連(薑炒)5分 1劑를 투여하였다. 1劑를 投與하고 많이 好轉되었다.

考察：肥하고 키가 크고 뼈가 굵지만 女子藥인 二陳湯을 투여하였다. 不變의 立場에서 女子이기 때문이다. 疝症의 基本方은 二陳湯이다.³⁴³⁾ 帶下가 있는 것은 消化가 안되는 것이 아래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噎氣에 二陳湯 加 蒼朮 神麩 麥芽 1錢 黃連(薑炒)5分을 쓰고³⁴⁴⁾ 帶下에는 二陳湯 加 蒼朮 白朮 升麻 柴胡 1錢을 쓴다.³⁴⁵⁾

4. 이** 男子 16歲 2005年 7月 8日 來院

形象：肥黑하다. 뼈가 굵다.

症狀：여드름이 上體에 있다. 코피를 잘 흘린다. 脈은 오른쪽은 84 왼쪽도 84번 켜다.

治療 및 經過：六味地黃湯 加 知母 黃柏 1錢 1劑를 投與하여 여드름이 많이 없어졌다.

考察：不變의 立場에서 쓴 것이다. 男子는 腎속 氣운이 부족해서 얼굴에 여드름이 날 수 있다. 骨屬腎³⁴⁶⁾인데 六味地黃湯은 腎을 補하는 藥이다.³⁴⁷⁾ 知母, 黃柏은 皮膚를 呼吸시켜주는 藥이다.³⁴⁸⁾

34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55.

34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434.

34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55.

34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52.

34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96.

34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74.

34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92.

34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39.

34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50.

651.內傷이 變하여 噎氣 吞酸 嘈雜 噎膈 反胃가 된다.

5. 김** 男子 30歲 2005年 6月 14日 來院

形象 : 瘦白하다

症狀 : 얼굴이 잘 붉어지고 全身의 皮膚가 다 거칠다. 心下痞(속이 더부룩하다) 噯氣(트립) 吞酸(속이 쓰림)이 있다. 神經을 많이 쓴다. 밤에 심하다.

治療 및 經過 : 養血四物湯³⁴⁹⁾을 써서 內傷症狀(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고 속쓰린 것)이 좋아지고 皮膚가 거친 것도 많이 好轉되었다.

考察 : 男子이지만 말랐으므로 女子로 보고 變化의 立場에서 藥을 쓴 것이다. 神經을 쓰는 것은 心에 해당되고 밤에 심한 것은 血症이다.³⁵⁰⁾ 四物湯을 쓴다.

6. 엄** 女子 14歲 2005年 4月 6日 來院

形象 : 몸집이 크고 희다.(肥白)

症狀 : 얼굴이 갈라지고 팔꿈치 뒤에 아토피가 있다. 저녁에 많이 가렵다. 손톱이 시원찮다. 脈은 오른쪽은 72번 왼쪽은 70번 된다.

治療 및 經過 : 四物湯 加 知母 黃柏1錢을 써서 얼굴이 갈라진 것이 나왔다.

考察 : 不變의 立場에서 藥을 쓴 것이다. 손톱이 나쁜 것은 肝藏血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³⁵¹⁾ 女子는 血을 위주로 산다.

7. 박** 女子 72歲 5월 18일 來院

形象 : 몸집이 작고 희다. 뼈가 굵다.

症狀 : 왼쪽 옆구리가 아프고 腰痛이 있다.

治療 및 經過 : 六味地黃湯加 當歸 木瓜 續斷1錢³⁵²⁾을 써서 腰痛이 나왔다.

考察 : 女子이지만 뼈가 굵으므로 剛柔의 立場에서 男子로 보고 變化의 立場에서 藥을 쓴 것이다. 骨屬腎³⁵³⁾인데 六味地黃湯은 腎을 補하는 藥

이다.³⁵⁴⁾

8. 윤** 男子 50歲 2005년 10월

形象 : 몸집이 크다.

症狀 : MRI상 腰椎가 많이 내려앉았다. 심한 腰痛으로 움직이기 힘들다.

治療 및 經過 : 六味地黃湯加 當歸 木瓜 續斷1錢 草烏 鹿茸2錢³⁵⁵⁾ 2濟을 써서 움직이기가 수월해졌다.

考察 : 男子는 腎을 위주로 살아가며 骨屬腎³⁵⁶⁾이므로 六味地黃湯을 쓴 것이다. 六味地黃湯은 腎을 補하는 藥이다.³⁵⁷⁾ 不變의 立場에서 쓴 것이다.

9. 강** 男子 65歲 2005年 11月 26日 來院

形象 : 몸집이 크다. 肥白

症狀 : 자꾸 졸립다. 心下痞 (속이 더부룩하다) 噯氣(트림이 난다) 食事 중에 땀이 많이 난다.(自汗)

治療 및 經過 : 六君子湯 加 厚朴 蘇葉 木香1錢 吳茱萸(당포)5分³⁵⁸⁾

考察 : 男子이지만 말랐으므로 女子로 보고 變化의 立場에서 四物湯加味方을 쓴 것이다.

10. 김** 男子 40歲 2004年 10月 5日 來院

形象 : 몸집이 작고 검다. 瘦黑

症狀 : 盜汗 咳嗽(연달아서 한다) 脈은 오른쪽이 70번 왼쪽은 72번 된다.

治療 및 經過 : 六味地黃湯 加 知母 黃柏 陳皮 貝母1돈

考察 : 연달아서 기침을 하는 것은 勞嗽이다.³⁵⁹⁾ 마르고 皮膚가 검으므로 腎을 補해 주어야 한다. 不變의 立場에서 六味地黃湯加味方을 쓴 것이다.

知母 黃柏 甘草는 正氣湯으로 陰火를 내리고 盜汗을 멎게 한다.

34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54. 嘈雜에 밤중에 心嘈하는 症은 思慮가 心을 傷하여 血이 虛해진 것이니 養血四物湯을 쓴다.

35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472.

35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116.

35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65.

35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96.

35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74.

35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65.

35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396.

35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74.

35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655.

35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p. 712.

Ⅲ. 考 察

臨床에서 患者가 오면 우선 이름을 쓰고 다음에 男女를 나누고 다음에 나이를 쓴다. 男女라고 쓴 순간 韓醫師로서 診察이 始作되는 것이다. 男女의 나이를 보고 『黃帝內經』의 ‘年老하는 無子하는 경우’와 ‘氣의 盛衰하는 경우’를 보고 그 사람이 現在 어떤 狀態인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西洋醫學에서는 男女를 사실상 區分하지 않고 男子와 女子는 生殖器를 제외하면 生物學的으로 큰 差異가 없으며, 女性은 단지 약간 變形된 ‘작은 男性’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最近에서야 메리엔 J.리가토 博士가 ‘性認知醫學’을 創始하여 男女가 다르다는 것을 認識하고 研究하기 始作하는 段階이다. 性認知醫學에서는 診斷과 治療에 있어 男女의 差異를 積極的으로 反映해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다. 現在 西洋醫學에서의 “70kg의 成人 男性을 標準으로 한 醫學은 問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韓醫學은 陰陽五行學說을 根本 理論으로 하여 發展되어 왔으며, 『黃帝內經』이래 수많은 醫書에서 男女가 根本的으로 構造가 다르며 그 生理·病理 診斷·治療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黃帝內經』의 ‘年老하면 無子하는 경우’에 보면 男女가 7세와 8세의 곱으로 男體와 女體의 變化過程이 다르다고 하였고, 『普濟方·方脈總論의 辨男女形生神毓論』에 根本的으로 男女가 形成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男子는 생이 시작됨에 右腎에 命門이 居하니 陽에 속해서 海에 應한 것이며, 女子는 左腎에 命門이 居하니 陰에 속하여 달에 應한 것이다.”고 하여 男子는 海에서 氣운을 받고 女子는 달에서 氣운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醫學入門』에서는 “先天圖는 圓이고 後天圖에 人之百病이 皆由水火不交라 故로 以後天坎離로 繼之라 血은 屬水하고 氣는 屬火하니 血陰而氣陽也라 離中之虛에 眞陰이 存焉하고 坎中之滿에 眞陽이 寓焉하니”라고 하여 坎은 水로 腎을 의미하고 離는 火로 心을 意味하여, 사실상 男女를 말하고 있다. 女子는 血을 爲主로 살고 男子는 精氣를 爲主로 살아간다. 『周易』에서도

乾坤이 天地의 理致로 父母의 立場이며 실질적인 變化의 主體로서 男女를 坎離로 말하였다. 男女는 順逆으로 그 構造가 上下 左右 前後 表裏가 正反對로 되어 있다. 『東醫寶鑑』은 다른 韓醫書가 질병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 몸을 中心으로 되어 있으니 그 目次가 形象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男女를 다르게 認識하고 男女의 治療法이 다름을 말하고 있다. 身形門의 先賢格言으로 丹溪의 『色慾箴』에 “사람의 삶은 天地와 함께 한다. 坤道는 女가 되고 乾道는 男이 된다. 이들이 짝이 돼서 夫婦가 되니 낳고 기르는 것은 夫婦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였다. 全體的인 男女의 構造에 대해 『東醫寶鑑·乳門·男腎女乳가 性命의 根本이다』에 보면 “男子는 腎으로 重을 삼고 女子는 乳로써 重을 삼으니 上下는 같지 않으나 性命의 根本이 되는 것은 한가지이다. 女人은 陰에 屬하니 陰이 極하면 반드시 아래로부터 上沖하는 故로 乳房이 크고 陰戶가 움츠러지는 法이요 男子는 陽에 屬하니 陽이 極하면 반드시 위로부터 下降하는 故로 陰莖은 下垂하고 乳頭는 움츠러지는 법이다.”라고 하여 男女의 構造가 根本的으로 다름을 말하였다. 『東醫寶鑑·辨證門』에 男女의 病因으로 “모든 病에 男子는 반드시 房勞를 살펴야하고, 女子의 病은 먼저 月經과 孕胎의 與否를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醫學正傳』에서는 『素問·舉痛論』을 인용하여 “모든 病이 氣에서 생기는데, 이러한 氣病은 怒喜悲恐驚과 寒熱과 精神과 肉體의 過勞로 오며, 사람의 正氣는 血과 더불어 짝이 되어 온 몸을 運行한다고 하였다. 攝生에 있어서 五志의 火를 다스리지 못하고 五味의 偏僻됨에 날마다 傷한데다가 外邪의 侵犯을 받아 清陽이 上升하지 못하고 濁陰이 下降하지 못하여 人體의 循環이 순조롭지 못하여서 모든 氣痛이 痼疾病이 된다.”고 하였다. 『素問·至真要大論』에 “病機에 모든 氣가 鬱滯하는 것은 肺에 屬한다.”고 하였고, 東垣은 “氣는 精과 神의 토대로 氣는 神의 祖이고, 精은 氣의 子”라고 하였다. 氣로써 精이 만들어지고 氣로써 神이 발현되게 된다. ‘精氣神血’은 精은 형성의 단위 개념이고, 神은 生命의 精化로서의 정신이고, 氣는 인

신의 생리활동과 외부활동을 하는 생명에너지이고, 血은 혈액을 포괄하는 생체물질로 확대된 개념이다. 『素問·調經論』에서는 “人之所有者, 血與氣已”라 하여 人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氣血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人體를 크게 陰陽으로 二大別한 것으로 神은 氣의 중주로서, 精은 血이라는 생체물질의 단위체로서 각각 氣와 血에 포섭시켜 말한 것이며, 精神이 體라면 氣血은 그것들의 용이다.”라고 하였다. 氣에서 여러 가지 病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 內經에서와 같이 “丹溪는 온 몸을 두루 흘러 다니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氣이다. 만일 內傷이 없고 外感이 없다면 어떻게 氣病이 생기겠는가?”라고 하였고, 또한 丹溪는 “氣鬱에서 氣病이 처음 생길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七情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혹은 六氣로 인하여, 飲食의 不調節로 인하여 津液이 運行되지 않고 淸濁이 서로 간섭하여 氣로부터 積이 되고 積으로부터 痰이 되면 氣가 鬱하고 兼하여 痞滿하고 疼痛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病이 오는 것을 크게 氣血으로 나눌 수 있다. 『東醫寶鑑·氣의 用藥法』에서 “正傳에 男子는 陽에 屬해서 氣가 흠어지기가 쉽고, 女子는 陰에 屬해서 氣가 많이 鬱滯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男子는 氣病이 적고 女子는 氣病이 많다. 그러므로 治療法으로 女子는 血을 고르게 하여 氣를 소모시켜야 하고, 男子는 氣를 고르게 하여 血을 길러야 한다고 한 것이다.”라 하였다. 또 “入門에 七情은 모두 마음에서 생기고, 七氣는 모두 氣에 屬한다. 氣는 陽이라서 움직이면 火가 된다. 그러므로 降火 化痰 消積하는 것으로 治療한다. 火가 많으면 黃連解毒湯을 습하고, 痰이 많으면 二陳湯을 습하며, 積이 많으면 平胃散을 습한다.”고 하였다. 七情과 七氣는 모두 七情으로 병이 오는 것이지만 七情은 心에 屬하고 七氣는 肺에 屬한다. 七氣는 七情損傷으로 身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람이 七情이 있는 동시에 七氣가 있다. 氣가 맏히면 痰이 생기고 痰이 盛하면 氣가 더욱 맏혀진다. 七氣로 인해 腹中이 脹滿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고 上氣가 되고 심하면 五積 六聚 疝癖 癥瘕등이 생긴다고 하였다. 女子가 氣가 鬱滯

되어서 病이 생기는 경우에 降火 化痰 消積하는 治療를 한다. 여기서는 각각 습한다고 하였는데, 臨床에서는 하나의 處方으로 各各 쓴다. 女子가 氣가 動하여 火가 되면 黃連解毒湯을 쓰고, 밥을 먹지 못하고 胃에 問題가 생기면 平胃散을 쓰며, 痰이 있으면 二陳湯을 쓴다. 降火 化痰 消積하는 것은 풀어주는 治法이다. 요약하면, 女子는 陰에 속하여 氣가 鬱滯되어서 病이 오고 男子는 陽에 속하여 氣虛하여 病이 온다.

男子가 陽에 속한다는 것과 女子가 陰에 속한다는 것을 설명해 보면, 男子가 陽에 속한다는 말은 본래는 陰이란 말이다. 본래 陰이란 말은 全體의 부피가 크다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陽에 屬한다는 말은 잘 흠어뜨린다는 말이다. 이렇게 흠어뜨리기에 陰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의 陰이란 체위야한다는 意味가 있다. 女子가 陰에 속한다는 말은 본래는 陽이란 말이다. 여기서 陽이란 全體의 부피가 작다는 意味이다. 그리고 여기서 陰에 屬한다는 말은 끌어 모은다는 意味이다. 그래서 너무 모으기 때문에 陽이 필요하다. 여기서 陽의 의미는 運行을 시켜야 한다는 意味이다. 이와 같이, 三變하는 理致가 있다. 動物을 보면, 대개 수컷이 크고, 암컷이 작은 것이 一般的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肥人은 氣虛하고 瘦人은 血虛하다. 性情的으로도 男子는 골칫거리가 있으면 술을 마셔서 잊으려 한다. 지난 일들을 잘 잊어버린다. 女子는 사소한 것도 잘 잊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醫書에 보면 과부사니증은 있지만 홀아비병은 없다.

『醫學正傳』을 보면 “모든 病은 氣에서 생기며 氣는 血과 짝이 된다.”고 하였다. 男子는 陽에 속하여 氣가 흠어지기가 쉽다는 것은 氣虛가 되기 쉽다는 말이고 女子는 陰에 속하여 氣가 많이 鬱滯된다는 것은 氣實하다는 말이다. 『東醫寶鑑·辨證門』에 “男女의 病因에 대해, 모든 病에 男子는 반드시 性生活을 살피고, 女子는 먼저 月經과 妊娠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男子의 병은 性과 연관이 되므로 항상 精이 不足하고 精이 不足하므로 氣가 不足하다고 할 수 있다.(氣가 모여서 精이 되며, 精이 있어야 氣가 있다.) 그에 反해 女子는

月經과 妊娠으로 항상 氣가 부족하지만 氣가 實하다고 할 수 있다. 氣가 實하다는 의미는 끌어 모으는 힘이 강하다는 표현이다. 氣가 虛하다는 것은 氣가 不足하다는 말이고 氣가 實하다는 것은 氣가 運行이 잘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男子에게 氣病이 적다는 말은 男子의 病은 根本적으로 虛證이라는 의미이다. 女子에게 氣病이 많다는 말은 女子의 病은 根本적으로 實證이라는 의미이다. 대개 氣가 虛한 경우는 四君子湯을 쓰고, 氣가 實할 경우에는 小烏沈湯을 쓴다. 氣虛에 四君子湯을 쓴다는 말은 男子의 경우이고, 氣實에 小烏沈湯을 쓴다는 것은 女子의 경우이다. 四君子湯은 眞氣가 虛弱한 것을 補하여 숨이 짧고 氣運이 적은 것을 치료하는 약이다. 小烏沈湯은 氣痛에 쓰는데, 氣가 運行이 안 되어서 아픈 경우에 쓴다. 小烏沈湯은 여러 가지 氣로 心腹이 찌르듯이 아픈데 쓴다. 處方의 構成을 살펴보면, 四君子湯은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로 되어 있고, 小烏沈湯은 香附子, 烏藥, 沈香, 甘草로 되어 있다. 四君子湯은 補氣하는 藥으로 小烏沈湯은 氣를 運行시키는 藥으로 되어 있다. 四君子湯은 氣가 虛하여 運行이 안 되는 경우에 使用하는 약인데 이를 “丹溪는 氣病에는 補하는 法이 없다고 하나 正氣가 虛하여 運行이 안 되는 것을 생각 못한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男子와 女子를 氣虛와 氣實로 구분할 수 있는데, 『東醫寶鑑·內傷門』의 “噯氣의 경우에 보면, 氣가 實하여 트림하는 症은 飲食한 뒤에 腐氣를 트림하고 심하면 物體를 트림해내니 濕熱의 소치인데 二陳湯에 蒼朮神曲麥芽 薑炒黃連을 가해 쓰고, 氣가 虛하여 트림하는 症은 濁氣가 가슴에 매어 있으면서 飲食하지 않아도 항상 트림하는데 이것이 곧 虛로 인하여 일어나는 증세이다. 대개 胃에 濁氣가 있고 胸膈에 濕痰이 있으면 다 噯를 發하는 범인데 六君子湯에 沈香을 가해서 君을 삼고 厚朴 蘇葉으로 臣을 삼고 吳茱萸를 使를 삼아서 煎服한다.”라고 하였다. 氣가 實하다는 것은 氣가 運行이 잘되지 않는다는 말이며, 氣가 虛하다는 것은 氣를 運行하는 힘이 不足하다는 말이다. 二陳湯은 女子에게 쓴다고 하였고, 六君子湯은

二陳湯에 四君子湯을 합한 것이다. 氣가 虛하면 四君子湯을 쓴다고 하였으니 六君子湯은 男子에게 쓰는 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內傷門』에 보면, 食傷은 飲食物에 처음 傷했을 때에 飲食物을 보기 싫어하고 미식미식거리는 惡心症狀이 있다. 食傷의 治療法에 二陳湯에 蒼朮 白朮 川芎 山楂를 가해서 쓰는 것은 女子의 경우이다. 이에 반해 食傷의 補益法에, 脾胃가 弱하여 飲食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무조건 치는 藥을 쓰면 안 된다. 錢氏異功散으로 補하면 자연히 먹을 수 있다고 한 것은 男子에 해당된다. 錢氏異功散은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 橘皮, 木香으로 處方이 구성되어 있다. 四君子湯에 橘皮 木香을 가한 것이다. 食傷의 補益劑에 나오는 六君子湯도 또한 男子藥이다. 이와 같이 男女에 따라 處方을 달리 하여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血病을 두루 治療하는 藥인 四物湯은 기본적으로 女子의 藥이다. “女子는 經帶胎産의 生理的인 特性이 있으므로 肝이 先天이 된다. 女子는 月經을 하는 이후로 肝을 위주로 살아간다.” 四物湯은 當歸 川芎 白芍藥 熟地黃의 네 가지로 이루어졌으니 四象으로 되어 있고, 또 各各 1錢 2分半으로 5錢이니 5의 운행으로 되어 있는 까닭이다. 마찬가지로 四君子湯도 四象과 五行으로 이루어졌다. 血은 氣配가 되니, 氣와 血은 서로 互根하는 이치이다.

女子는 四物湯을 爲主로 쓰고, 男子는 四君子湯을 爲主로 쓰는 것은 女子는 血이 不足하기 쉽고, 男子는 氣가 不足하기 쉬운 까닭이다. 또한 精은 氣의 根源이 되므로 六味地黃湯이 男子의 藥이라 할 수 있다. 朝鮮時代 許任의 『鍼灸經驗方·序文』에서도 “男女는 反對로 治療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男女는 根本적으로 構造 生理 病理가 다르므로 治法도 다르다.

그러면 男女를 그저 固定不變하는 것으로만 보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東醫寶鑑·身形臟腑論』에서 “一般的으로 사람의 形體는 긴 편이 짧은 편만 못하며 큰 편이 작은 편만 못하고 살찐 편이 여윈 편만 못하며 흰 편이 검은 편만 못하고 嫩한 편이 蒼한 편만 못하며 얇

은 편이 두터운 편만 못한 것이다. 더우기 살이 찌면 濕이 많고 여위면 火가 많으며, 희면 肺氣가 虛하고 검으면 腎氣가 足하므로 사람에 따라서 形色이 다르고 臟腑도 같지 않으니 外症은 비록 같을 지라도 治法은 사람에 따라 判異하다.”라고 하여 形象에 따라 治法을 다르게 해야 함을 朱丹溪의 말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 形象이란 天地萬物의 組織 運行하는 形態가 우리가 認識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인데 形象이 같으면 그 組織 運行하는 法則이 같은 까닭에 形象에 따라 治法을 달리해야 한다. 形象醫學을 주창한 芝山 朴仁圭는 男女의 基準을 肥瘦 黑白 長短 剛柔의 立場에서 說明하였고 實際로 臨床에 適用하여 有效하였다.

그러므로 男女의 差異에 대해 두 가지 方面으로 생각해보면 ‘男女가 위와 같이 生殖器의 差異에 따라 構造가 다르며 그 生理·病理가 다르다는 사실’이 不變이며, ‘男女를 形象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變化라고 보아 本 研究에서는 男女의 差異를 不變과 變化의 面에서 考察하였다.

不變의 立場에서 女子는 體格이 작아서 잘 움직이고 男子는 體格이 크고 잘 드러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男子는 陽에 屬하여 氣가 흠어뜨리기 쉽다. 일례로 남자는 조금 기분이 나빠도 술을 마시므로 우울증이 잘 오지 않지만 精氣를 補해 주어야 하며, 女子는 陰에 屬하여 氣가 잘 울체된다. 잘 모으는 성질이 많으므로 우울증이 오기 쉽게 되므로 풀어주는 藥을 많이 쓴다. 단순히 말하면 ‘男子의 病은 虛證이며, 女子의 病은 實證이다.’라고 할 수 있다.

變化의 立場에서 男女의 基準을 肥瘦 黑白 長短 剛柔의 立場에서 說明하는데, 男子는 黑長肥剛하고 女子는 白短瘦柔한 것이 原則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男子는 대개 크고 女子는 작다. 그런데 男子가 작은 경우가 있고 女子가 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작은 男子를 女子로 보고 큰 女子를 男子로 보고 治療해야 할 것이다. 작은 男子는 血이 不足하다고 보아 四物湯을 주고 큰 女子는 氣가 不足하다고 보아 四君子湯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女子가 뼈가 굵다면 六味地黃丸을 쓸 수 있다.

이러한 ‘男女의 不變과 變化의 立場에서 醫學的인 運用’에 대해서 理解를 쉽게 하도록 臨床例를 들어 說明하고자 하였다. 臨床에서 形色脈證을 合一하여 辨證論治를 하여 處方을 결정한다. 단순히 男子이기에 六味地黃丸 女子이기에 四物湯하는 것보다는 男子가 작은 경우에 四君子湯 四物湯 六味地黃湯을 쓸 수 있고, 女子가 큰 경우에 四君子湯 二陳湯 平胃散 六君子湯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男女가 根本的으로 그 構造·生理·病理가 差異가 있음으로 形象을 區別하지 않고 用藥하는 것이 不變의 立場이고, 形象에 따라 다르게 보고 用藥하는 것이 變化의 立場인 것이다.

事物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判斷하는 것은 매우 重要하다. 더구나 사람의 生命을 다루는 醫學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基準이 필요하다. 事物을 認識하는데 있어 어떠한 基準이 必要하다고 본다. ‘男女가 根本的인 面에서 構造·生理·病理가 다르다는 그 事實이 不變’임과 ‘形象에 따라 男女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變化임의 이 두가지 ‘不變과 變化의 立場’이 그 基準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男女의 差異에 根據한 醫學的 運用이 韓醫學의 根本原理인 陰陽의 理致에 맞는 것이라 생각된다.

IV. 結 論

본 論文에서는 男女의 差異에 根據한 男女形象의 醫學的 運用에 대하여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男女가 根本的인 면에서 다르다는 그 事實이 不變의 立場이며, 形象에 따라 男女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 變化의 立場이다. 男女의 不變과 變化의 立場은 不變은 生殖器上的 男女이고, 變化는 形象的인 面에서의 男女이다.
2. 不變의 立場에서 男女는 生殖器上的 男女인데, 西洋醫學에서는 男女를 사실상 구분하지 않고

男子와 女子는 生殖器를 제외하면 生物學的으로 큰 差異가 없으며, 女性은 단지 약간 變形된 '작은 男性'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最近에 와서야 性認知醫學에서 男女가 다르다는 것을 認識하는 初步的인 段階이다. 그러나 韓醫學에서는 『黃帝內經』이래 수많은 醫書에서 男女를 다르게 보고 研究되어 왔다. 男女는 根本的으로 構造가 다르고 그 生理·病理·診斷 治療가 다르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3. 變化의 立場에서 보면, 朱丹溪는 『東醫寶鑑·身形臟腑論』에서 '外症이 비록 같을지라도 治法은 사람에 따라 判異하다.'라고 하여 形象에 따라 治法을 다르게 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變化의 立場에서 男女는 形象으로 區分되어지는데 그 基準으로 肥瘦·黑白·長短·剛柔로 나눌 수 있다. 男子는 黑長肥剛하고 女子는 白短瘦柔한 것이 原則이다.
4. 男女를 不變과 變化의 立場에서 보고 醫學的인 運用을 한다면 臨床에서 매우 有用하다. 事物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判斷하는 것은 매우 重要하다. 더구나 사람의 生命을 다루는 醫學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基準이 필요하다. '男女가 根本的인 面에서 다르다는 그 事實이 不變'임과 '形象에 따라 男女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不變과 變化의 立場'이 그 基準이 될 수 있다.

參考文獻

<논문>

1. 李仁洙, 東醫寶鑑의 目次에 대한 研究. 大韓形象醫學會誌. 2004. 5(1).
2. 金南一, 王冰·素問註釋의 易學理論 活用に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단행본>

1. 尹暢烈, 醫哲學. 大田. 周珉出版社. 2005.
2. 엘런피즈 바바라피즈 저 서현정 역. BODY LANGUAGE. 서울. 베텔스만 코리아. 2005.
3. 許浚, 윤석희 외 7인 옮김.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4. 메리앤J.리가도 저. 임지원 譯. 이브의 몸. 서울. (주)사이언스북스. 2004.
5. 尹暢烈 외 2인 譯. 懸吐完譯·黃帝內經素問王冰注. 大田. 周珉出版社. 2003.
6. 南懷瑾 著. 신원봉 譯. 周易講義. 서울. 문예출판사. 2000.
7. 朴仁圭. 너와 나의 세계. 서울. 芝山出版社. 2000.
8. 邵康節 著. 노영근 譯. 皇極經世書. 서울. 대원출판. 2002.
9. 尹暢烈 외 1인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2.
10. 李仁洙. 形象醫學에 대한 考察. 碩士學位論文. 慶熙大學校. 2002
11. 韓長庚. 周易·正易. 서울. (주)도서출판 삶과꿈. 2001.
12. 洪元植, 尹暢烈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13.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II. 서울. 芝山出版社. 1999.
14. 張俸赫. 學易綜述. 서울. 도서출판 學古房. 1999.
15.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16.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17.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I. 서울. 芝山出版社. 1998.
18. 張介賓 原著. 李南九 編著. 張氏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1998.
19. 汪琥古 撰. 大田大 韓醫科大學第10期 卒業準備委員會 共譯. (國譯) 此事難知. 서울. 大星文化社. 1998.
20. 裴秉哲 編著. 基礎韓醫學. 서울. 정보사부설 전통의학연구소. 1997.

21. 姜鎭春 撰. 偉大한 自然變化. 서울. 도림출판사. 1997.
 22. 郭東烈 編譯. 醫易啓悟. 서울. 성보사. 1997.
 23. 郭東烈 編譯. 문답식周易과 韓醫學. 서울. 成輔社附設 傳統醫學研究所. 1997
 24. 金秀吉 外 1人 共譯 周易印解. 서울. 大有學堂. 1997.
 25.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26.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27.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서울. 芝山出版社. 1996.
 28. 文國鎭 著. 古今無冤錄. 서울. 도서출판 고려의학. 1996.
 29. 汪琥古 撰. 大田大韓醫科大學第9期卒業準備委員會 共譯. (國譯)湯液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96.
 30. 裴秉哲 譯. 今釋 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95.
 31. 裴秉哲 譯. 今釋 黃帝內經靈樞. 서울. 成輔社. 1995.
 32. 楊力 著. 金忠烈 外 1人 譯. 周易과 中國醫學 (上). 서울. 범인문화사. 1995.
 33.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5.
 34. 曹誠佑, 韓重洙 編. 易學大辭典. 서울. 明文堂. 1994.
 35.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東方文化. 1993.
 36. 明 朱橚, 膝碩, 劉醇 編著. 校正 普濟方 卷一. 서울. 醫聖堂. 1993.
 37. 金完熙, 申攻圭, 梁基相, 洪茂昌, 金吉萱, 宋点植, 金廣中, 柳道坤, 李鏞泰, 李忠烈 外 2人 編著. 東醫生理學.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38. 張介賓 選. 김은하 編譯. (國譯) 類經圖翼 運氣編. 서울. 一中社. 1992.
 39. 韓南洙 著. 金性銓 編. 石塘理氣韓醫學. 서울. 도서출판 醫聖堂. 1992.
 40.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41. 李炳幸 編著. 鍼道源流重磨. 考試研究院. 1985.
 42. 南豐 李槌. 懸吐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43.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門社. 1982.
 44.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탐구당. 1975.
 45. 宋慈 著. 洗冤集錄. 台北. 中華民國六十八年.
 46. 楊繼洲 原著. 李泰浩 編著. 新訂懸吐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73
 47. 許任. 鍼灸經驗方. 서울. 杏林書院. 1965.
 48. 唐容川 著. 秦伯末 批. 經驗要訣. 서울. 杏林書院. 1963.
 49. 韓長庚. 易學原論. 서울. 學友社. 檀紀 4288.
 50. 成周鳳. 韓方醫學講習書. 大田. 以文社. 1936.
- <기타>
1. 朝鮮日報 2005年 9月 21日 D1, D5면